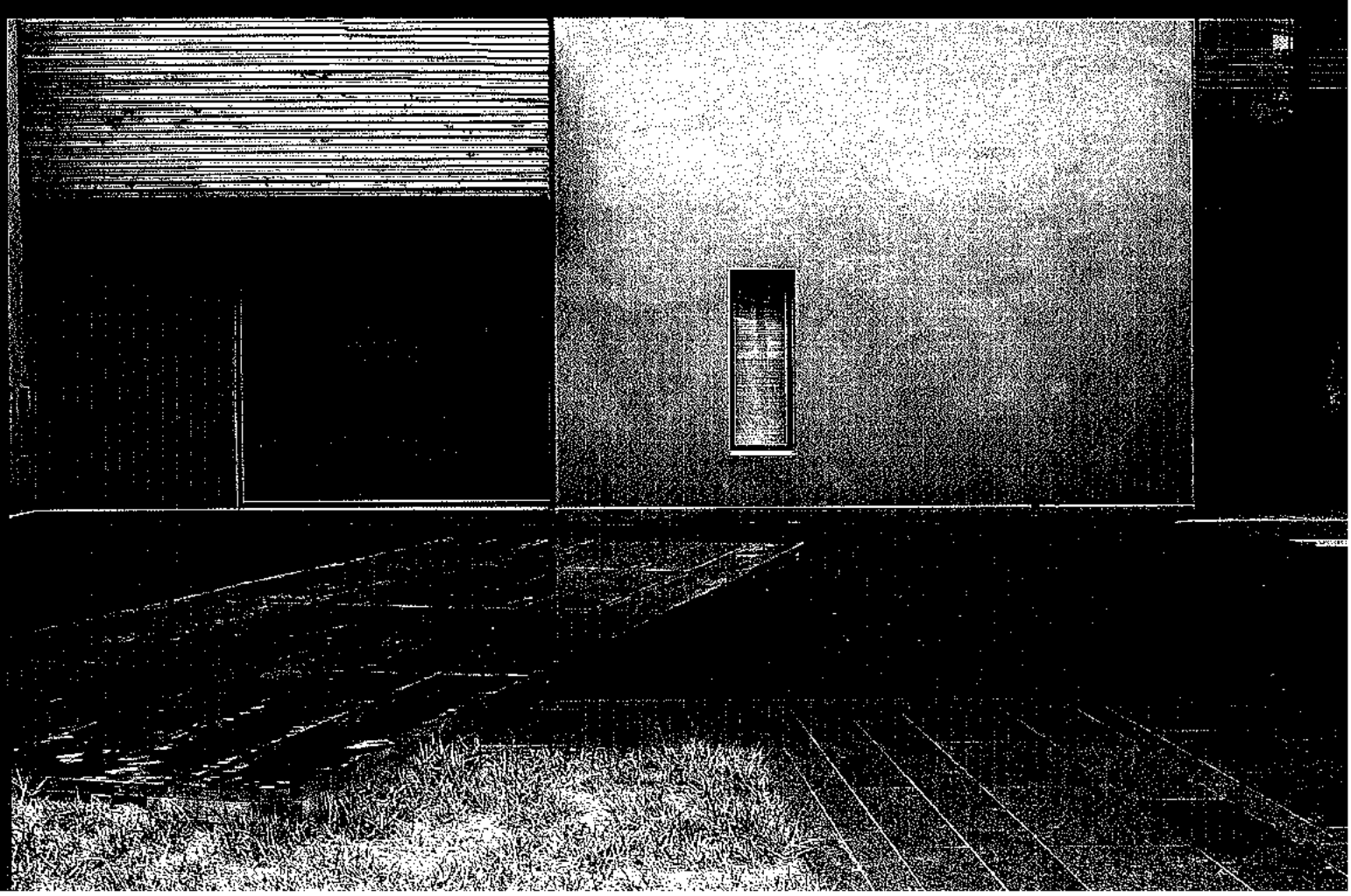
建築士

10 2002



시스템에어컨
WHISEN 휘센

LG전자

큰건물에 강하다

LG시스템에어컨 휘센

한 대의 실외기에 접속되는 냉매배관을 단배관으로 직렬구성하여
탁월한 에너지 효율, 편리한 설치 및 설치비용의 절감은 물론
다양한 실내기를 자유롭게 연결하는 효율적 배관구조의 시스템입니다

공간절약과 에너지절약의 고효율 냉난방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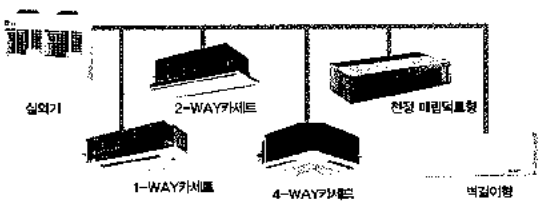
별도의 실내기 설치공간 및 기계실이 필요 없고, 기존 냉난방시스템 대비 최고 40%까지 에너지가 절감됩니다. (ESCO자금 지원대상제품)

빠르고 강력한 인버터 냉난방시스템

강력하고 유연한 인버터 압축기 채용으로 ±0.5℃의 미세 온도제어와 1.5배 빠른 쾌속운전은 물론 영하 15℃ 혹한기 난방까지 책임집니다.

자유로운 설계/설치가 가능한 Free Joint 빌딩 멀티

4.5~30Hp의 실외기 용량, 다양한 실내기 기종 및 빌딩에 적합한 냉매배관 시스템(수평 100m/수직 50m)으로 설계가 자유롭고 설치가 간편합니다.



편리하고 다양한 개별/중앙제어 시스템

실내기 개별제어/그룹제어/인터넷 제어/중앙제어/PC제어/
적산전력 분배시스템등 다양하고 편리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중앙제어 컨트롤러)

▲ 인터넷/ PC제어 ▲ 50상 중앙제어기 ▲16상 중앙제어기 ▲개별제어 리모컨

시스템에어컨 제품 구입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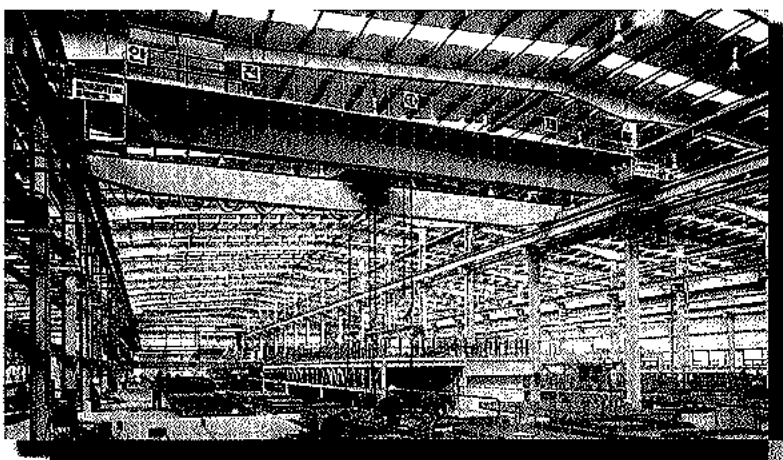
강남 (02)2005-3578 강북 (02)727-4180 경기/강원 (031)217-5091 인천/부천/안산 (032)321-9161 부산 (051)807-3241
경남 (055)238-6402 경북 (053)257-0808 충청 (042)254-4210 호남 (062)510-5840 시스템에어컨MC (02)2005-3054

시스템에어컨 기술 상담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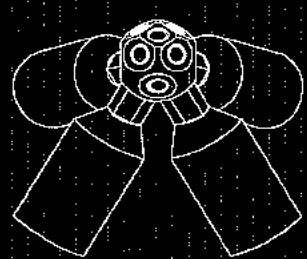
서울(02)2005-5055~60 ※시스템에어컨 홈페이지 (www.systemaircon.com)을 방문하시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한맥의 첨단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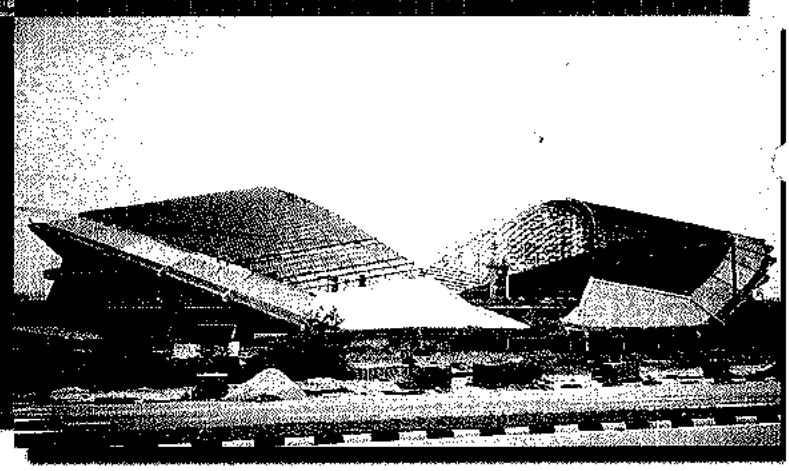
P.E.B & Space Frame



● P.E.B 용도 : 공장, 물류창고 등.
● 주요실적 : 육군정비창 33개공장,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태국비료공장, 중국MOBIL석유, 베트남 HUY-HOANG공장 등 국내외 800여개소.



● Space Frame 용도 : 체육관, 공항, Dome등.
● 주요실적 : 말레이시아 Shah Alam종합경기장, 인도네시아 Dome, 일본 Ogawa, 미국 Lejeune Center, 대만 타이페이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신청사, 목동빙상경기장 등 국내외 1,000여개소.



지난 20여년간 특수철구조물만을 개발하여온 한맥기술진은 Computer Software를 응용하여 3차원 구조역학의 P. E. B(Pre-Engineered Building System)와 Space Frame System을 자체개발, 대규모 무주공간건축을 가능하게 하였고, 기존 철구조물에 비하여 30% 원가절감은 물론 현장조립공법으로 공기단축을 실현하였으며, 연간 7만여톤을 제작 · 시공할 수 있는 대규모 자동화 생산설비를 갖춘 Asia 최대의 특수철구조물 Maker로 외관이 미려한 혁신적인 철구조물을 세계각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기술영업상담 (02)783-9999

기술제휴 : PASCOE BUILDING SYSTEMS, INC.

FOR MORE THAN 50 YEARS

특수철구조물의 개척자

한맥重工業株式會社

HANMAEK HEAVY IND. CO.,LTD.

● 본사 · 공장 :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B-1 나-707
TEL: (031)499-0114(代), FAX: (031)498-0511
● 서울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1-49(선기빌딩 4층)
TEL: (02)783-9999(代), FAX: (02)785-0030

http : //www.hanmeak.co.kr

MBC Radio 방송광고 (매일22:59- AM.FM)중
KBS 2 Radio 방송광고 (매일18:04- AM.FM)중

정부조달 우수제품 인정
신기술 KT 인정제품

국내 최초 난연성 인테리어 신소재

불연 인테리어 건축 내장 마감재

안타민

· 불에 안타면서 불의 확산을 막아줍니다
·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양한 칼라, 패턴으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 시공이 간편하고 경제성이 있습니다.
· 충격에 강합니다.

소방법, 건축법에서의 해방!

2002. 4. 1 소방법 개정시행(대통령령)

특수장소 및 다중이용업소의 벽체, 천정에
설치하는 실내장식 마감재는
불연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SEOHAN

www.antamine.com / www.seohandeco.co.kr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41-8(남동공단 165B-6L)
TEL:032-815-1674~7 FAX:032-814-4155 E-mail:seohan@antamine.com seohandeco@seohandeco.co.kr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중

설계 도면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Anydesk가 해결해 드립니다

○ Anydesk란?

기업 또는 개인의 도면, 문서 등의 소중한 파일을 첨단 데이터 센터에서 안전하
보관하고, 관리하는 인터넷 상의 온라인 도면관리 서비스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고, 다수의 사람이
프로젝트 별로 도면, 이미지, 동영상 등과 같은 대용량의 자료를 보관/전송/이
및 공동작업 환경을 구성

소중한 자료를 바이러스, 시스템 장애, 화재, 도난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

○ 활용 효과

주요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원하는 도면을 즉시 검색 및 재활용 가능
용량이 큰 도면을 빠르고 편리하게 전달
도면 열람과 수정을 출장 중이라도 인터넷만 접속되면 어디서든 수행가능
바이러스,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한 파일손상시 즉시 복구 가능

Anydesk™ 인터넷 도면관리 서비스

무료 체험 이벤트

제품 출시 기념으로 선착순 1,000고객께 1개월간 무료사용 기회를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 www.anydesk.co.kr에서 회원 가입후 신청

문의 및 상담안내 Tel 02-3671-0100 Fax 02-3471-626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25-1 보성빌딩 6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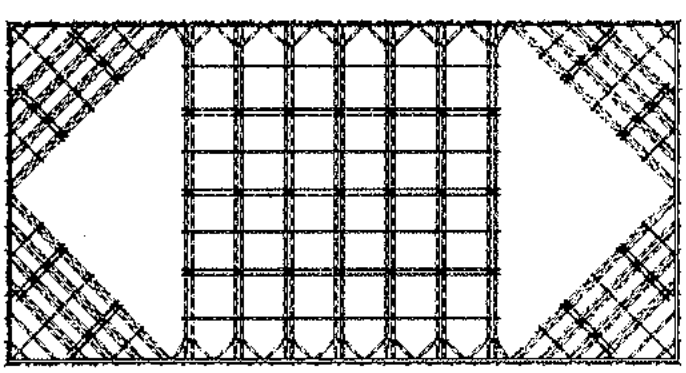
NOA
(주) 노아테크놀

버팀보 절약형 흙막이 공법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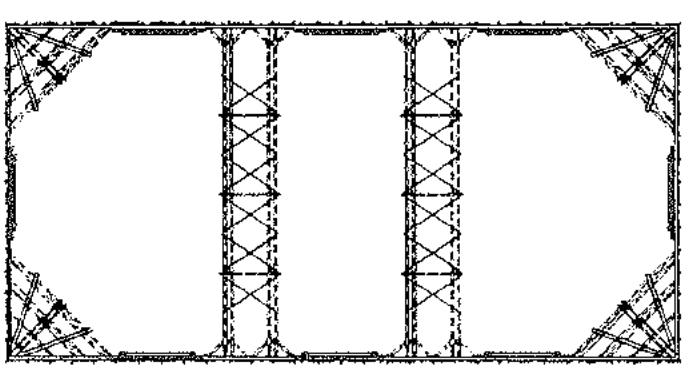
기존공법과의 비교

일반 흙막이 공사에 주로 이용되는
Strut 지지공법과 **신공법인 PS 흙막이 공법**의
시공성, 안정성, 경제성 등을 간략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 STRUT 공법	PS 공법
주 요 사용자재	· SS41 (H-300×300)	· SS41 (H-300×300)
시 공 성	· 시공실적이 많다. · 숙련도가 높다. · 강재사용이 많아 작업능률이 저하된다. · 용접 및 BOLT조립으로 시공속도가 저하된다. · Strut, Post Pile의 간격이 좁아 토공작업시 능률이 떨어진다. · 본 구조물 시공시 작업공간 협소로 인하여 품질이 저하된다. · 굴착모양에 따라서 많은 제한을 받는다.	· 겹띠장 설치시 정밀시공을 요한다. · 강재 사용이 절반 이하로 줄게 되어 작업능률이 좋다. · 시공속도가 빠르다. · STRUT및 POST PILE의 간격이 훨씬 늘어나서 작업공간 확보가 용이하다. · 본 구조물 시공시 작업공간 확보로 인하여 품질을 높일 수가 있다. · 굴착모양에 따라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안 정 성	· 현장 시공시 일반 SCREW JACK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주변지반의 변위가 많이 발생한다.	· CABLE을 이용하여 PRESTRESS를 가하기 때문에 주변지반의 변위량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경 제 성	· 강재 사용량이 많아 비경제적이다. · STRUT 설치간격이 좁아서 시공속도가 느리다. ·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굴착작업시 시간이 지연된다. · 공기가 길다.	· 사용강재가 줄게되어 경제적이다. · STRUT및 POST PILE, WALE이 줄어들어 시공속도가 빠르다. · 작업공간 확보가 용이하여 굴착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다. · 공기가 짧다. · Earth Anchor경우와 같이 인접지 동의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일반 STRUT 공법



PS 공법

피에스 건설 엔지니어링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1동 534번지 유진B/D 2F
TEL 02-478-4530~2 FAX 02-474-3618
홈페이지 : www.pseng.co.kr e-mail : ps4530@kornet.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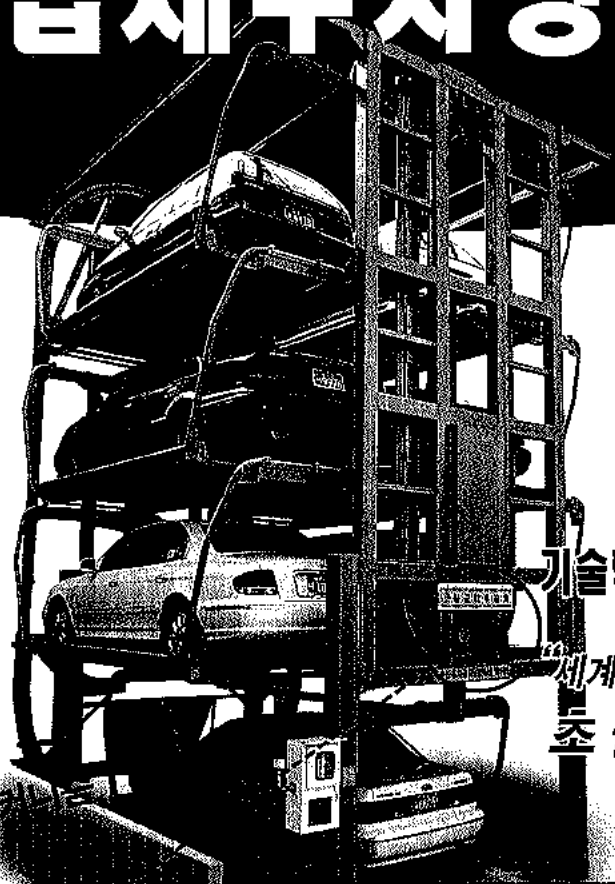
세·계·최·초·의·독·자·모·델·로·대·한·민·국·을·대·표·하·는·주·차·기·가·되·겠·습·니·다.

스카이파크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SKY PARK

PL법영업배상책임보험 3억 현대해상화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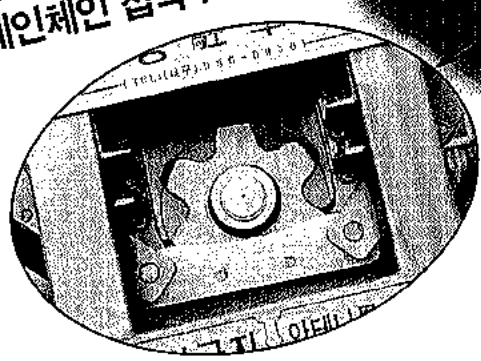
10年이상 쓸 수 있는 주차장치
"자신있습니다"

인정번호 대구 제1-15호
인정번호 대구 제1-16호
실용신안등록 제20-0190325호
실용신안등록 제20-0246310호

기술혁신이 품질향상과 가격혁명을!

"세계최초의 주차기폭 4.57M를 실현한 초슬림형"

세계적 특허방식인
메인체인 접속구동의 新메커니즘



■ 이렇게 다릅니다

- 획기적 간단해진 구동부 만큼 가격은 대폭 내렸습니다.
- 지상지주식(2.3M×2대=4.6M)보다 좁게 폭(4.57M)을 대폭 줄였습니다.
- 구동부가 간단하여 구동효율이 높아 성능은 향상되고 소음, 진동은 대폭줄였습니다.
- 정밀가공 및 JIG이용 제작으로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 도면, 사양 등 상세정보는 홈페이지(www.Juchagi.com)에 있습니다.
- 대한건축사협회 건설자재정보(www.Archidb.com)의 '주차'를 검색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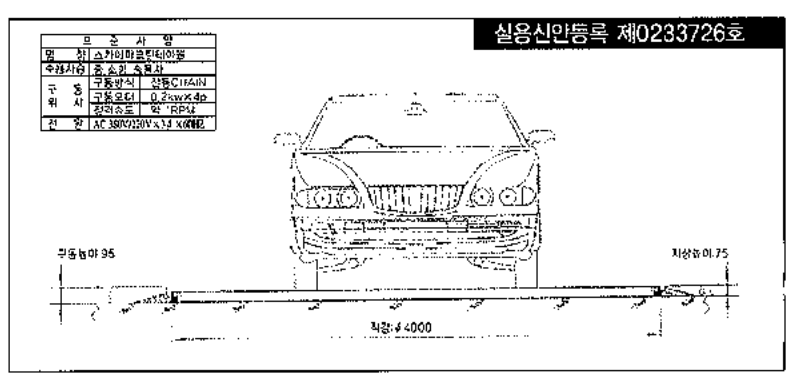
☞ 자매품 Pit를 파지 않고 2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품 2단주차기도 있음. (인정번호 : 대구 제4-25호)

☞ 신제품 **지상설치 턴테이블** - 피트(pit)를 파지 않고 지상높이 75mm!

■ 사양(뉴그랜저급 진입가능)

모델명	수용대수	주차기 폭 (最小)	주차기 길이 (最小)	소요높이 (最小)
SKY PARK- 5	5 대	4570	6090	6830
SKY PARK- 6	6 대	4570	6090	7720
SKY PARK- 7	7 대	4570	6090	8600
SKY PARK- 8	8 대	4570	6090	9380
SKY PARK- 9	9 대	4570	6090	10390
SKY PARK-10	10 대	4570	6090	11280
SKY PARK-11	11 대	4570	6090	12170
SKY PARK-12	12 대	4570	6090	13060

실용신안등록 제0233726호



이주 특별한 주차기회사

(株)창공駐車産業

since 1989

www.Juchagi.com

본사 ·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번지

- TEL : (053)956-8838(代)
- p.p : 011-507-8838
- 전국무료전화 : 080-567-7788
- E-mail : cgp210@kornet.net
- 서울A/S센터 : (02)3665-2723
- 부산 A/S센터 : (051)784-6721

건축사의 신용, 대출名家의 자존심을 약속합니다!!

보험으로 쌓은 신뢰, 대출로 이어가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소중한 희망을 위해
이젠, 보험뿐만 아니라 대출도 삼성생명과 상담해 주세요.

내일을 위한 희망설계 – 삼성생명 대출

삼성생명대출특선!!

신용대출 안내 (무담보 무보증 원칙)

대출자격 / 건축사, 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기술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및 교사, 기타 공무원
대출금액 / 1천만원~1억 5천만원
예상금리 / 연 7.0%~13.5%
기 간 / 1년~5년 (수시상환,연장,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가능)
대출기관 / 삼성생명, 제1금융(은행), 제2금융(보험사, 금고 등)

- 창업자금 특별상담
- 담보대출 : 최저금리, 설정비 면제
- APT 소유자, 구입예정자 : 6.0%~7.0%(10년, 15년, 20년, 30년형)
- APT, 단독주택 등 주거용 전세자금이면 담보설정이 가능하고, 상가, 빌딩 등 임대보증금을 담보(질권설정)로 설정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라이트 플러스 대출 : 최저 6.0%
- 스피드 학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경락대금 : 90%까지 대출 가능

최고액 대출

최저의 금리

신속한 처리

삼성생명
Seed Bank

상담문의

삼성생명 정책5부
팀장 : 양승영
Tel (02) 545-8853~4
Fax (02) 545-4939
H·P 011-9738-0087

내일을 지키는 힘 SAMSUNG LIFE INSURANCE

설계자 중심의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 파우더 형식의 소재로 되어 있어 모양과 색상, 패턴의 조정이 쉽습니다.
- 천연소재의 색상 채용을 통해 자연스럽고 변질되지 않는 아름다움을 유지합니다.
- 100년 이상의 수명을 보장하며, 일반시멘트와는 달리 천연 세라믹 소재를 적용,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적 소재입니다.

건축내외장재로서의 탁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 일반시멘트보다 3배 이상 높은 강도를 자랑합니다.
- 완전방수이면서 세라믹과 같은 공기의 투과기능이 있어 단열은 물론, 열팽창률이 적어 섭씨 1,200도 이상의 고온도 견뎌냅니다.
- 초박막 시공과 소형이 가능해 건물의 하중 부담을 줄여줍니다.
- 다양한 쓰임새의 건축자재로 활용범위가 넓습니다.

어떤 아름다움도 튼튼하게 표현합니다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또한 가장 튼튼한 건물은 모든 건축인들의 꿈입니다.
신소재 건축내외장재 ZHUAI STONE®에는 자유로운 조형의 실현은 물론
건축물의 내구성을 더욱 강화하는 등의 첨단 소재과학이 숨쉬고 있습니다. 소재의
제한이 없는 건축 설계와 시공, 이제 ZHUAI STONE®으로 도전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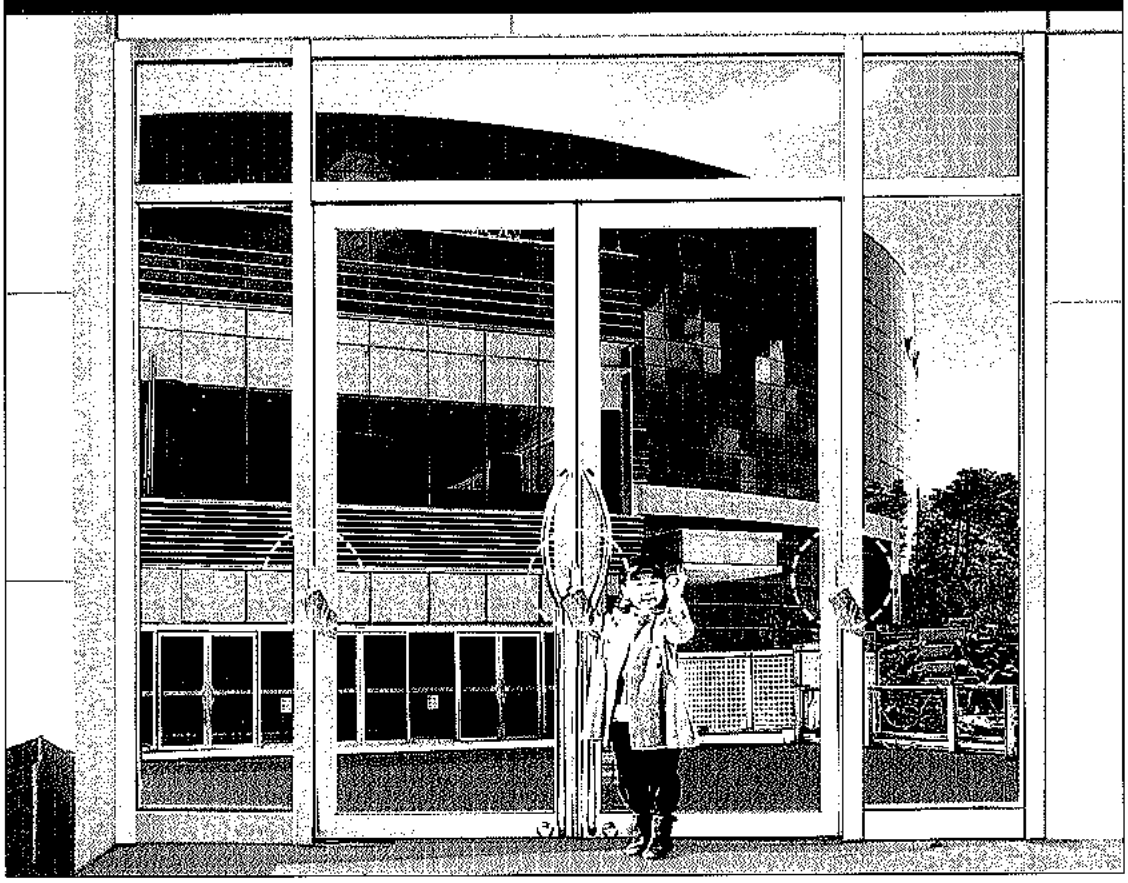
150-05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대영빌딩 1121
Tel 02-785-1822 | Fax 02-785-5531

ZHU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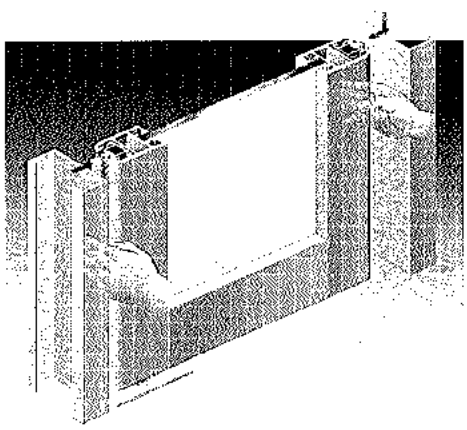
실용신안 제0003710호
의장등록 제28886호

세이프강화도어

제조물 책임(PL)법에 의해 제작된 안전한 문. 세이프 강화도어! — 정우는 안전한 제품만을 생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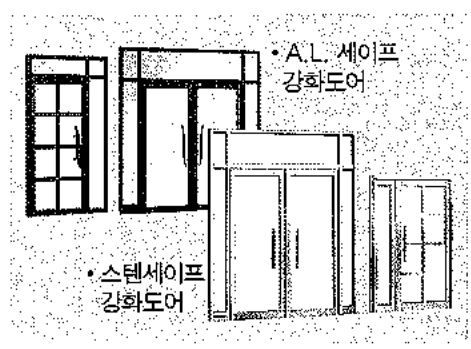


어린이 "손"을 보호하는 도어,
유리 "문" 파손방지 및 에너지 절약, 방음, 방풍이 완벽한 도어!



단면 상세도

사용시에는 방풍, 방음, 단열이 완벽하고 손가락이 끼었을 시에는 이송케이스가 유연하게 작동하여 손가락을 보호하여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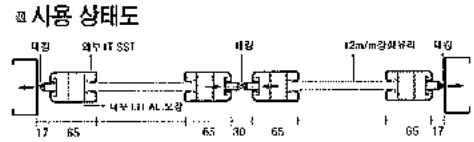


설치 장소

- 학교 • 관공서 • 종교건물 등
- 예식장 • 은행 • 아파트 • 빌딩
- 목욕탕 • 상가건물 • 유치원
- 백화점 • 병원 • 호텔 • 기타

평면 상세도 (홈페이지 설계 다운로드 참조)

▣ 사용 상태도



▣ 어린이 손가락이 끼었을 때 작동 상태도

기존의 일반 강화도어는 안전사고 및 에너지 손실이 많아 단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물가 자료집에서 삭제되었음)
▣ **단가표**: 한국물가 자료집 416p 참조

어린이 「손」 안전과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는 기업

정 우 산 업

www.safedoor.co.kr

본 사 :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374번지
전 화 : (053)325-9800/325-9801~2
FAX : (053)325-9802
E-mail:jungwoo9800@hanmail.net

벤 처 기 업 등 록 업 체

SAMHWA 삼화페인트공업(주)
SAMHWA PAINTS IND. CO., LTD.

완벽한 방수는 물론 오래 지속되는 전문기업의 전문 방수페인트-
방수탄, 우레탄 탄성방수재, 씨리코트, 슈퍼 씨리코트가 있습니다.

잠수하시겠습니까?
방수하시겠습니까?

해마다 장마철만 되면 천장에서 한방울, 두방울~
지붕공사를 하자니 번거롭고 비용도 만만치않죠?
이제 단 한번의 시공으로 5년이상 방수효과가 지속되는 국내 최고의
삼화방수페인트에 맡겨주세요!
튼튼한 우레탄이라 계절별 온도 차이에도 변화가 없고,
탁월한 접착력과 신축성으로 장마철이 거뜬해집니다.

방수페인트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삼화페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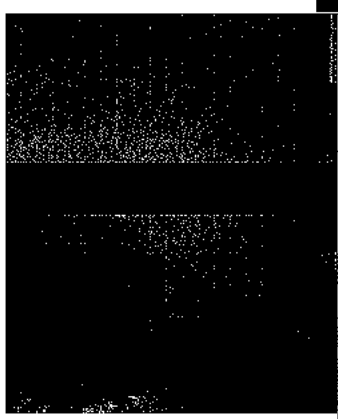
제품문의 www.spi.co.kr / www.paintclub.co.kr

· 고객상담실 Tel: 080-311-2398 (수신자 부담)
· 서울영업소 Tel: (02)741-4133 Fax : (02)745-2445
· 수원영업소 Tel: (031)251-8474~6 Fax : (031)251-8478
· 대구영업소 Tel: (053)651-5396~8 Fax : (053)651-5399
· 스 펙 팀 Tel: (02)765-3641 Fax : (02)765-3601
· 인천영업소 Tel: (032)424-7515~7 Fax : (032)424-7518
· 부산영업소 Tel: (051)583-7001~4 Fax : (051)583-7005
· 원주영업소 Tel: (033)745-7717~8 Fax : (033)745-7719
· 건 축 용 팀 Tel: (02)744-3895 Fax : (02)745-2445
· 대전영업소 Tel: (042)626-1101~2 Fax : (042)626-1103
· 광주영업소 Tel: (062)529-8877,6600 Fax : (062)526-5779
· 전주영업소 Tel: (063)222-7408~9 Fax : (063)222-7705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2002년 10월호. 통권402호

건 축 사

차례 2002 10 402호



분당주택(이성관 作)

칼럼	설계로 말할 때이다	박인석	18
회원작품	21세기 좋은 병원	정현화 · 임영수 · 이한종	20
	안성맞춤박물관	권문성	30
	목선아트센터	김동훈	38
	분당주택	이성관	46
	압구정 서원 제3빌딩	박연심	56
	신풍동노인주택	손기찬	64
현상설계	서울대학교 간호대 기숙사		72
	한국토지공사 충남지사		76
	한국토지공사 전남지사		80
	임실청소년수련관		82
작품노트	금오공과대학교 제3대학	서기영	84
기고	두가지 제안 –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오섭훈	88
건축만평		유원재	90
건축마당	건축계소식		91
	해외잡지동향		96
	세무안내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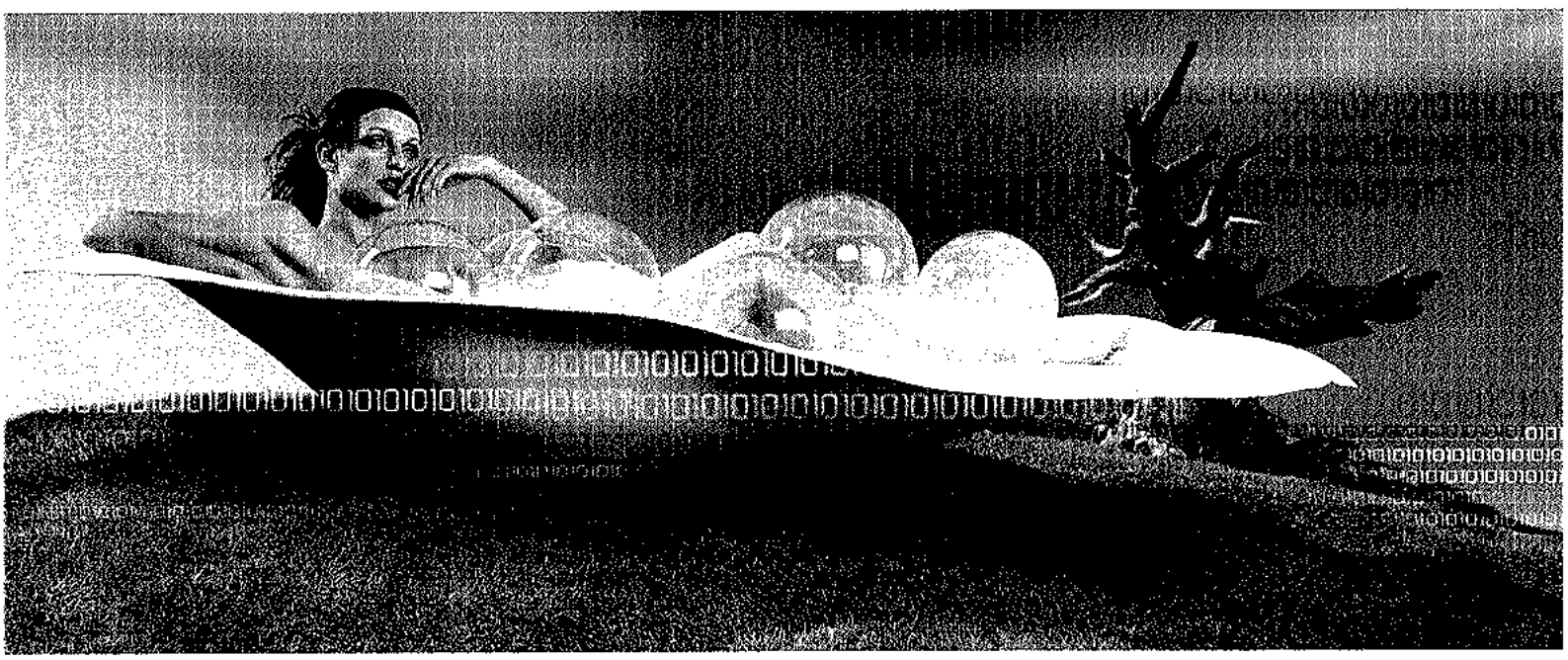
발행인: 우남용
홍보편찬위원회 : 정정치, 박영식, 김수경, 목대상, 민승렬, 박주환, 심우근, 최정열
취재 · 편집: 조한국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 http: //www.kira.or.kr
E-mail : korea@kira.or.kr
인쇄인: 김종식/중앙미술인쇄공사 (02)2269-7619
광고문의: 대한건축사협회(이홍식 팀장)

■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Rinnai
For the Generations to Come

DIGITAL *Revolution*

당신의 보일러는 디지털 입니까?



린나이 디지털 보일러 디지텍

디지털은 가스비가 절약됩니다
가스불꽃이 컴퓨터로 자동조절되어 불필요한 열손실을 막아 유지비를 최소화시키는 고효율 에너지 제품입니다.

디지털은 인터넷 제어시스템으로 앞서갑니다
홈네트워크 기술의 완성으로 인터넷을 통해 밖에서도 가정 내에 있는 보일러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주문생산)

디지털은 리모콘 사용이 편리합니다
기본 리모콘 외에 별도의 리모콘을 추가로 설치하여 각방의 실내온도를 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은 샤워하는 즐거움이 다릅니다
맞춤온도 유지기능으로 언제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며 특히, 디럭스형의 경우 방수처리된 추가 리모콘으로 욕실에서 샤워온도를 눈으로 확인하며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은 온수 사용이 훨씬 편리합니다
35℃에서 60℃까지 온수의 온도설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6년연속 고객만족도 1위 업체선정 가스보일러: 능률협회컨설팅
상공의날 금탑산업훈장수훈
중견업계최초 A/S 우수기업 인증
2001년 품질경쟁력 50대 우수기업 선정

Rinnai 린나이코리아(주)

국지사 및 영업소 서울 320-5555 인천 512-0002 수원 247-3651 부산 583-6225 대전 625-6314 대구 382-3652 광주 521-2651 창원 238-3601 강원 (원주)744-8111

업계최초 A/S 우수기업 인증 ▪ 365일 연중무휴 서비스 ▪ 신속한 본사직영 서비스 체제 ▪ 동절기 24시간 서비스 운영 ▪ 서비스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1544-3651 ▪ 고객상담실 : (수도권 통합서비스) 02-325-3651, 365-3651

Korean Architect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Contents

Vol. 402 October 2002

Column

It's the time to say it with design — Park In-Seok — 18

Works

21Century Jo-Eun Hospital — Chung Hyun-Hwa, Leam Young-Soo, Lee Han-Jong — 20

Ansung Brass Museum — Kwon Moon-Sung — 30

Moksun Art Center — Kim Dong-Hoon — 38

Bundang Residence — Lee Sung-Kwan — 46

Suwon Building — Park Yean-Shim — 56

Sinpung-dong Silver Residence — Sohn Kee-Chan — 64

Competi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Dormitory — 72

KOLAND Chungnam Branch — 76

KOLAND Jeonnam Branch — 80

Imsil Youth Training Center — 82

Design Note

Kumoh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The 3rd College Building — Suh Ki-Young — 84

Feature

Two Proposals — Oh Seom-Hoon — 88

Cartoon — Yoo Won-Jai — 90

Architects' Plaza

Archi-Net — 91

Overseas Journal — 96

Taxation Business — 102

Publisher: Woo Nam-Yong

Editorial Member: Jeong Jeong-Chi, Park Young-Sik, Kim Soo-Kyeong, Mok Dae-Sang, Min Seung-Ryeol, Park Ju-Hwan, Shim Woo-Keun, Choi Jeong-Il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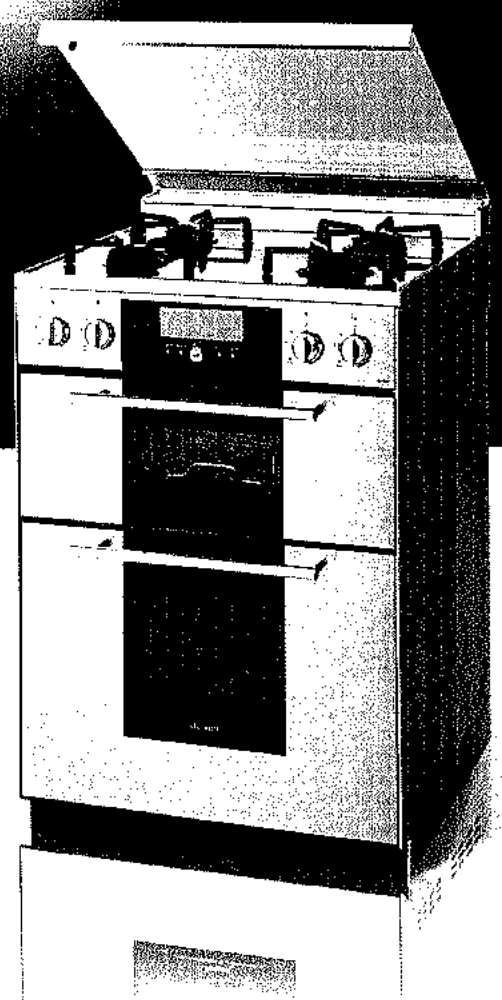
Fax: (02)586-8823

Printer: Kim Jung-Sik (Jungang-art Printing Co.)

or the Generations to Come

여자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여자의 감각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린나이도 변했습니다

여자를 위한 화려한 변신 / 레볼루션 린나이



• 우수디자인 산자부 장관상 수상

TOP

• 고품격 독일 세란(CERAN)글라스 상판
• 유럽스타일의 글라스 커버

GRILL

• 상면 입체가열방식의 대형그릴
• 15분 자동소화 안전타이머
• 위생적인 항균코팅 그릴

OVEN

• 패속조리 디지털 컨벡션 기능
• 편리한 마이콤 오븐자동요리 기능
• 위생적인 참숯 항균 코팅

■ MODEL : RSF-31CS

Jewell 쥬벨

제품 구입 및 문의 : · 전국 유명 백화점 및 할인점등 대형유통점 · 가스 오븐/레인지 대리점 : 1588-8292 · 보일러 대리점 : 1588-9933 · 업소용기기 대리점 : 02-320-5555
전국지사 및 영업소 · 서울 320-5555 · 인천 512-0002 · 수원 247-3651 · 부산 583-6225 · 대전 625-6314 · 대구 382-3652 · 광주 521-2651
청원 238-3601 · 원주 744-8111 ■ FAX A/S접수 : (02) 323-3651 ■ 서비스 고객 상담실 : 전국 어디서나 1544-3651 ■ 인터넷 주소 : http://www.rinnai.co.kr

Rinnai 린나이코리아(주)

설계로 말할 때이다

It's the time to say it with design

박인석 /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교수
by Park In-Seok

한국의 아파트 설계. 격동하는 한국 사회에서 다른 부문들이라고 그렇지 않을까 마는 그 중에서 아파트 설계처럼 말 많고 탈 많은 것도 흔치 않을 것이다. 입 달린 사람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아파트 설계 현실을 비난하고 한탄해왔다. 그렇게 지난 세월이 이미 20여 년이건만 비난과 한탄의 내용이나 정도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변화 극심한 한국 사회에서 유독 아파트 설계만 '변함없이' 비난과 한탄의 주인공 노릇을 계속하는 셈인가?

따지고 보면 한국의 아파트 설계에도 변화와 쇄신 노력이 지속되어왔다. 1970년대 주공이 개척한 초기 사례들에서 진지한 계획개념의 실마리들을 찾을 수 있고, 1980년대 목동신시가지와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등에서 가시화된 개념들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1990년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를 필두로 한 현상설계 사례들은 이들 중 몇몇 개념들을 보편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소중한 노력들은 가꾸어지고 키워지기보다는 한낱 에피소드 거리로 남아 있을 뿐이다. 아파트 설계를 주름잡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개발을 우선하고 민간자금에 의존하는 주택정책 환경 속에서 시장의 위세에 휘둘리고 영합하는 설계들이다. 공공의 안녕보다는 개인의 안녕에서 수요를 찾기 마련인 상품세계. 이 속에서 이미 편향되고 왜곡되어버린 '수요자 선호'. 이를 지고한 잣대로 삼으며 그 편향과 왜곡을 더욱 부추기는 설계들. 더욱 더 길어져 가는 단위주거 전면 폭. 점점 넓어지는 발코니. 화려해지는 실내마감. 모든 설계노력은 개인의 안녕, 전용공간의 안녕에 집중된다. 공공환경은 예나 지금이나 관심 밖이다. 10여 년 전부터 시작된 보행공간 확충과 조경요소 충실화 바람 속에 그나마 다소 나아진 옥외공간환경은 아직도 '차 없는 공간 만들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채 반은 눈속임인 조경설계의 난삽한 치장술만 늘어간다.

여기에 법규도 한 몫 거드는 것 역시 예나 지금이나 매한가지다. 일조성능과는 관계없이 경직된 이격거리를 고집하는 인동거리규제, 설계자유도는 아랑곳 않는 습관적인 최고층수 제한, 화단 설치를 빌미로 한 발코니면적 확대 조치. '어차피 고층아파트 늘어놓는 아파트 설계, 인동거리나 확보하고 층수나 낮추면 잘하는 일'이라는 식의 무지함이 진지한 설계노력을 방해하고 관습적 설계를 강요한다. 발코니 면적 늘려주는 것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무모함이 수요자 선호를 더욱 왜곡시킨다.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좋은 설계를 할 수 있단 말이냐. 설계자인 건축사들은 탓할 거리가 너무 많다. 정책 탓, 법규 탓, 시장 탓. 아예 아파트 설계를 '못할 짓' 취급하거나 일거리 없어 "손을 더럽히는 심정으로 한다"고 하는 건축사도 적지 않다. 그런가 하면 한 쪽에서는 "대체 건축이 뭐라고 생각하기에 아파트 설계처럼 중요한 일에 눈을 감고 있단 말이냐"고 항변한다. 말 많고 탈 많은 아파트 설계. 바야흐로 건축사들간에 서로 삿대질하는 형국까지 빚어낼 참이다.

비난도 한탄도, 삿대질도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자. 정책은 무엇이고, 시장은 무엇이며, 법규는 무엇인가. 그 속에 놓여 있는 설계는 무엇인가. 한국의 주택정책이 송두리째 바뀌지 않는 한 한국 아파트 설계가 시장 눈치를, 수요자 눈치를 살피는 데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리라는 것은 명확하다. 물론 주택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고 요구하는 일을 게을리 할 수 없지만 이것을 이유로 시장 속에 던져진 현실을 방기할 것인가? 사실 정도 차이가 있다 뿐이지 시장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되는 설계가 어디 있겠는가.

시장의 '수요자 선호'는 누가 만드는 것이고, 법규는 누가 만드는 것인가. 이들이 설계를 제약하는 것 못지않게 설계가 이들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닌가? 한 사회의 수요자 선호나 법규는 그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의 모습을 기초로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고층 주거동들을 밀도에 맞추어 배치하고 그 사이에 오픈스페이스나 확보하는' 설계밖에는 보이지 않으니 법규 입안자가 '인동거리나 확보하고 층수나 낮추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수요자 선호는 전용공간으로만 몰리는 것은 아닌가?

말하나 마나한 양비론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 아니다. 시장과 설계와 법규는(그리고 정책까지도) 서로가 서로를 규정하는 부분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버겁도록 시장의 위세가 세기는 하지만 말이다. 설계도 바뀌어야 하고, 법규도 바뀌어야 하고, 시장도 바뀌어야 한다. 무엇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비난과 한탄도 필요하지만, 이들이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실천들이다. 이러한 실천들이 다른 부문의 변화 계기를 넓히고, 결국에는 자신의 운신의 폭 역시 넓히는 첩경이기 때문이다.

1990년을 전후로 한 유례없는 경제호황 속에 연간 50만 호 수준으로 증가한 주택건설량과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지속되는 설계업계 불황이라는 여건 변화는 아파트 설계분야에서 이러한 실천의 가능성을 더해주고 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설계업계 불황 속에서 아파트 설계물량이 상대적인 강세를 지속하면서 좋건 싫건 간에 아파트 설계에 '손을 더럽히는' 건축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 역사상 아파트 설계분야에 이토록 많은 에너지가 집중된 적이 없다. 이 에너지가 아파트 설계 쇄신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 에너지를 경직된 법규 속에서 편향된 수요자 선호에 영합하는 꼼수를 궁리하는 데에 소진시켜서는 안될 일이다.

그러나 어찌할 것인가. 정책도 그 자리, 법규도 그 자리인 현실. 수요자 선호는 점점 더 단수가 높아지고... 한 가닥 틈새는 있다. 공공기관의 설계경기.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설계경기라고 해서 자유로울 리 없다. 공공기관들 마저도 수요자 선호 타령에 물들어 있고 법규 개선에 무감각해진지 오래이다. 심지어 심사 풍토나 공정성마저 비난의 도마에 오른다. 좋은 설계를 위한 풍토 진작에 먼저 나설 책임이 공공기관이나 정부당국 쪽에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외면할 것인가? 비난과 한탄만을 계속할 것인가? 심사 풍토를 어림잡고 시장 영합적인 설계로 알아서 기면서? 어차피 설계는 현실의 온갖 조건과 부딪히며 이루어지는 현실 속의 작업이다. 그것은 현실과의 타협, 혹은 추종이 될 수도 있고 투쟁이 될 수도 있다. 아파트 설계에 유례없는 에너지가 실리고 있는 지금, 지금이야말로 법규 입안자를 깨우치고 공공기관의 무기력을 자극하고 설계경기 심사진을 긴장시킬 투쟁적 설계가 역할 해야 할 시점이라고 한다면 이는 물정 모르는 순진함일 뿐인가?

흔히들 '건축사는 설계로 말한다'고 한다. 나는 이 말에 찬성하지 않는다. 건축사는 말도 해야 하고, 글도 써야 하고, 행동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아파트 상황이야말로 설계로 말하는 건축사가 절실하다. 바야흐로 '설계가 말해야 아파트가 바로 설' 때인 것이다.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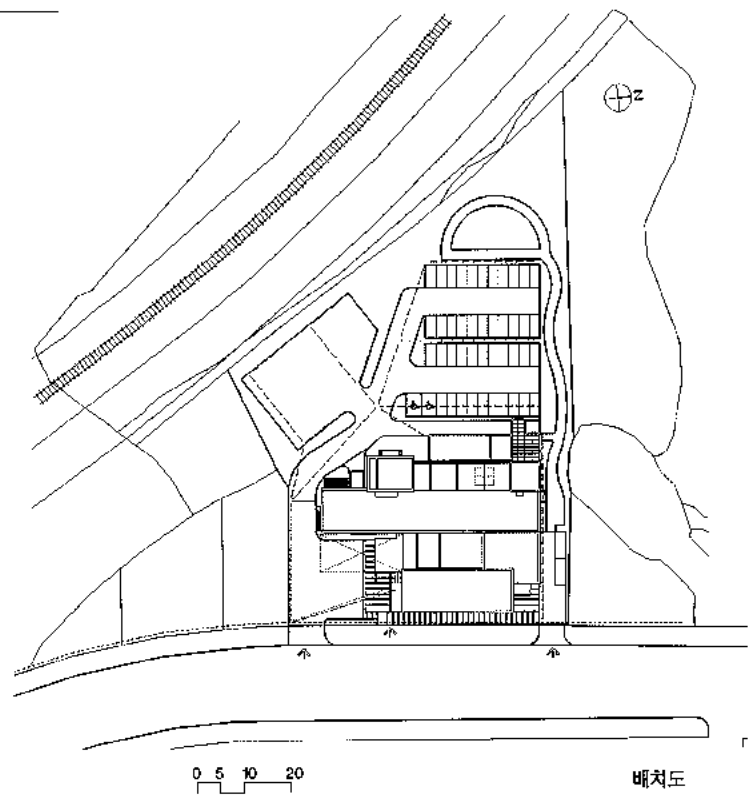
21세기 좋은 병원

21Century Jo-Eun Hospital

정현화 · 임영수 · 이한종/ (주)구간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ung Hyun-Hwa, Leam Young-Soo, Lee Han-J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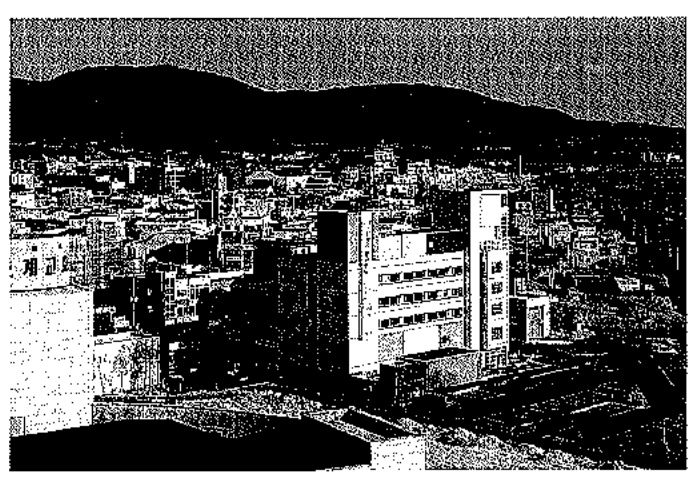
건축개요

위 치	울산시 북구 호계동 216번지 일원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의료시설(병원, 장례식장)
대지면적	6,465㎡
건축면적	1,288.48㎡
연 면 적	6,492.18㎡
건 폐 율	19.93%
용 적 률	73.26%
규 모	지하 1층, 지상 5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최고높이	29.63m
외부마감	외단열+실리콘 플라스터, 0.8mm 아연도금강판, 18mm 컬러복층유리
주요설비	항온항습(수술실), 의료 GAS, 방사선 및 자기장 차폐(방사선부), PACS, 기송관설비
설계참여	박기원, 김혜영, 배좌섭, 김경배, 홍만식, 정혜진
인테리어	(주)구간건축
구 조	(주)서울구조
설비전기	(주)한일MEC
토 목	(주)상호기술개발
감 리	(주)구간건축
사 진	진효숙



배치도

이 프로젝트는 지방 중심도시인 울산시 북구 호계동에 지어진 150병상 규모의 외과계 개인병원이다. 비록 중소규모병원에 속하지만 종합병원의 여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그 지역의 응급의료체계 네트워크 속에 있는 지역중심병원의 역할을 담당하게될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가까운 시기내에 종합병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100~200병상정도 중소규모병원의 의료환경 및 공간환경 개선의 표준이 될 수 있는 모델 타입을 제안하는데 그 초점이 있었으며, 현재 40병상정도의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건축주가 지역의료의 개선을 위하여 대규모의 투자를 하여 신축하게되었다. 지방소규모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있는 5인 병상의 병동, 40병상내외의 간호단위, 대기공간의 건축화,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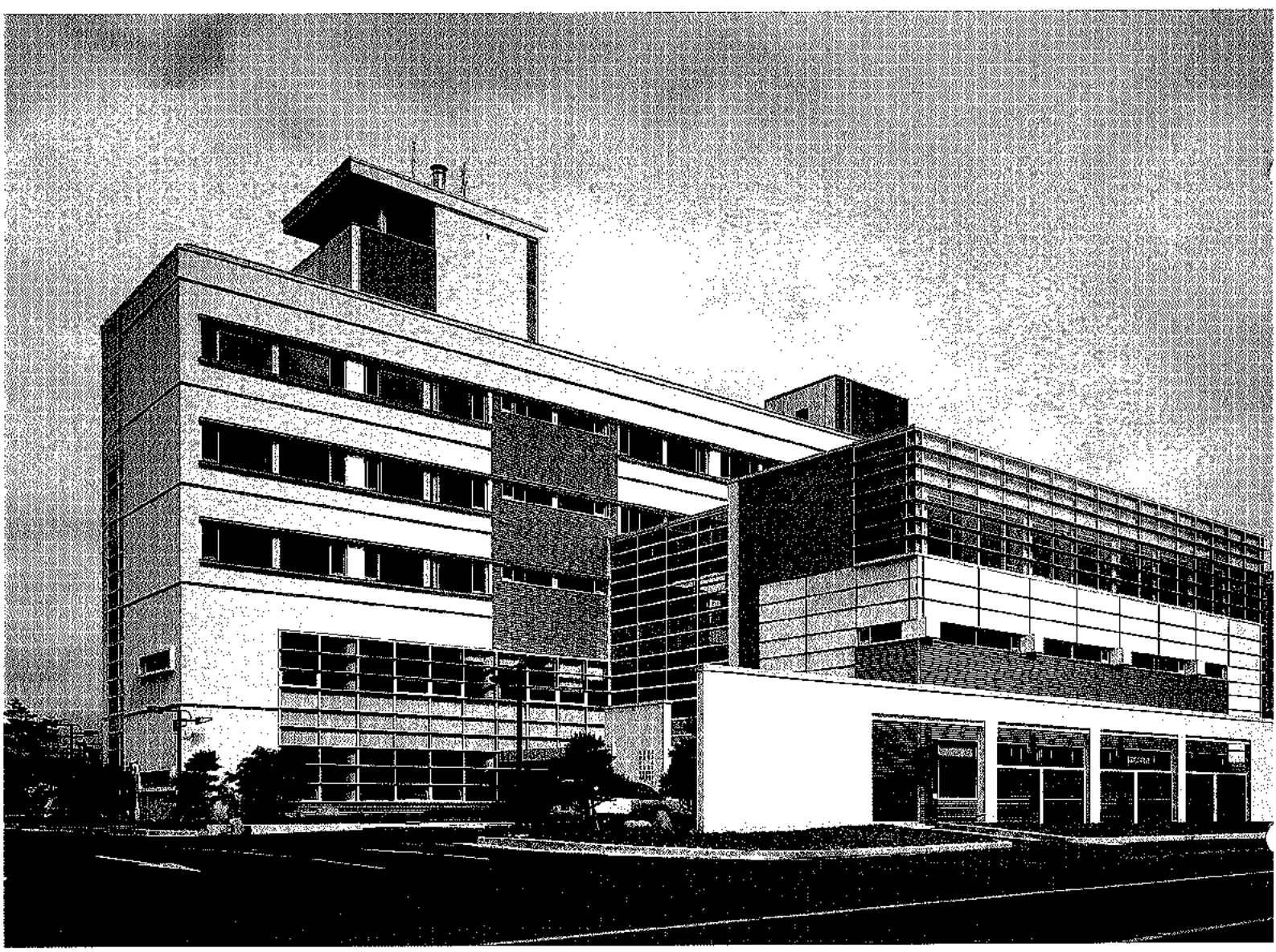


좋은 양지 바른 곳에 배치한 재활의학부, 환자 중심적 공간의 우선 배치, 밝고 쾌적한 장례부, 부첨가족과 근무자 공간의 쾌적성 개선, 효율적 병원 관리 시스템 도입, MRI 및 PACS 등 최첨단 장비의 도입, 옥외조경공간의 주민 개방, 중정을 둘러싼 어미니티 공간의 확보, 신소재를 사용한 외관의 조형적 실험, 증축에 대한 고려 등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제한된 프로그램과 예산 속에서 풀어내어 경제적인 병원으로 완성할 수 있었으며, 이 프로젝트가 실험한 결과들은 일상생활권 중소규모병원의 의료환경 및 건축공간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기능적 요소가 짙은 병원이란 이름의 기계는 수많은 방으로 나누고 동시에 그것들을 서로 관련지어 가는 퍼즐게임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병원설계라는 퍼즐게임의 인자들은 기능의 프로그래밍이며, 공간의 디자인보다는 프로그램의 일사불란한 조작에 의해서 규정되어지는 합리적 기계로서의 의미가 강하다. 그 퍼즐게임의 끝은 항상 기능의 덩어리란 이름으로 여과 없이 완성되어 왔었다. 병원건축은 합리적, 기능적인 것에 충실하게 되면 될수록 공간적, 형태적으로는 디자인의 여지가 없어지게 된다. 반대로 공간적, 형태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보면 기능적인 면에서 문제가 생기게된다. 병원의 계획은 이 양자간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서 어떻게 두 가지가 적절한 균형을 취하느냐? 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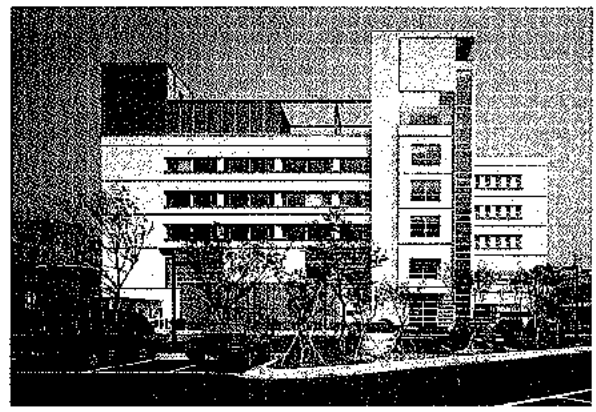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를 계획하면서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진행하였다. 진료기계로서의 병원건축일까? 공간적 쾌적성의 병원건축일까? 따라서 기능적인 요소는 철저하게 기계적으로 해석되었고, 쾌적성이 요구되는 공간은 건축적 공간 디자인으로 해석하였다. 이 두가지의 상충된 요소가 적절한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이러한 균형을 해결하는 작은 틈 사이에서 병원공간의 건축화의 빌미를 찾고자 하였다.

이 집의 현관에 들어서면 다른 어떤 병원처럼 원무과의 접수카운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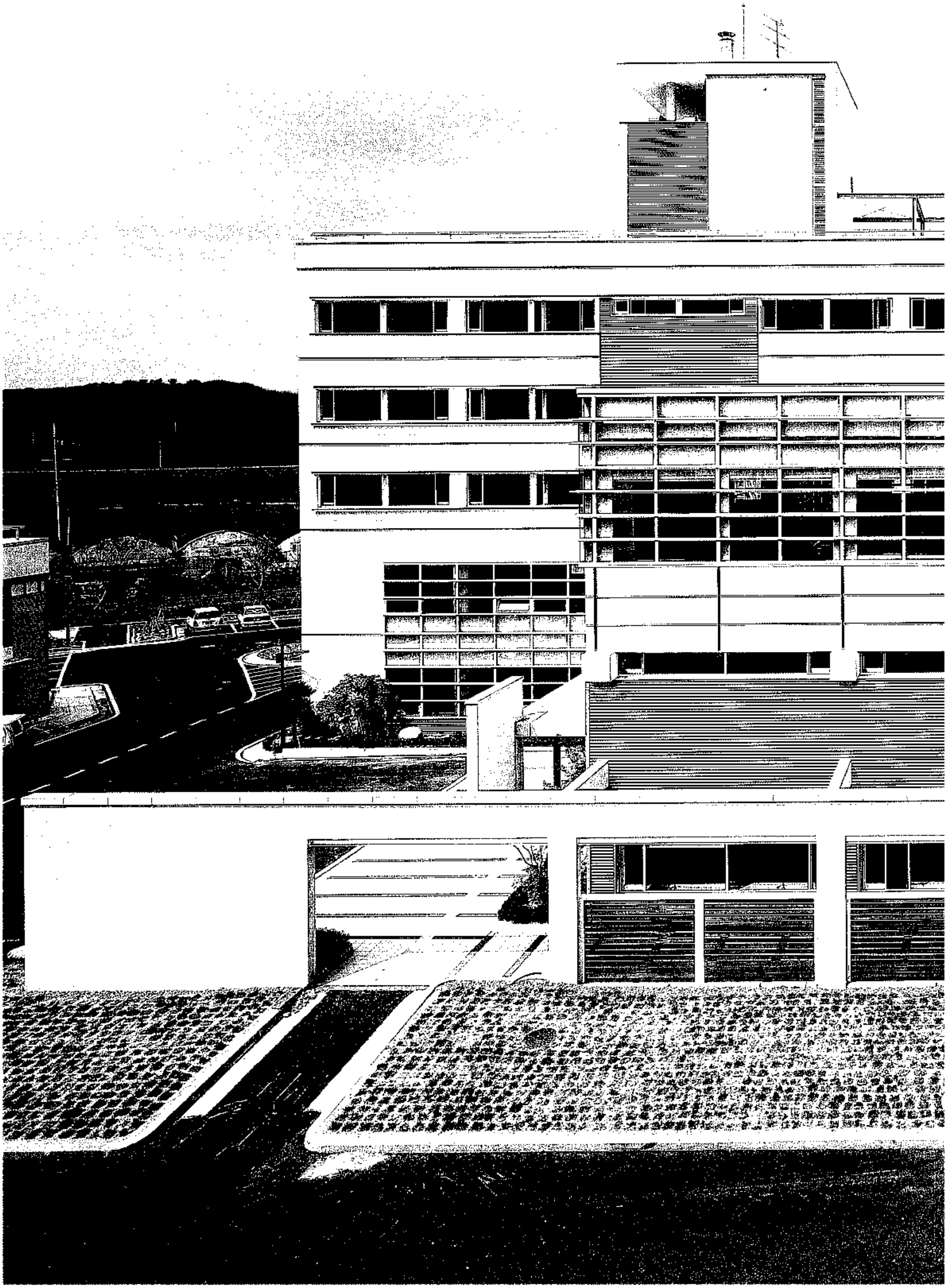
대기실이 바로 보이지 않는다. 현관을 들어가면 여백의 공간이 열려 있다. 위로는 병원의 상징적 창처럼 크게 뚫린 하늘이 거기 머물고 있으며 그 아래로 작은 마당이 내려앉아 있다. 그리고 한 그루의 나무가 있고, 또 한쪽으로는 토종 풀꽃들만으로 된 꽃밭이 있을 뿐이다. 병원에서 기능이 백지화된 이 장소를 마련하고 싶었으며, 이 여백을 복잡한 병원의 기능적 공간에 대하여 병원이 필요로 하는 어미니티의 중심이 되게 하였다. 그리고 여백에 어떤 질서-사계에 따라 변화하는 일상적 질서-를 담으려 하였다. 거기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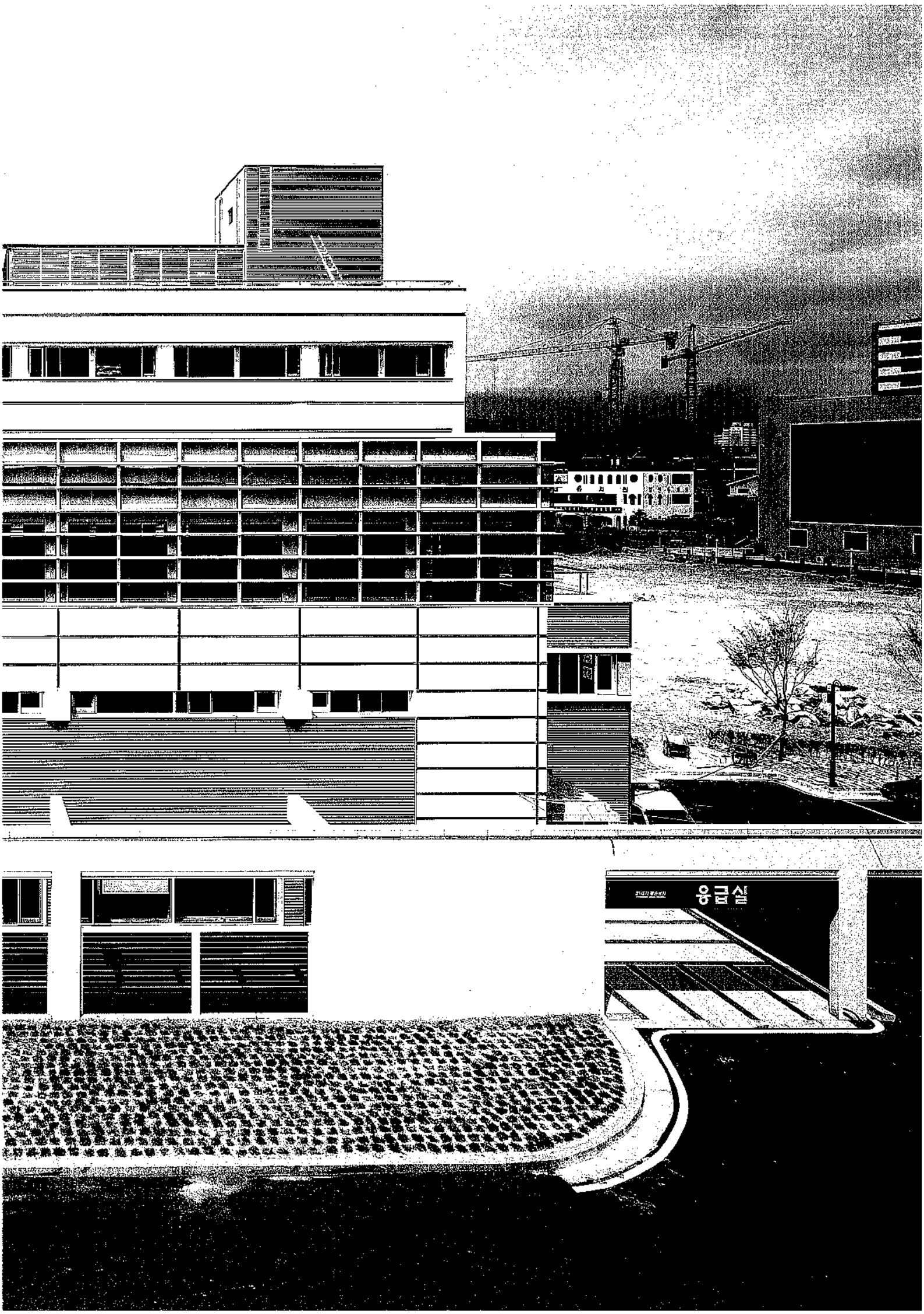
이 나무는 봄이면 하얀 꽃이 정말 화려하게 핀다. 층층나무과에 속하는 이 나무는 여름에는 그 잎새들이 층층이 모여서 무리 지어 아래쪽으로 늘어지듯 있는 그 오묘한 초록색이 너무 좋다. 가을에는 아름다운 단풍이 드는데 잎의 앞면에만 단풍이 들고 뒷면은 단풍이 들지 않으면서 만들어내는 그 실루엣의 색깔이 기가 막히다. 겨울에는 밑둥치의 곧은 수간과 가는 가지들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여백을 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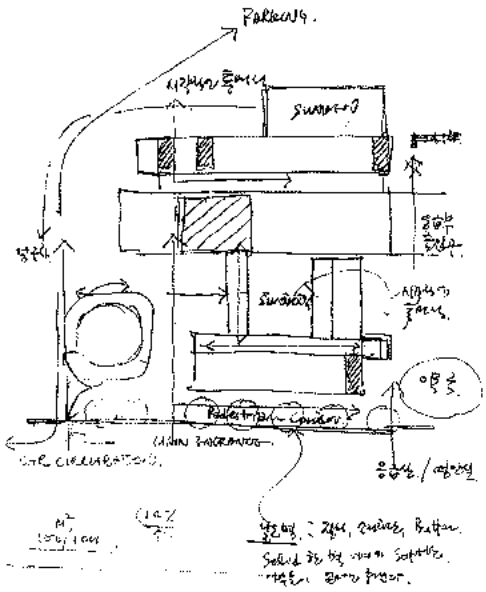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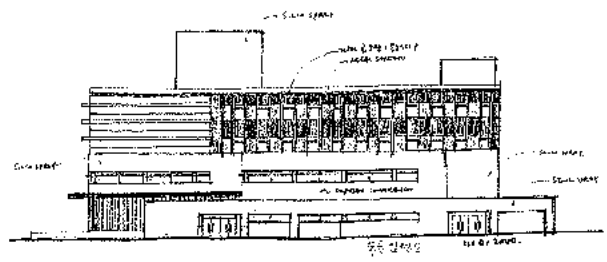
게된다.

중정에 옮겨온 꽃산딸나무 (일명 미국산딸나무 학명 Cornus Florida)는 나의 건축의 여백과 어울려 환자들에게 사계를 느끼게 해주며, 일생을 병원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글/정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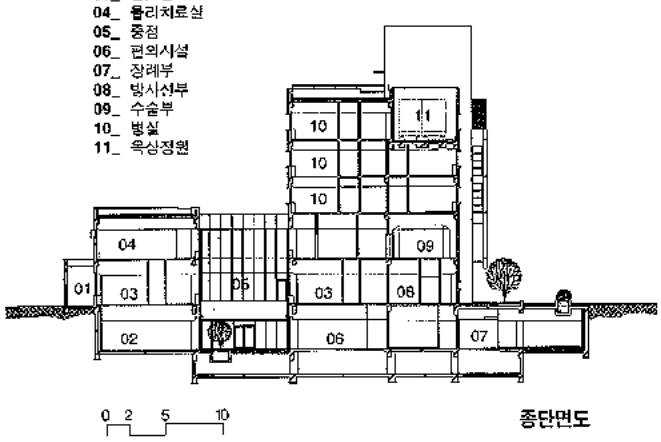



응급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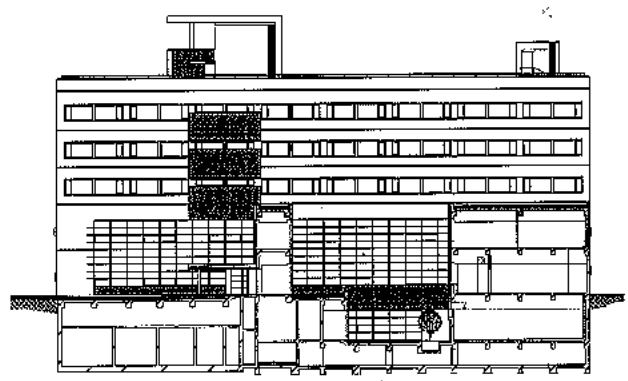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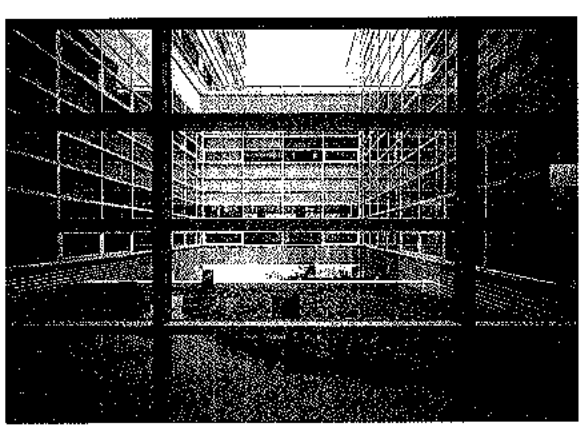
01_ 회랑
02_ 식당
03_ 진료실
04_ 물리치료실
05_ 중정
06_ 편의시설
07_ 장례부
08_ 방사선부
09_ 수술부
10_ 병실
11_ 옥상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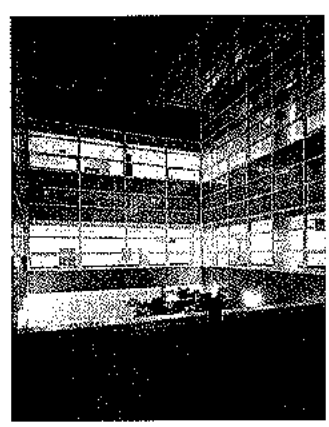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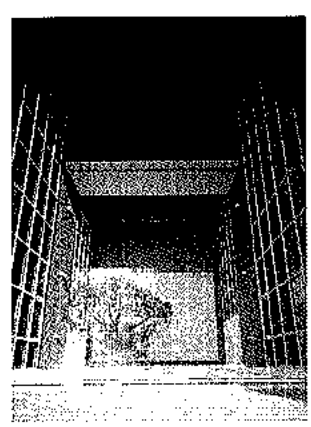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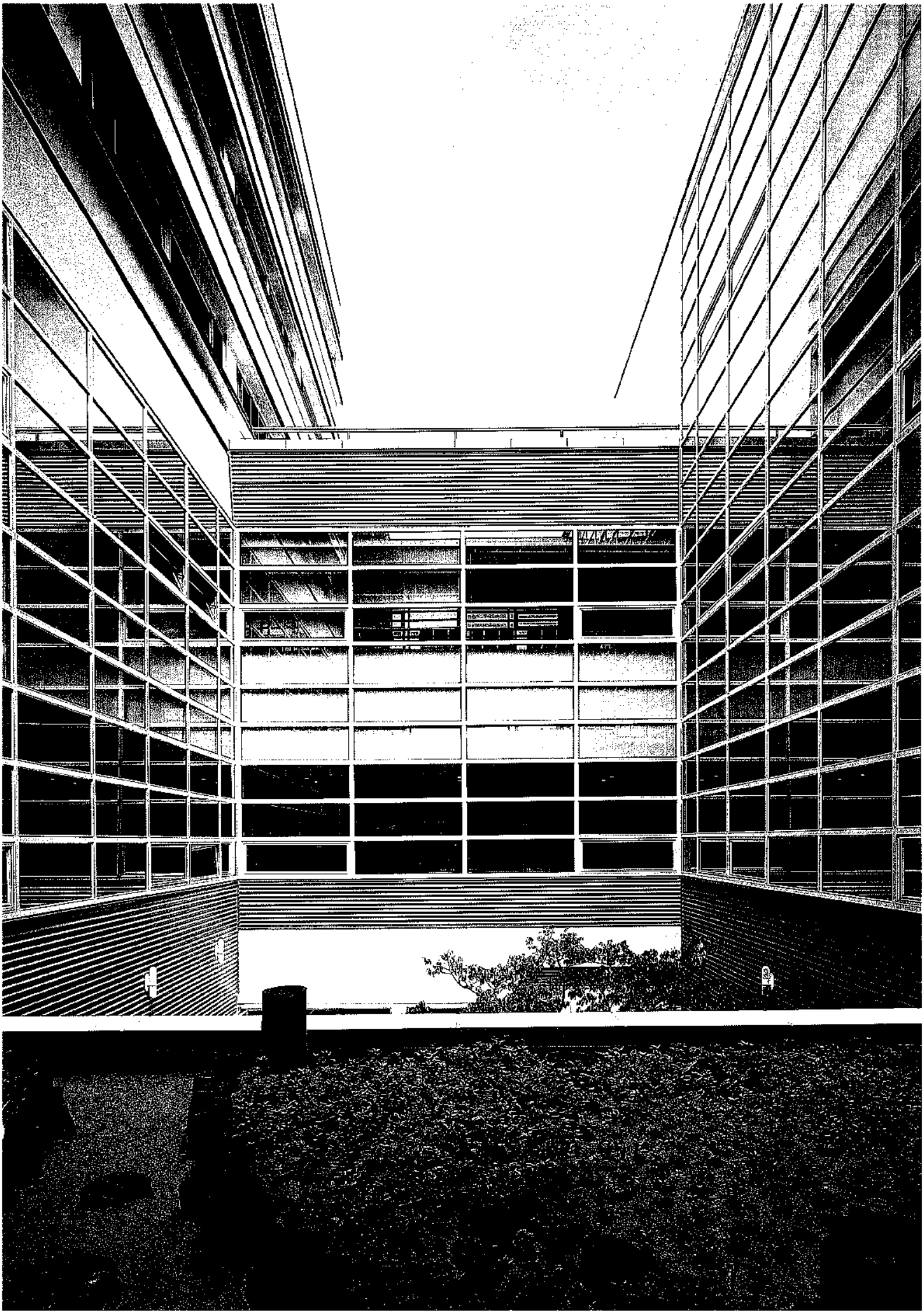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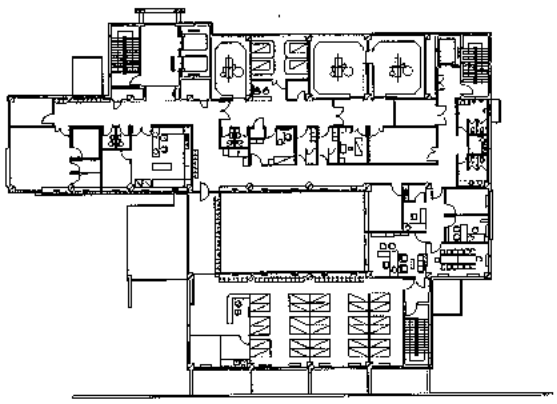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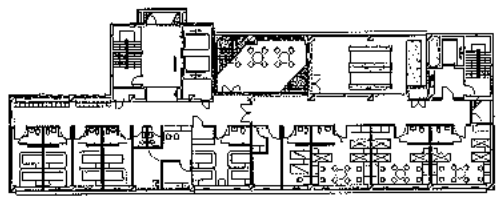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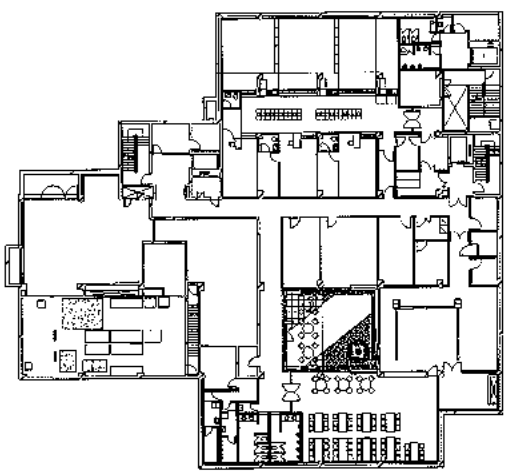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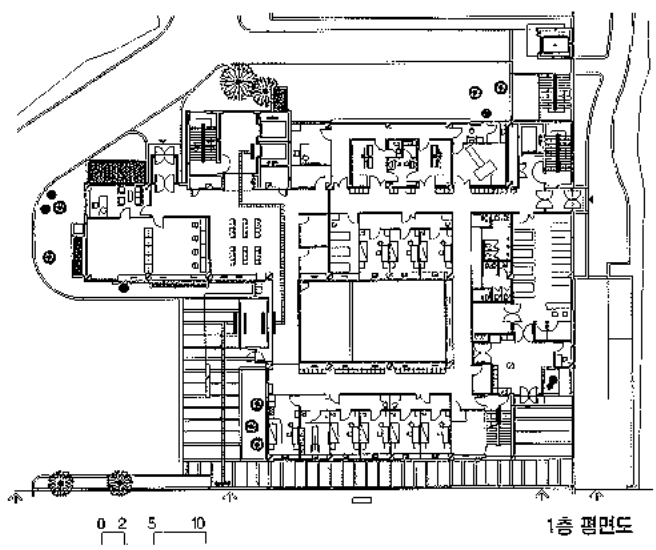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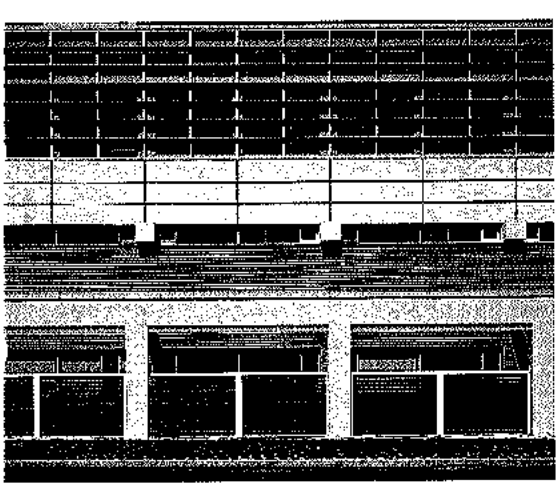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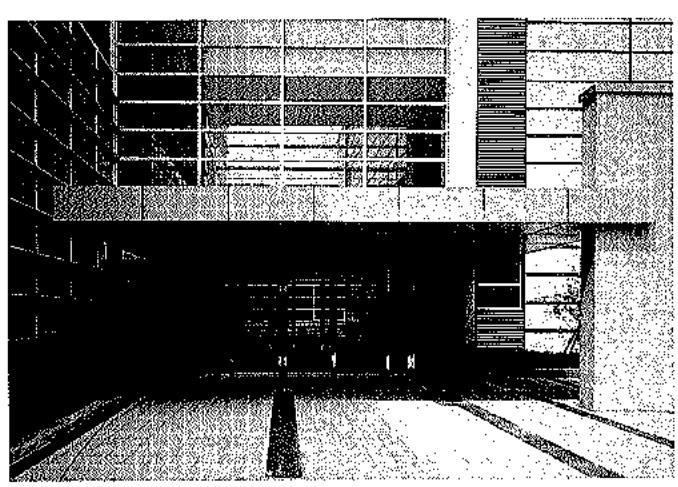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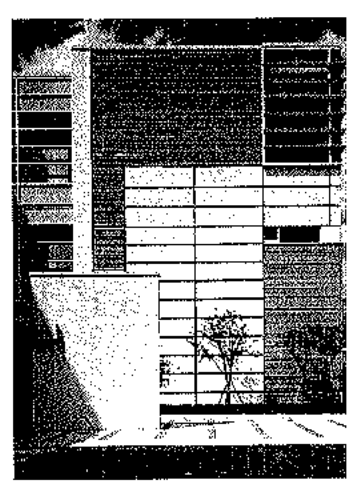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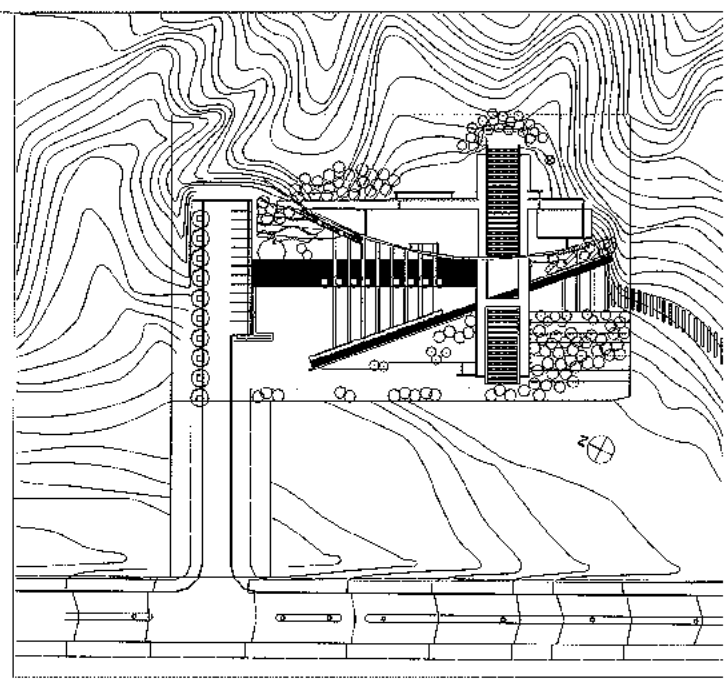
안성맞춤박물관

Ansung Brass Museum

권문성 / (주)건축사사무소 아뜰리에17
Designed by Kwon Moon-Sung

건축개요

위 치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산 57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주 용 도	전시시설
대지면적	8,294㎡
건축면적	1,222.93㎡
연 면 적	2,038.57㎡
건 폐 율	14.80%
용 적 률	24.67%
규 모	지하1층, 지상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벽: 고령토벽돌, 드라이비트뿜칠
	바닥: 콩자갈콘크리트, 목재데크, 고령토벽돌바닥깔기
내부마감	벽: 드라이비트 고운뿜칠
	바닥: 고흥석버너구이, 콩자갈콘크리트
	천정: 드라이비트뿜칠
인테리어	아뜰리에17
구 조	단구조
설 비	대오엔지니어링
전 기	대오엔지니어링
조 경	오브제플랜(문현주)
시 공	대맥건설
감 리	동진환경
설계담당	이경락, 조문원, 조종철, 장명희, 최재성, 김기옥
설계기간	1998년 7월~1999년 2월
공사기간	1999년 5월~2001년 11월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0 3 15
1 7

배치도

38번 국도를 따라 안성시로 들어서는 길목에 있는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에 들어서면 왼쪽으로 잘 자란 나무로 가득한 언덕에 안성맞춤박물관이 들어섰다. 이제 우리도 작은 도시마다 그 도시만의 자랑거리를 담아내는 박물관을 갖는 시대를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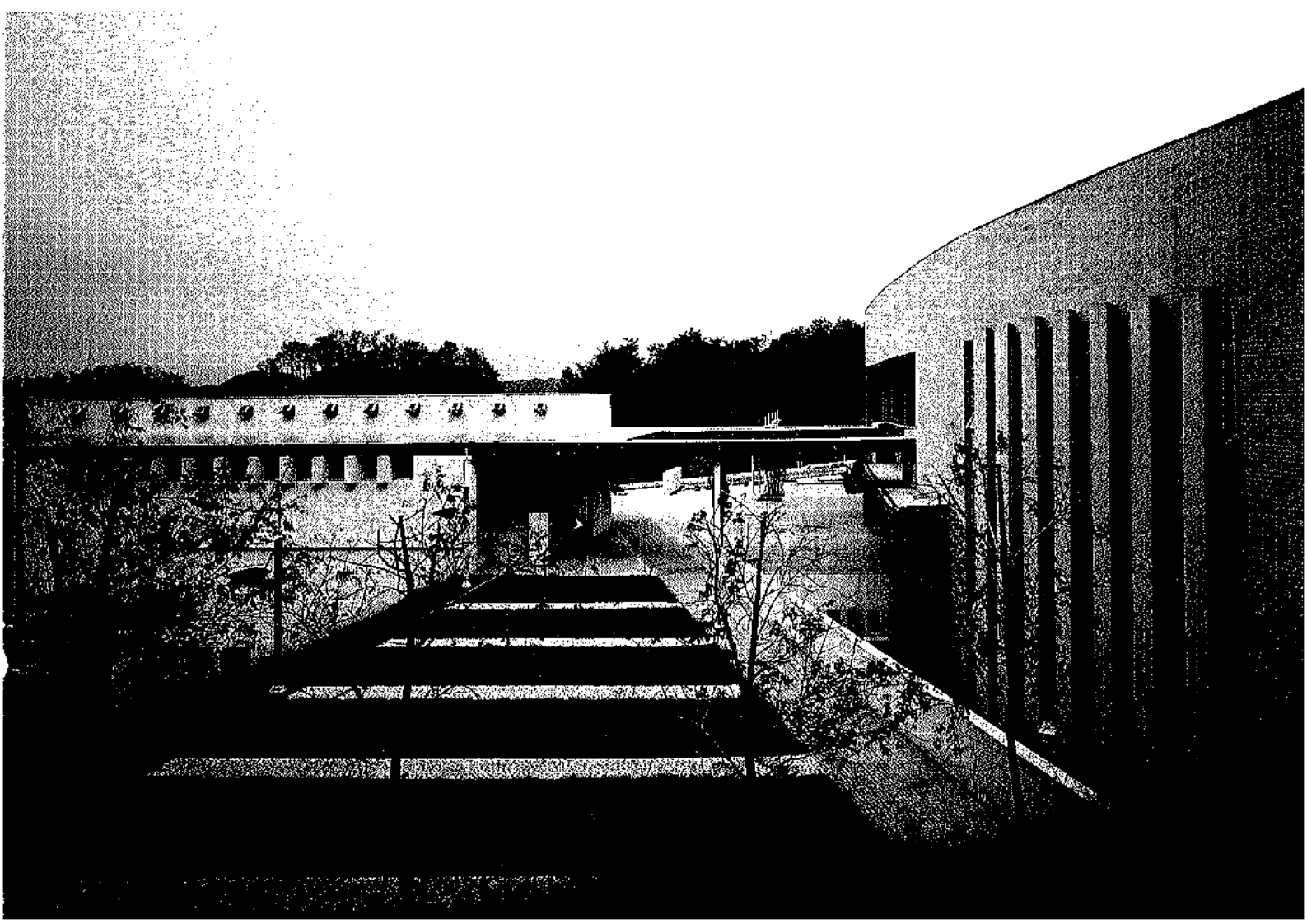
안성맞춤박물관은 안성유기의 전시를 중심으로 안성평야의 풍요를 담는 농업역사관, 향토사료실과 같은 전시실과 특별전시실 역할을 하는 중앙대 홍보전시관, 세미나실, 화상정보실, 수장고, 관리실 등을 갖추고 있다. 여느 지방의 작은 박물관이 그렇듯 어쩌면 특별할 것도 없을 것 같은 전시품목은 한 번 정도의 방문으로 박물관에 담긴 대부분을 단번에 알게 되어 특별한 전문가가 아닌 이상 마치 더 이상 박물관을 갈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되지나 않을까 걱정되었다. 하지만, 박물관에 간다는 것은 박물관에 담긴 멋진 전시품과 만나는 즐거움이 가장 큰 기대이기 보다는, 오히려 더 큰 기쁨은 방문객 마다 일상의 단조로움을 깨고 이제부터 문화인이 되어 박물관이라는 문화시설을 방문하여 생활의 여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설레임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였다. 한 번 방문하고 나서도 또 즐겨 찾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즐거운 산책이 있는 곳, 휴식과 사색의 벤치가 있는 곳, 아이의 손을 잡고 가족과 함께, 또 연인과 데이트를 하고 싶은 곳, 그런 일상의 여유와 행복함을 담아내는 박물관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고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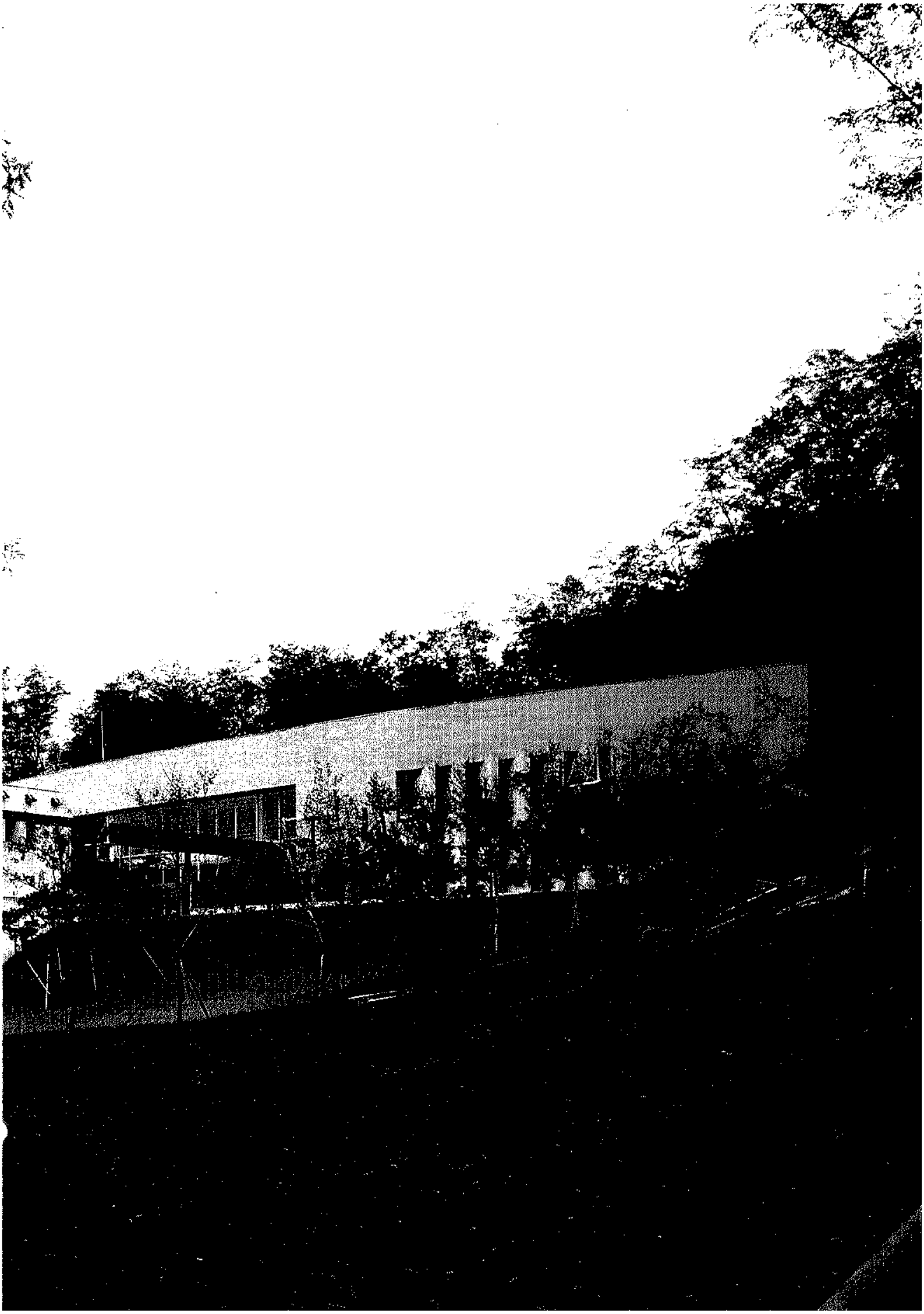
박물관은 뒤 언덕의 큰 흐름을 따라 감싸고도는 크림색 고령토 벽돌의 커다란 곡면 벽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물이다. 박물관의 전시실은 모두 그 벽 뒤에 있다. 곡면 벽 앞은 기존 자연 상태의 언덕 경사와 비슷한 흐름을 갖는 단형의 언덕이고 입구로 향하는 벽돌 벽을 따라서 경사로가 있다. 곡면 벽과 경사로 옆의 벽은 단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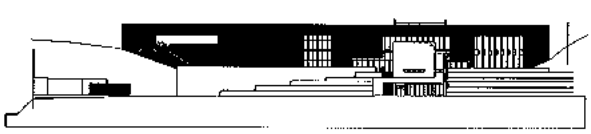
언덕을 감싸며 올라가 박물관 입구로 공간을 집중시키고 뒤편 숲으로 연속된 공간의 흐름을 만든다. 곡면 벽 건너로 중앙대 전시관을 놓아 입구 공간을 한정시키고, 두 건물을 콘크리트 슬라브로 엮어 입구 상부를 "ㅁ"자로 열어 놓았다. 언덕을 올라 입구로 향하며 두개의 구조 프레임을 통하여 하늘을 또 자연을 보며 올라가게 되고 돌아서면 언덕의 광장을 내려보게 된다. 입구에서 박물관 로비에 들어서면 콘크리트 루버의 천창으로 빛이 내려오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앉을 수 있는 단이 연속되며, 자연지형의 높이와 맞춰진 건물내부의 중간 참에서 외부 데크로 이어지며, 후면의 커튼월을 통하여 숲 풍경이 로비에 가득 들어오게 된다. 또 문을 열고 뒤 숲으로 나갈 수 있다. 로비는 숲과 외부의 입구마당 사이에 있는 공간으로 외부의 느낌이 집안을 쓸고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1층 전시실 내부에도 2층으로 직접 이어지는 계단이 있다. 로비의 계단은 주로 2층의 전시실을 보고 내려오며 이용하게 될 것이다. 계단 옆의 단에는 단체로 방문한 유치원생, 초등학생이 관람을 마치고 모여, 선생님의 말씀도 듣는 곳도 되고 관람객이 편히 앉을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로비를 중심으로 2층의 동선은 "ㅁ"자로 순환되는 동선이다. 또 2층 복도를 따라 밖으로 나가면 곡면 벽 끝자락의 커다란 개구부를 거쳐 박물관 중앙의 언덕 광장으로 천천히 내려오도록 되어있다. 또한 중앙대 전시관 옆으로 난 계단은 지하의 수장고, 관리실로 이어지고, 처음 계획엔 없었으나, 관에서 설계자와 협의 없이 만들어 놓은 커다란 주차장으로 직접 연결되는 동선이 되고, 이 또한 박물관 외부 이곳저곳을 다양하게 거닐 수 있는 산책로가 된다. 이처럼 건물의 외부 공간을 이어주는 통로들은 건물 내부의 관람동선으로 순환되고 또 이어지며 다시 몇 개의 다양한 외부 산책로로 이어지도록 되어있다.

중앙대 전시관의 지붕도 콘크리트로 된 루버형의 천창이다. 박물관 로비의 천창구조와 함께 루버 한쪽으로 콘크리트 물받이를 만들었고, 단순한 외관에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강한 그림자가 만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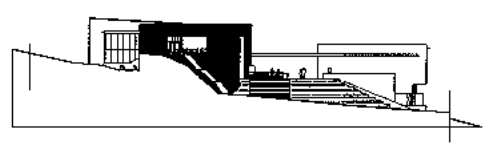
1998년 설계를 시작한 안성맞춤박물관이 지난 2002년7월 말 개관하였다. 공공건물의 설계감리 용역에 대한 그릇된 관행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 겪었던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도 더 안타까웠던 점은 당초부터 감리용역을 설계자가 할 수 없게 되어있던 일이다. 또한 공사 도중 시공사의 부도로 준비가 없던 시공사로 바뀌고 당초 계획에 없던 숲을 주차장으로 바꿔 전혀 다른 외관이 먼저 외부에 드러나게 된 점, 심의의 이름으로 건물과 관계없는 요소를 덧붙이는 일과 같은 일은 건축가가 단순히 건물설계만을 하는 것으로는 이 사회에 좋은 건물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다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닫게 만들어 주었다.(글/권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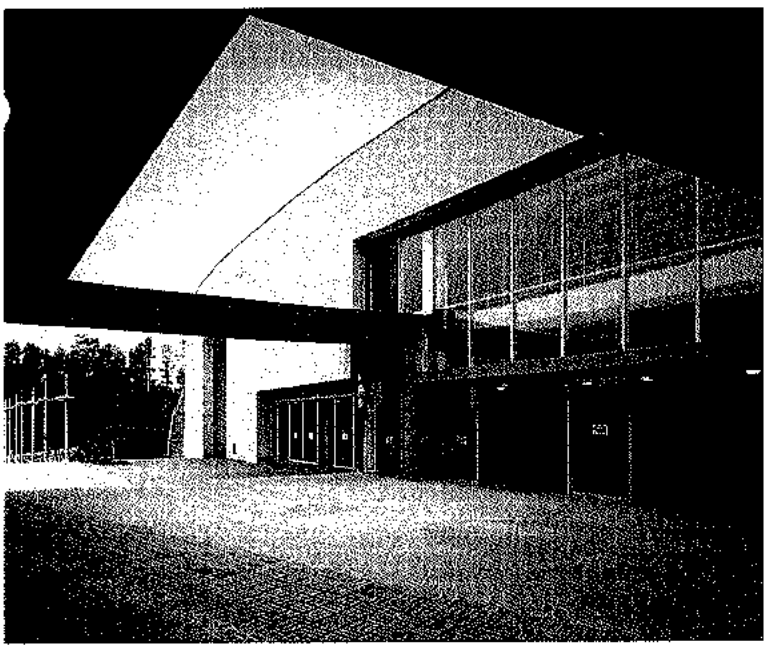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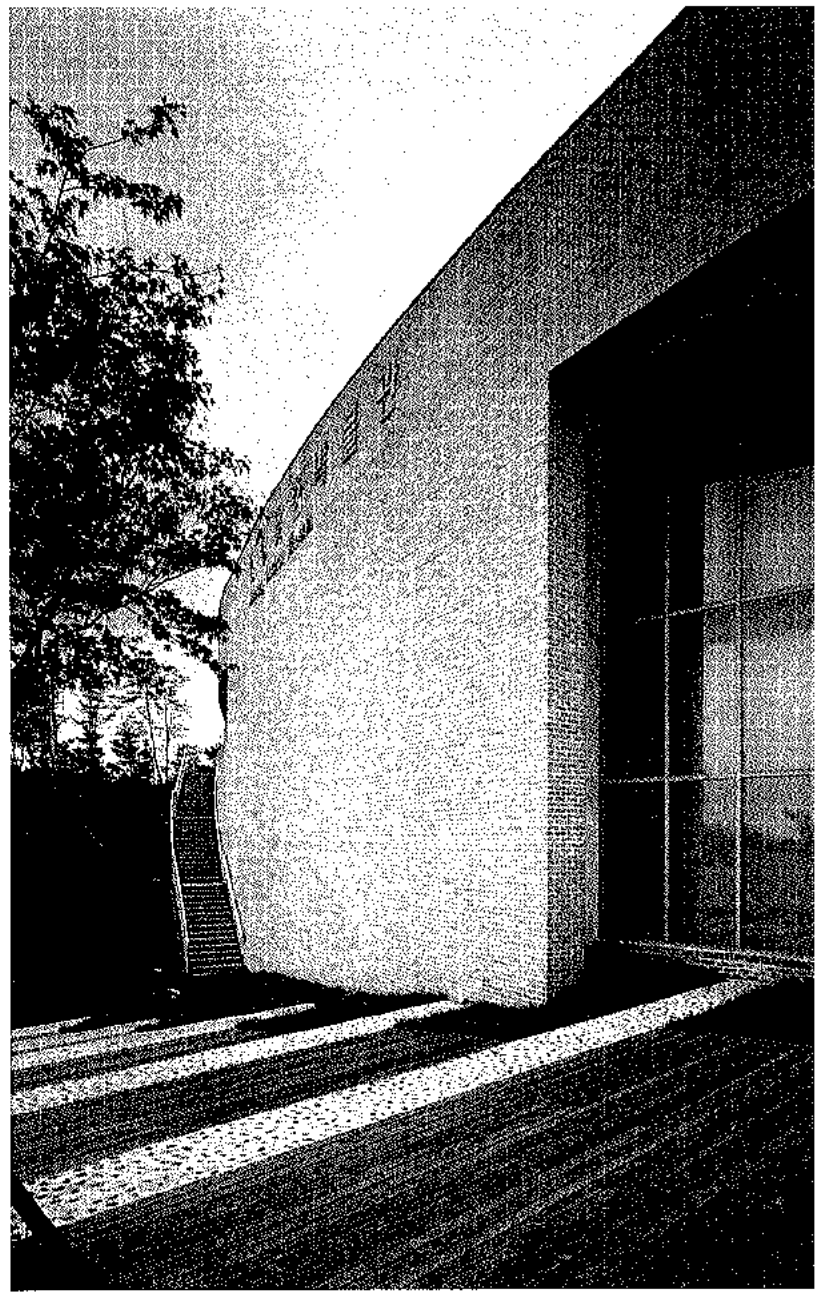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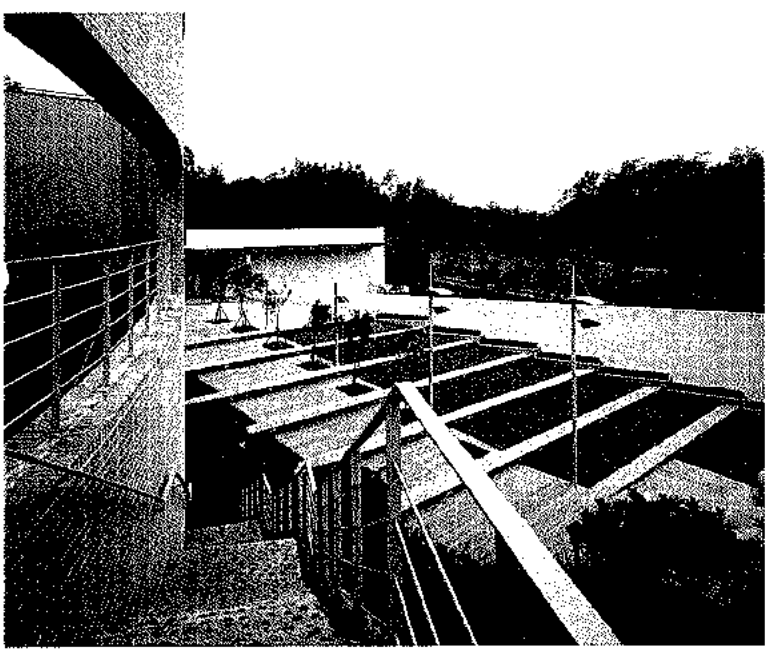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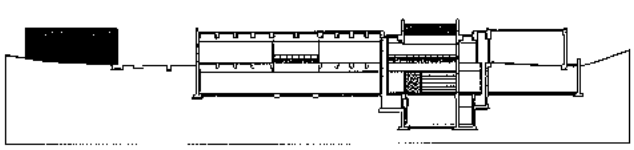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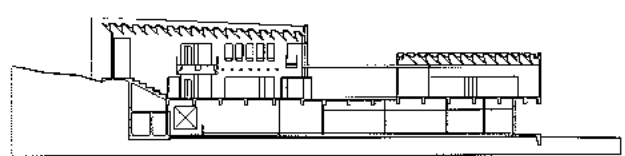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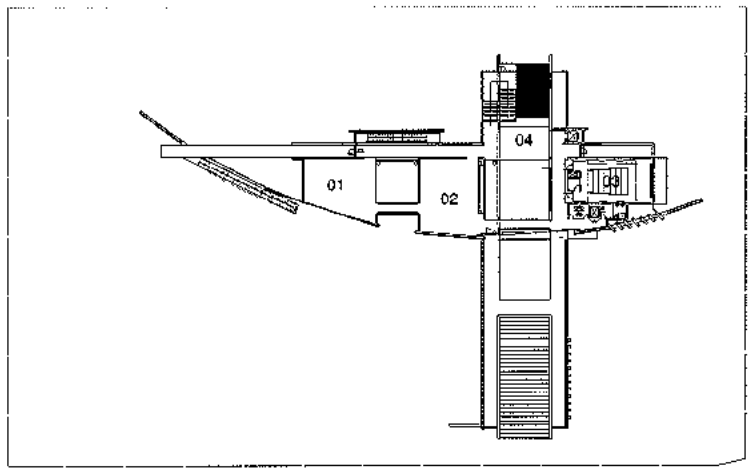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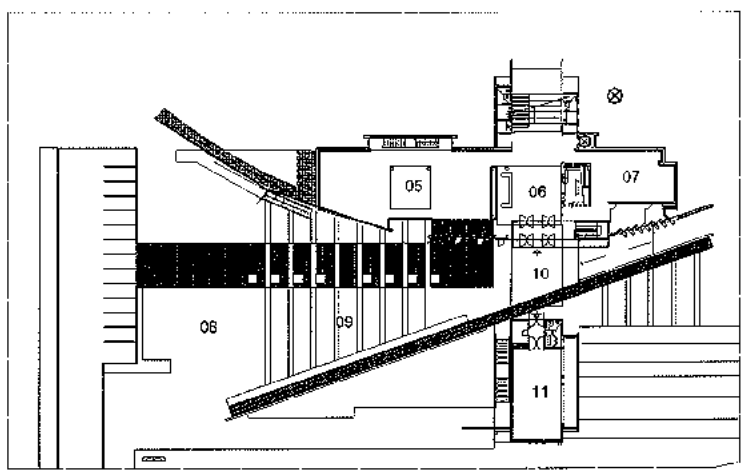
종단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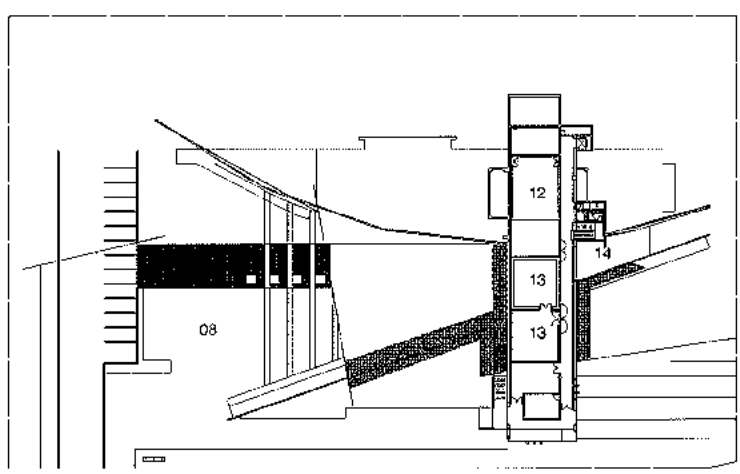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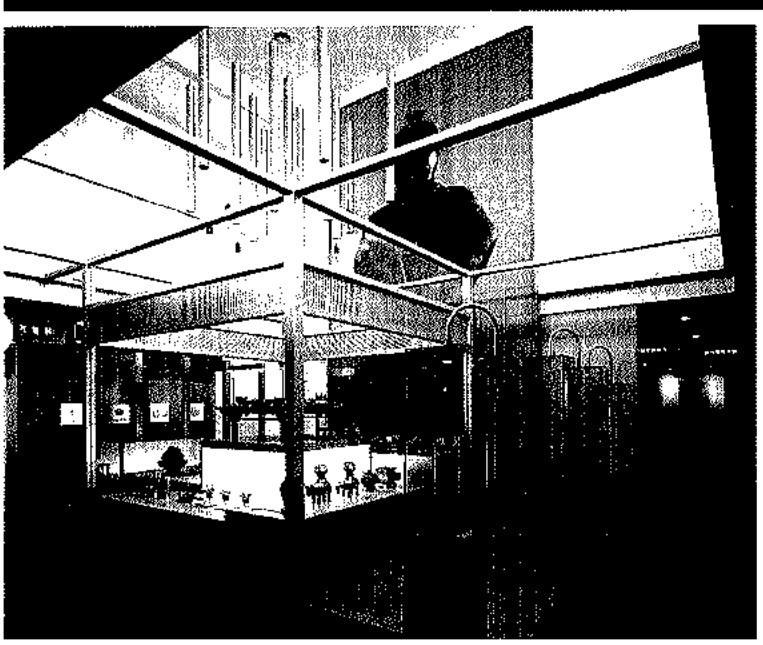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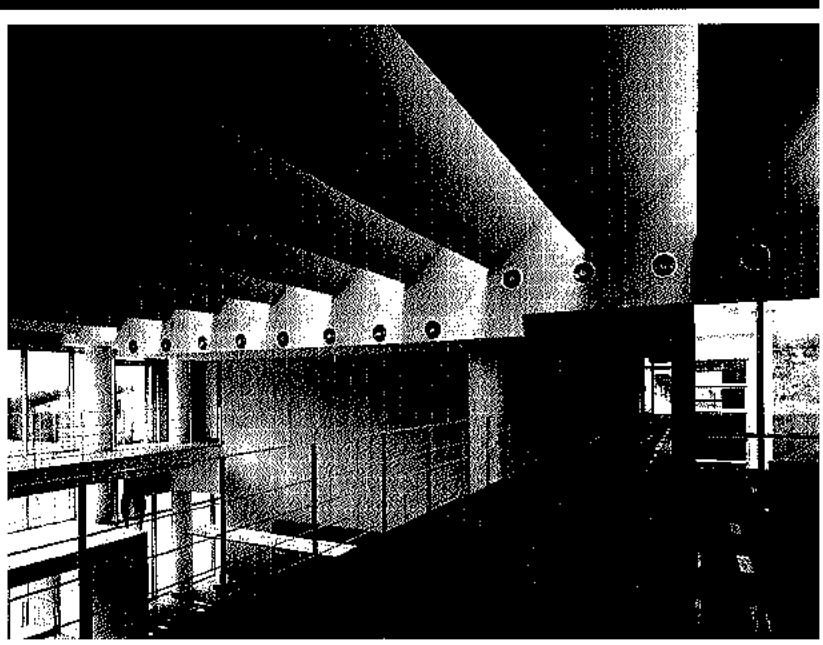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01_ 농업역사실
02_ 향토사료실
03_ 세미나실
04_ 홀
05_ 안성맞춤 전시관
06_ 로비
07_ 화상정보센터
08_ 안성맞춤 광장
09_ 야외전시장
10_ 주출입구
11_ 중앙대 홍보실
12_ 기계실
13_ 수장고
14_ 선큰가든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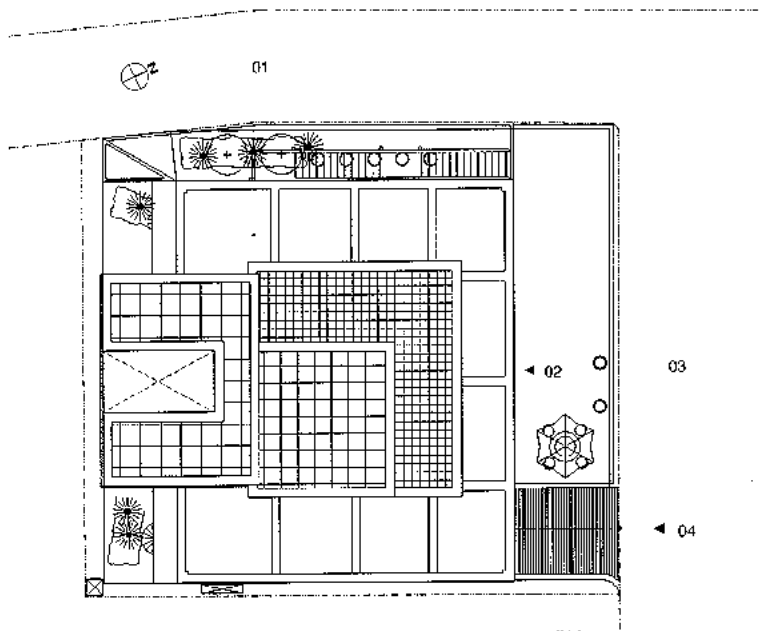


목선아트센터
Moksun Art Center

김동훈 / (주)진우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Dong-Hoon

건축개요

위 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69-6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주 용 도	디자인 관련 업무시설 및 전시시설
대지면적	319.07㎡
건축면적	190.17㎡
연 면 적	1,316.63㎡
건 폐 율	59.93㎡
용 적 률	334.58㎡
규 모	지하 1층, 지상 7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25.23m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내부마감	노출콘크리트, 내부용 수성페인트
설계참여	신형철, 오용재, 윤정현, 김대현
인테리어	장석훈
구 조	전우구조기술사사무소
설 비	(주)현주M.E.C
전 기	(주)무림설계기술단
시 공	이엠종합건설 황근순
감 리	(주)진우종합건축사사무소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 채수옥)



배치도

01_ 2.5M도로
02_ 주출입구
03_ 8M도로
04_ 주차장출입구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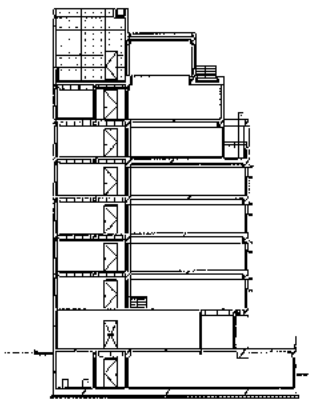
어릴 적 동네 친구들과 흙장난하고 놀 때, 누구나 한번쯤은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께, 새집 다오"하면서 자신의 손을 땅에다 대고 흙을 덮어 하나의 공간을 만들곤 했을 것이다. 유난히도 나는 그 장난을 많이 한 것 같은 기억이 난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특별히 장난거리가 없어서 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집짓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다. 고만 고만한 집들이 옹기종기 형성되어 있으면 친구들이 "야, 너는 왜 그렇게 많이 만드냐" 하면서 부셔버리고, 나는 식식대면서 그들과 주먹다짐을 하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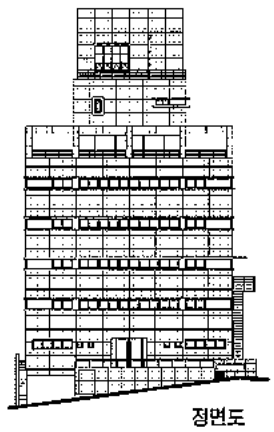
"야, 너희들도 만들면 되잖아. 남이 공들여서 만든 집을 부셔버리는 것은 고약한 짓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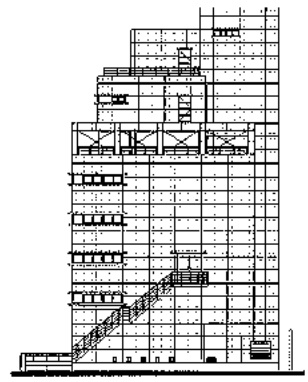
내가 살던 소재지에 2층집이 딱 한채 있었는데, 그 집 사람들을 칭할 때 "2층 양옥집 사는 사람"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 집이 부러웠고 꼭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보고 싶었다. 빨간 벽돌 2층집.

건축가로 성장한 나는 건축이란 말을 입에 오르내린지 꼭 30년이 된다. 건축가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자기 작업공간을 가지고 싶어 할 것이다. 아주 멋지고 뽐낼 수 있는 작품을 염두에 두고 상상의 대지 위에 몇 십번 아니 몇 백번쯤은 스케치해 보았을 것이다. 나 역시 오랫동안 계획했던 환상의 공간을 이제 현실 속에서 만나게 되었다. 수많은 남의 건물들을 설계하면서 과감하게 또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서슴없이 반영시키고자 시도한 적이 많았는데, 정작 내 건물을 지으려니까 영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공사비 문제, 최대한의 면적을 창출해 내려는 고민, 다른 건축주에게 상담을 할 때는 "싸고 좋은 집은 없습니다.", "투자한 만큼 훌륭한 작품이 나옵니다." 라고 스스럼없이 말했던 내

Express


주단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가, 정작 내 건물을 지어야겠다는 시점으로 입장이 바뀌니까 사고도 바뀌는 나의 태도에 스스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도 오랫동안 건축 설계에 몸을 담고 있는 내가….

그러나 〈목선아트센터〉를 디자인하면서, 적어도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기술적 사고를 담고자 노력했다.

먼저 경제적인 디자인 기법에 따라 노출콘크리트 공법을 채택(대부분의 시공자들은 노출콘크리트로 설계되었을 경우 공사비를 일반 건물보다 많이 받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임)하여 일반 건물 공사비보다 저렴하게 절감하는 방안을 시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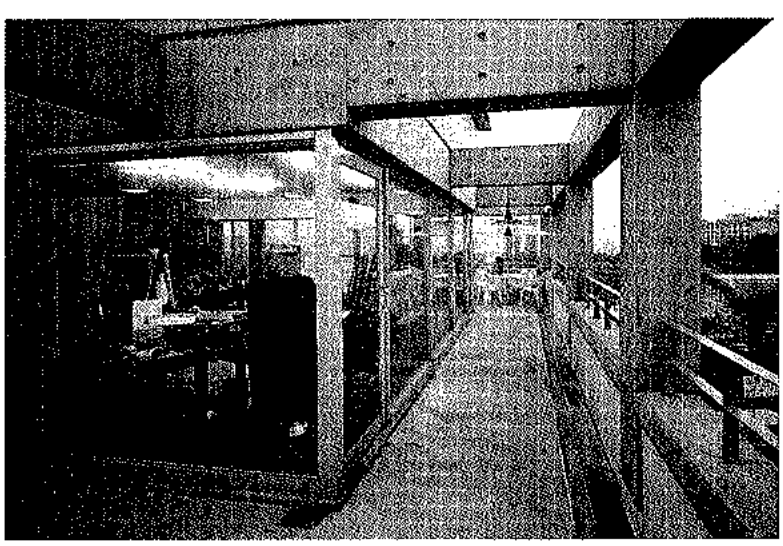
점점 증가 일로에 있는 통신 기술과 IT 기술을 접목시키고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물론, 경제적인 층고 설정 및 각층 보가 없는 구조 시스템 도입으로 층고는 낮지만 일반건물의 천장고보다 훨씬 높은 쾌적한 공간 확보를 염두에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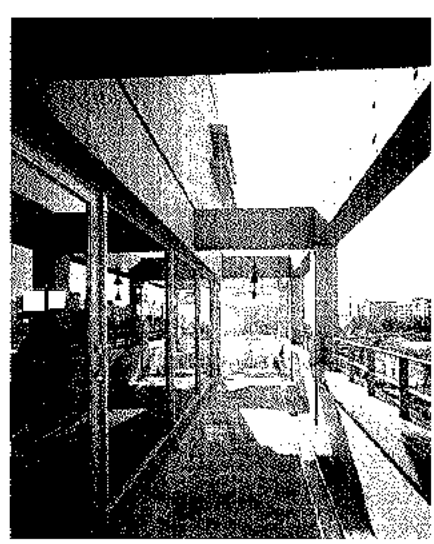
여기에 건축과 미술이 어우러진 공간을 창출하고자 곳곳에 작품들을 전시했다. 특히 건축 작품이나 그림들을 로비에 전시하여 이곳을 방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지루함이 없도록 방문객을 배려했다. 또한 6층에 아뜰리에를 두어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저축해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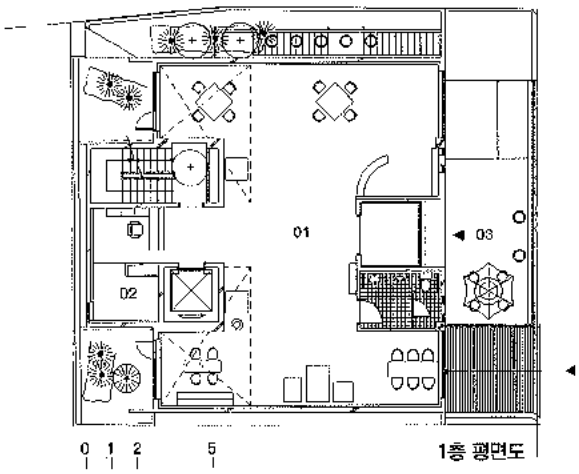
계획 당시 이 건물에서 근무할 사람들의 평균 눈 높이 등을 조사하여, 창문 크기 및 높이 결정 등에서 휴먼스케일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했다. 한편, 장애인을 배려한 시설을 별도 설치한다는 이유로 화장실 등을 구분하여 또 하나의 차별대우를 하는 현대인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과 정상인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했다.

마지막으로 집은 건축가 혼자서 짓는 것이 아니라, 건축가를 중심으로 수많은 기술자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소임을 다할 때 비로서 훌륭한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건물은 세우는데 참여한 모든 기술자들에 대해 공사실명제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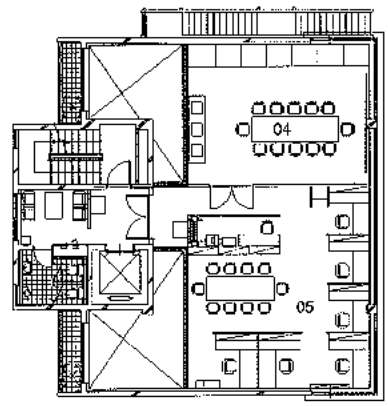
이제 하드웨어는 나름대로 구축된 것 같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곳에 담아야 할 소프트웨어이다. 지금껏 해온 것처럼 부족한 것은 채우고 좋은 것은 더욱 좋게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탐구하는 학자로서, 전문가로서, 좀더 겸허한 자세로 건축계에 조그만 초석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글/김동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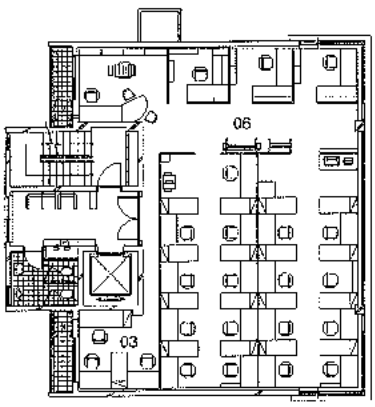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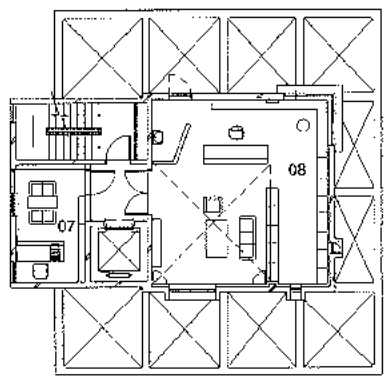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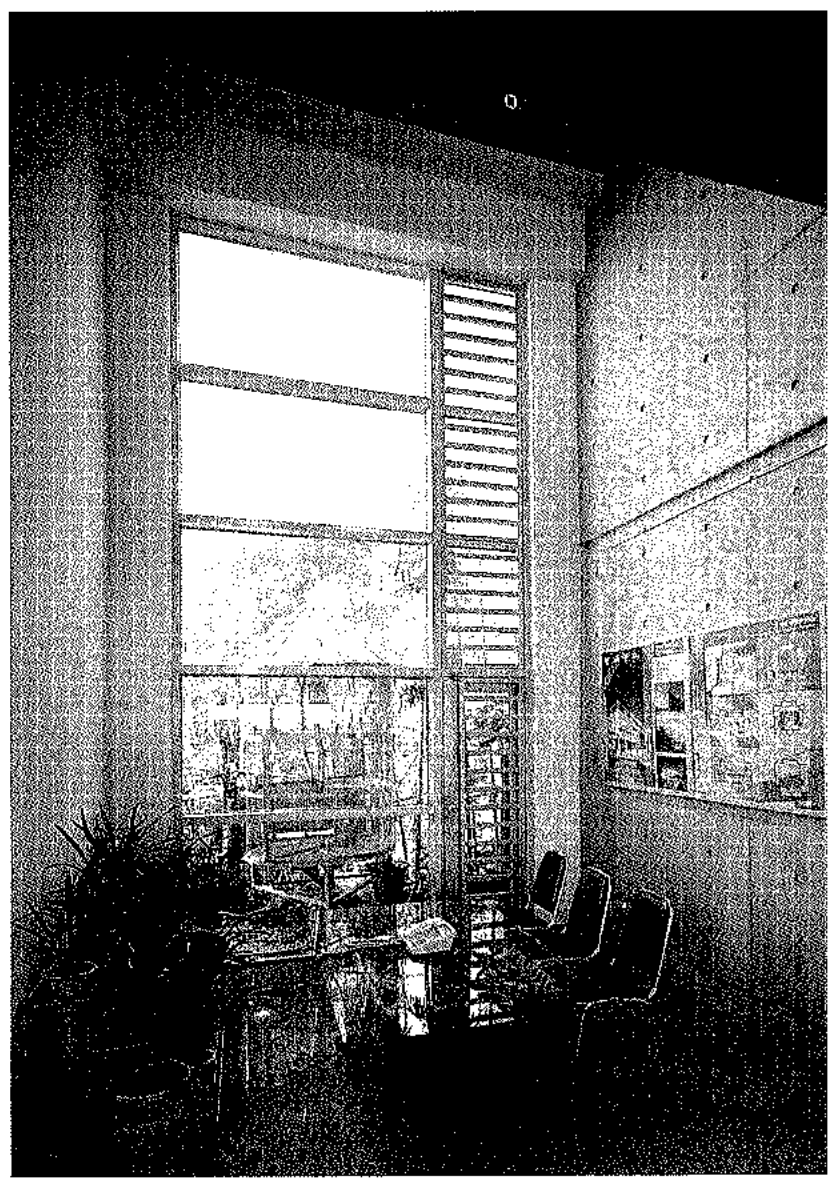


4층 평면도



7층 평면도

01_ 전시실
02_ 다목적실
03_ 주출입구
04_ 회의실
05_ 연구실
06_ 설계실
07_ 사무실
08_ 어뜰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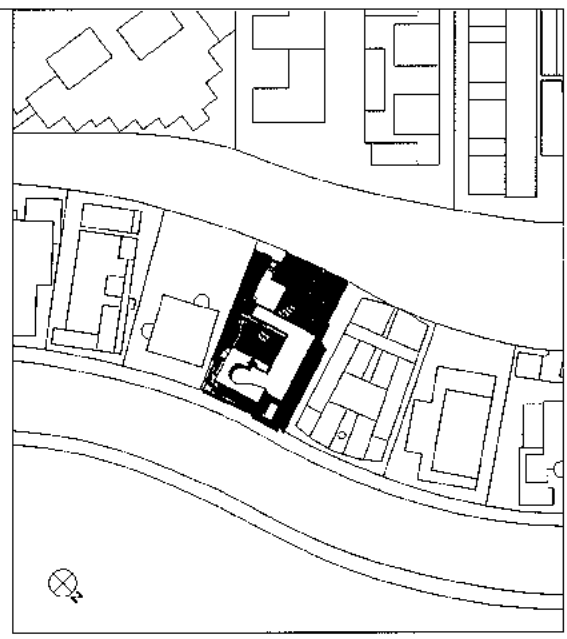


분당주택
Bundang Residence

이성관/ (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Designed by Lee Sung-Kwan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51-5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 도시설계지구
대지면적	617.30㎡
건축면적	196.75㎡
연 면 적	319.96㎡
건 폐 율	31.87%
용 적 률	51.30%
규 모	지상 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바닥-메이플 온돌마루판 벽, 천장-졸라톤페인트, 벽지
외부마감	모노쿠쉬(라임계천연컬러몰탈)-스크랩마감
설계담당	박경용, 엄덕홍, 김정순
설계기간	2000. 5.~2000. 12.
시공기간	2001. 4~2001. 12.
구조설계	한국구조
설비설계	성일ENC.
전기설계	일진ENC.
인테리어	한울건축
시 공	(주)건영
사 진	박영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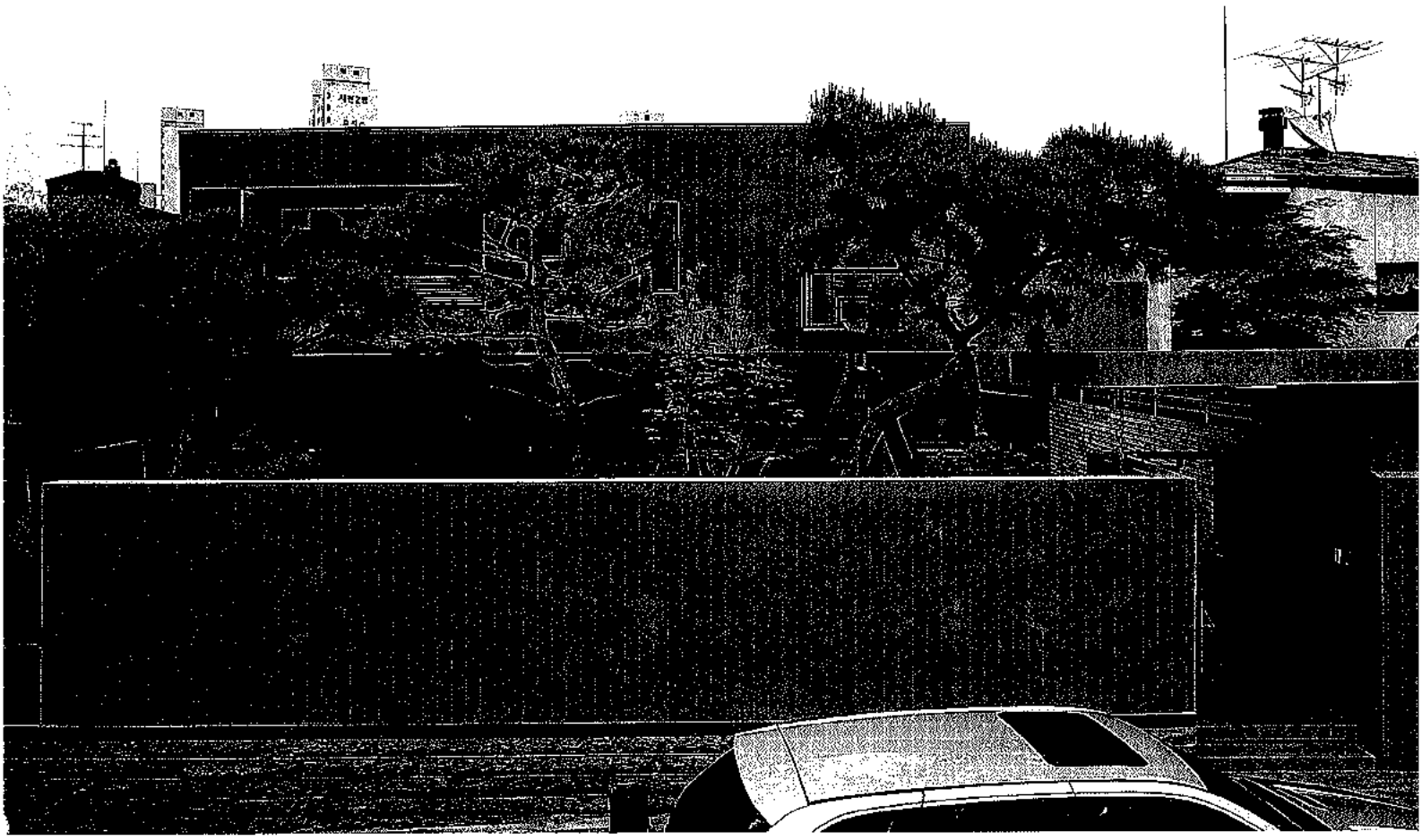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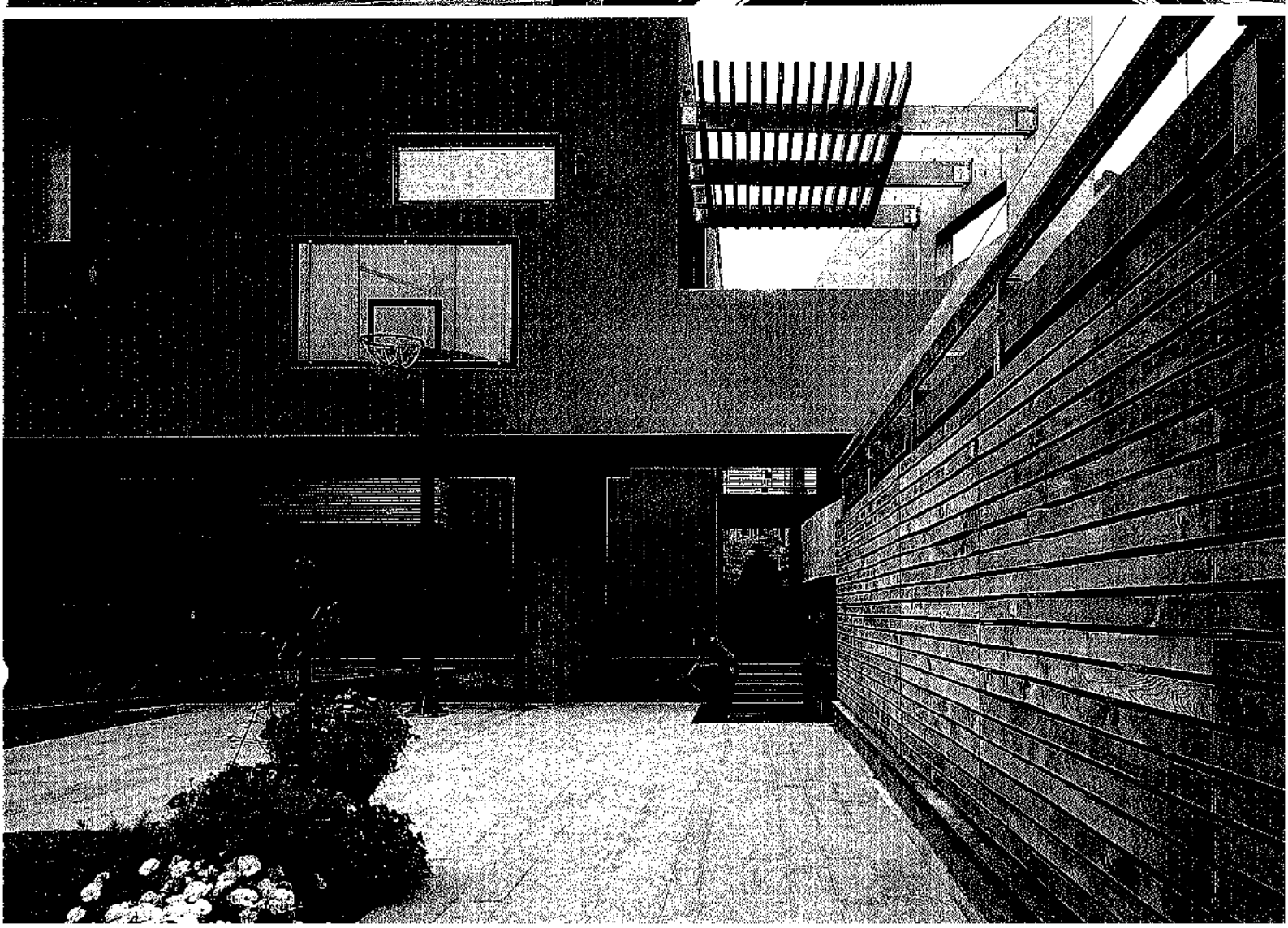
0 3 10
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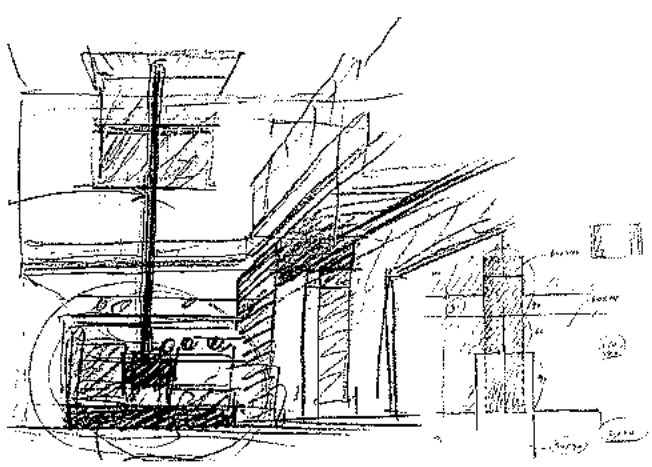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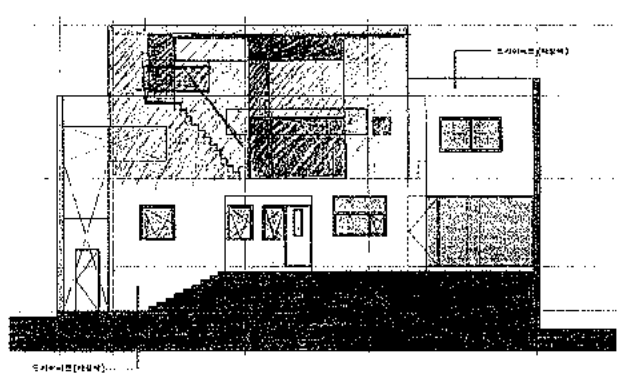
분당주택전람회 단지 내의 연립주택들이 거의 마무리되어 갈 때쯤 비로소 단독주택에서도 겨우 몇 채 정도에서 건축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즈음 작년 어느 날 시공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내가 설계한 분당주택에 관심을 가진 분이 있는데, 부분적 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했다. 건축주는 어린 두 자녀를 둔 40대 초반의 벤처투자가로서 집의 구조는 마음에 들어하는데 중정 내의 연못은 없애고 잔디를 깔아 다른 한 쪽에는 퍼팅그린을 두고 싶어한다는 것이 유선상 전해들은 내용이었다. 그 후 건축주와의 만남을 통해 설계의도와 내용을 충분히 전했고, 우리는 초기안대로 갈 것에 합의를 보게 되었다. 어느새 7년 전 주택전람회 당시의 설계안이 거의 원형 그대로 유지되어 지어지게 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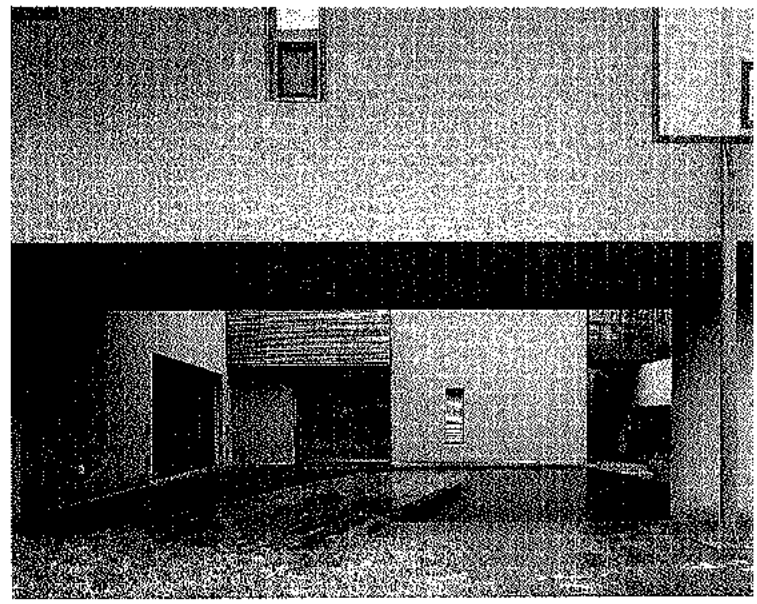
통상적 개념에서 본다면 단독주택의 설계는 건축주의 의뢰로부터 이루어진다. 일종의 주문형 맞춤형식으로서 건축주의 구체적이고 특화된 요구조건들은 설계상의 중요한 프로그램이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와는 달리 단독주택 설계는 보다 사적인 사건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건축주와 건축가간에 의견만 맞으면 갈 데까지 가더라도 윤리적 결점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작가로서의 면책 특권이 인정되기도 하면서 그 특수해로 인한 프리미엄을 누리기도 한다. 반면 공동주택의 경우는 입주자의 설계 참여 방식이 보다 간접적이고 추정적으로 이루어지며, 잘못 설정된 프로그램들은 많은 부분 설계자의 몫으로 넘어 오기도 한다. 건축주가 미리 정해지지 않고 단독주택을 설계함은 이런 점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가 없게 된다. 애초 전람회 기획 당시의 의도도 그러했다. 처음부터 특정 건축주에 의한 상황설정은 배제되었고, 그 대신 미래의 보편적인 중산층을 수요 계층으로 가정했다. 이 집도 바로 그런 상황설정 하에서 진행되었다. '주거는 거주자에게 철저한 사적 은신처가 되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단지 내에서 이 로케이션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의 파악은 설계상 매우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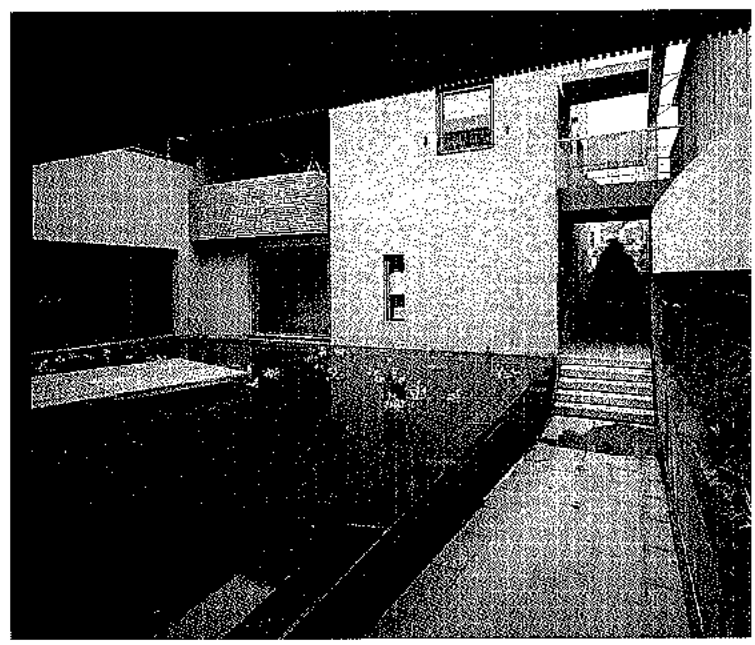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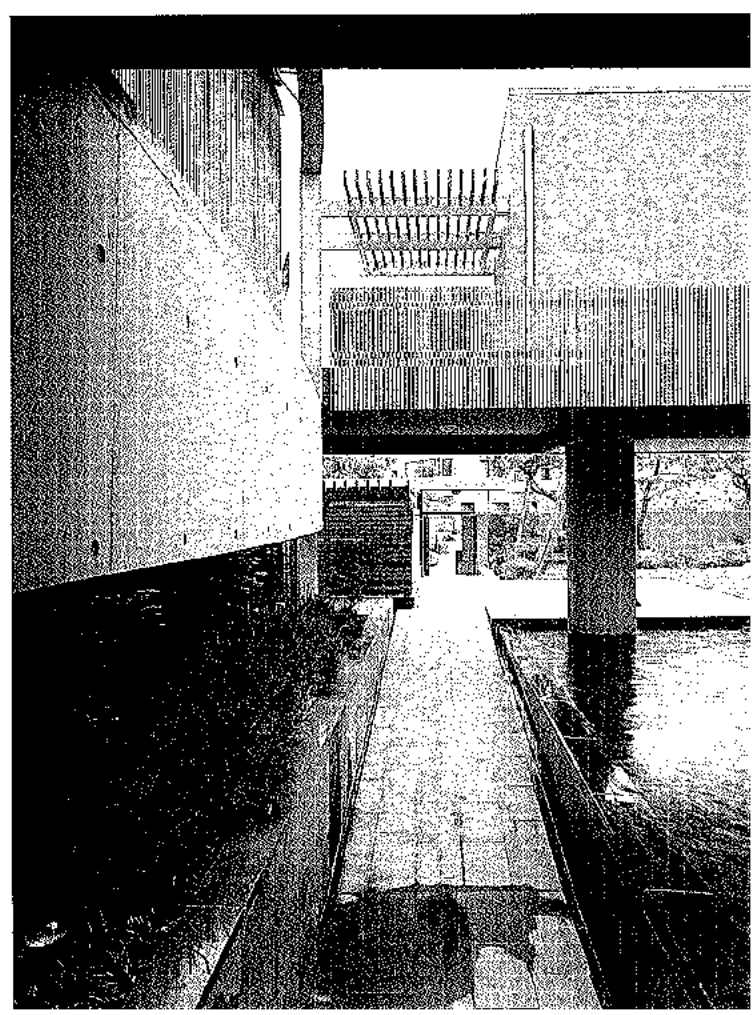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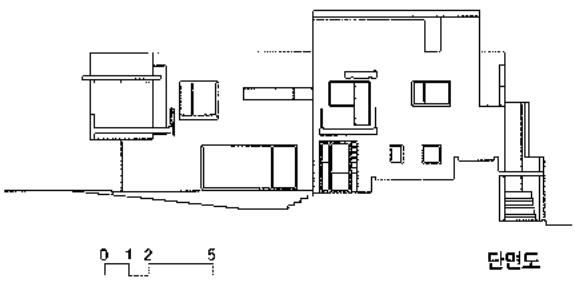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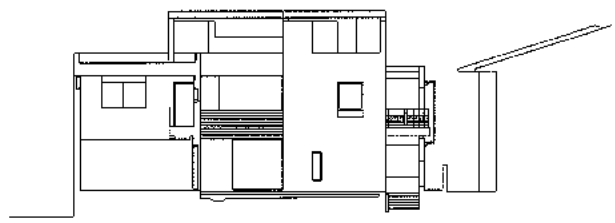


도시 외곽으로 자연녹지와 면한 이 주거단지는 그 입지적 여건이나 약간의 느슨한 밀도로만 본다면 일반적인 교외형 전원주택의 분위기를 연상할 수 있으나, 실제 계획부지가 면해 있는 주변 여건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후면은 차량도로 건너편으로 기존의 4, 5층 빌라들이, 전면은 3, 4층의 연립주택들이 그리고 좌우는 2층 높이의 단독주택들이 이미 지어졌거나 지어질 예정으로 이 부지는 주변의 입체적 사선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었다. 사적 은신처로서의 주거의 역할과 함께 한적함과 느슨함 그리고 땅을 밟아 본다는 애초의 장점을 찾아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건물과 대지간의 관계에서는 집중적 형태로서 대지 위의 볼륨이 아니라 무언가 산소 같은 보이드 볼륨(Void Volume)을 내부에 품으면서 약간은 흐트러져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지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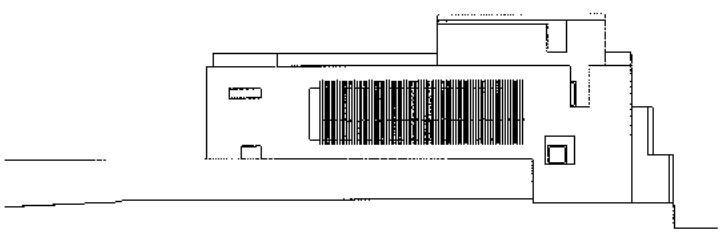
전체구성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주위로부터 보다 완벽하게 비호될 수 있는 열려진 옥외 공간으로 볼륨의 가장 안쪽에서 가장 외향성일 수 있는 자연을 직접적으로 면하게 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출발점으로 전통한옥구조 중 도심형 내향구조라고 할 수 있는 ㅁ자형, 또는 ㄷ자+담장형을 방어적 평면의 모델로 삼았다. 주변이 모두 단층일 경우 가장 효율적이었던 이러한 이차원적 대응방법이 오늘날의 입체적 사선의 공격에 노출되어질 때 어떤 형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각 방들이 중정 마당을 중심으로 선형적 병렬연결로 이루어져 불완전한 건물부위가 건축적 공간인 마당과 함께 상호 보완적으로 전개되었던 당시에 비해 건물부위가 마당의 도움 없이도 자체 완결적 평면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오늘날에는 그 마당이 갖는 직능적 존재이유는 이미 사라졌다. 비워지고 쓰여지고 밟혀지면서 과거에 적합했던 그 딱딱했던 바닥 대신 오늘날에는 어떤 질감으로 대체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오늘날 아직도 마당이 그 당시의 모습으로 재현되면서 미학적 또는 노스탤지어 차원에서 맴도는 상황을 극복하고 싶었다. 오히려 자연과 가장 민감하게 그리고 내밀하게 교유할 수 있는 장치로 그곳을 수면의 질감으로 치환시켰다. 유동의 반사수면은 관조를 위한 거울의 역할을 하면서 빛과 바람과 그리고 신의 변화에 대해 더욱 민감한 자연의 감응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글/이성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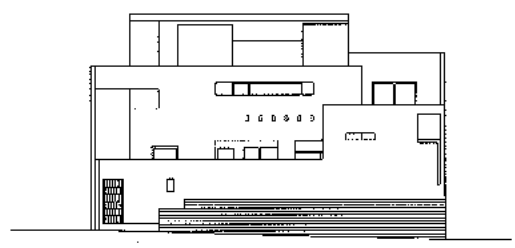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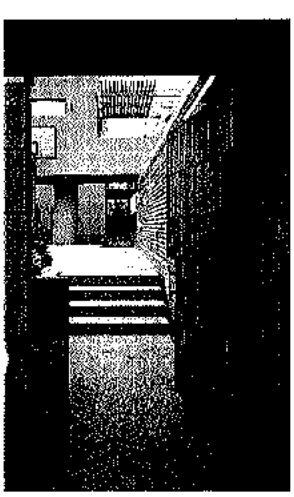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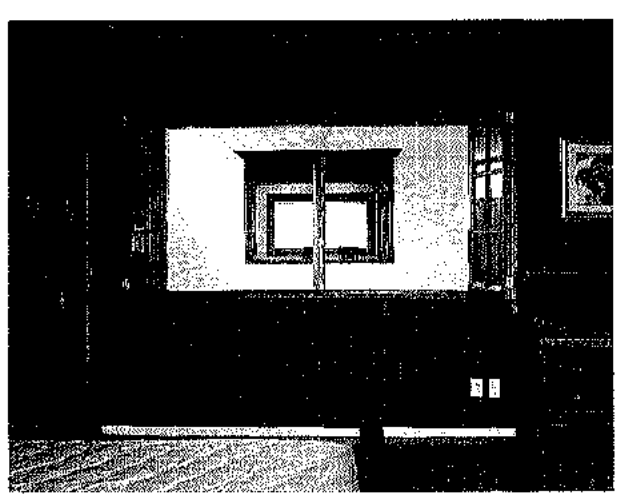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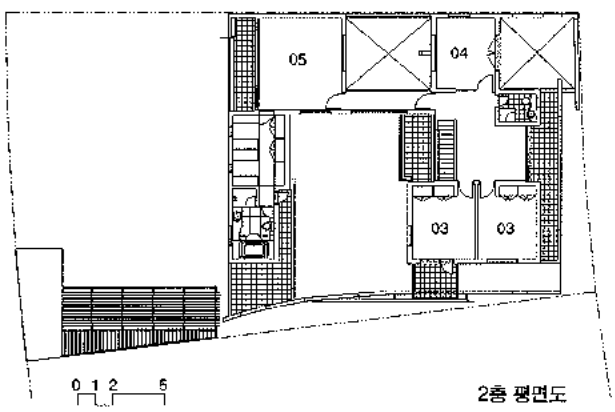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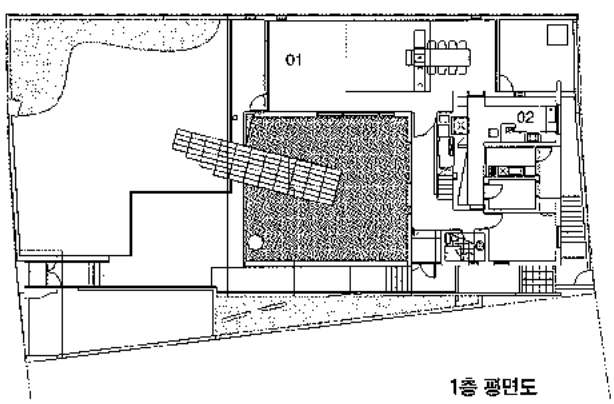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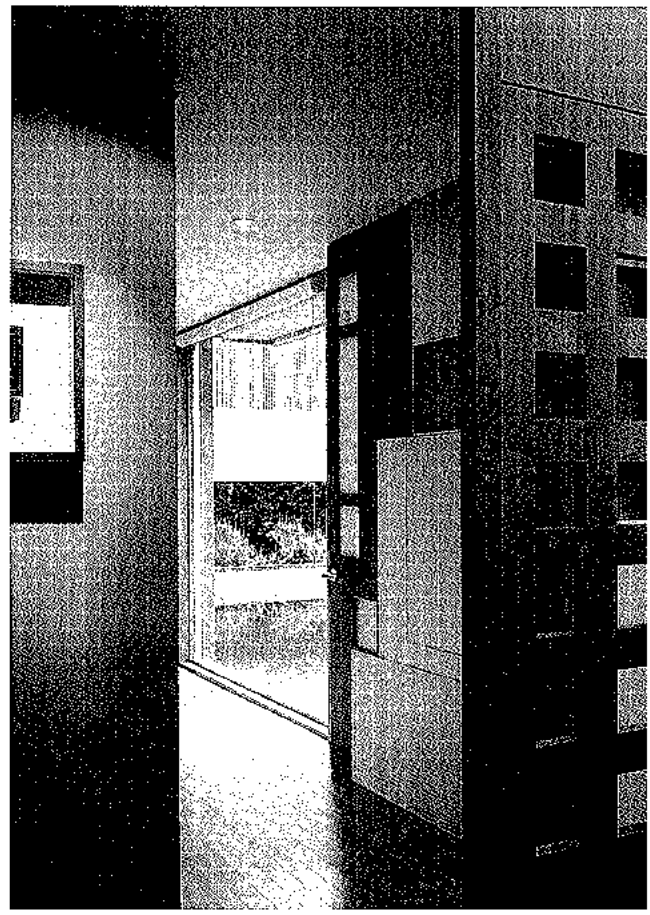
01_ 거실
02_ 부엌
03_ 아이들방
04_ 공부방
05_ 부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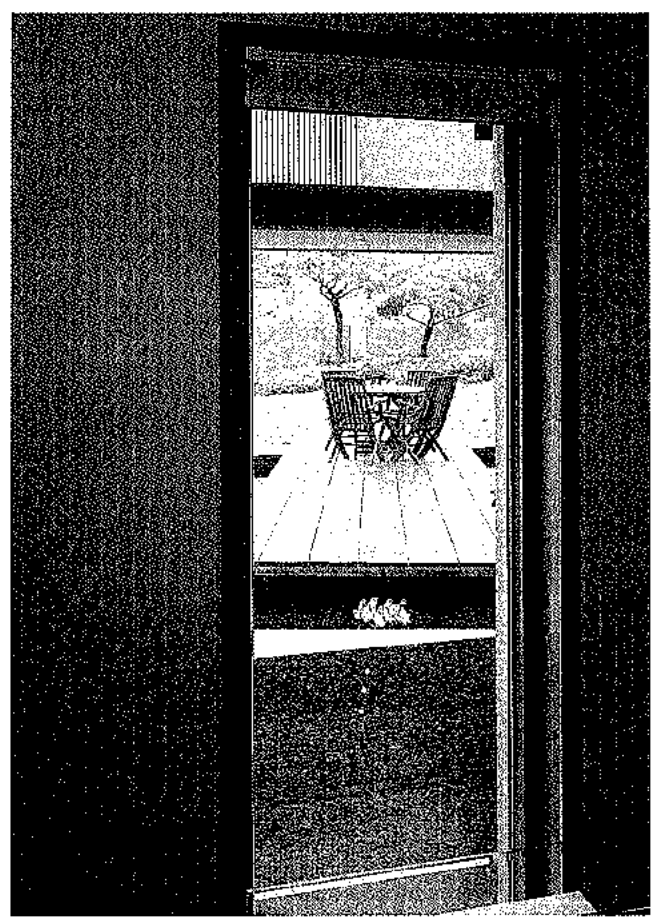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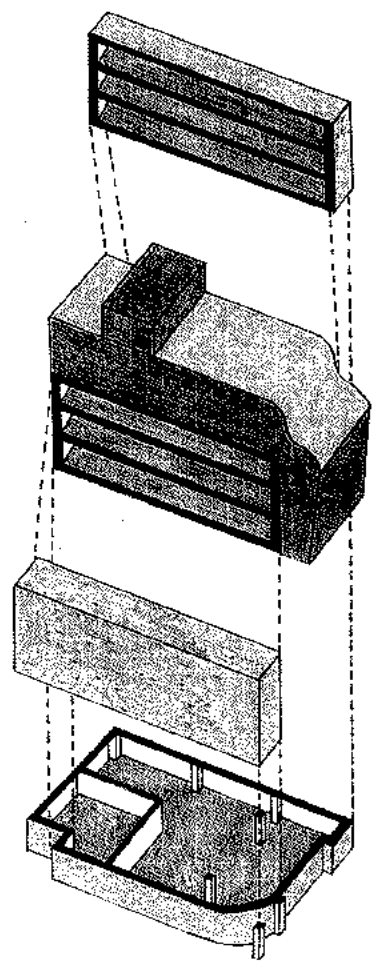
압구정 서원 제3빌딩

Suwon Building

박연심 / 건축사사무소 장원
Designed by Park Yean-Shim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 강남구 신사동 574-4
지역지구	일반주거
용 도	근린생활 지역
대지면적	577.10㎡
건축면적	344.49㎡
연 면 적	2,042.37㎡
건 폐 율	59.69%
용 적 률	290.60%
규 모	지하1층, 지상6층
외부마감	티타늄 아연 패널, THK16복층유리
주차대수	13대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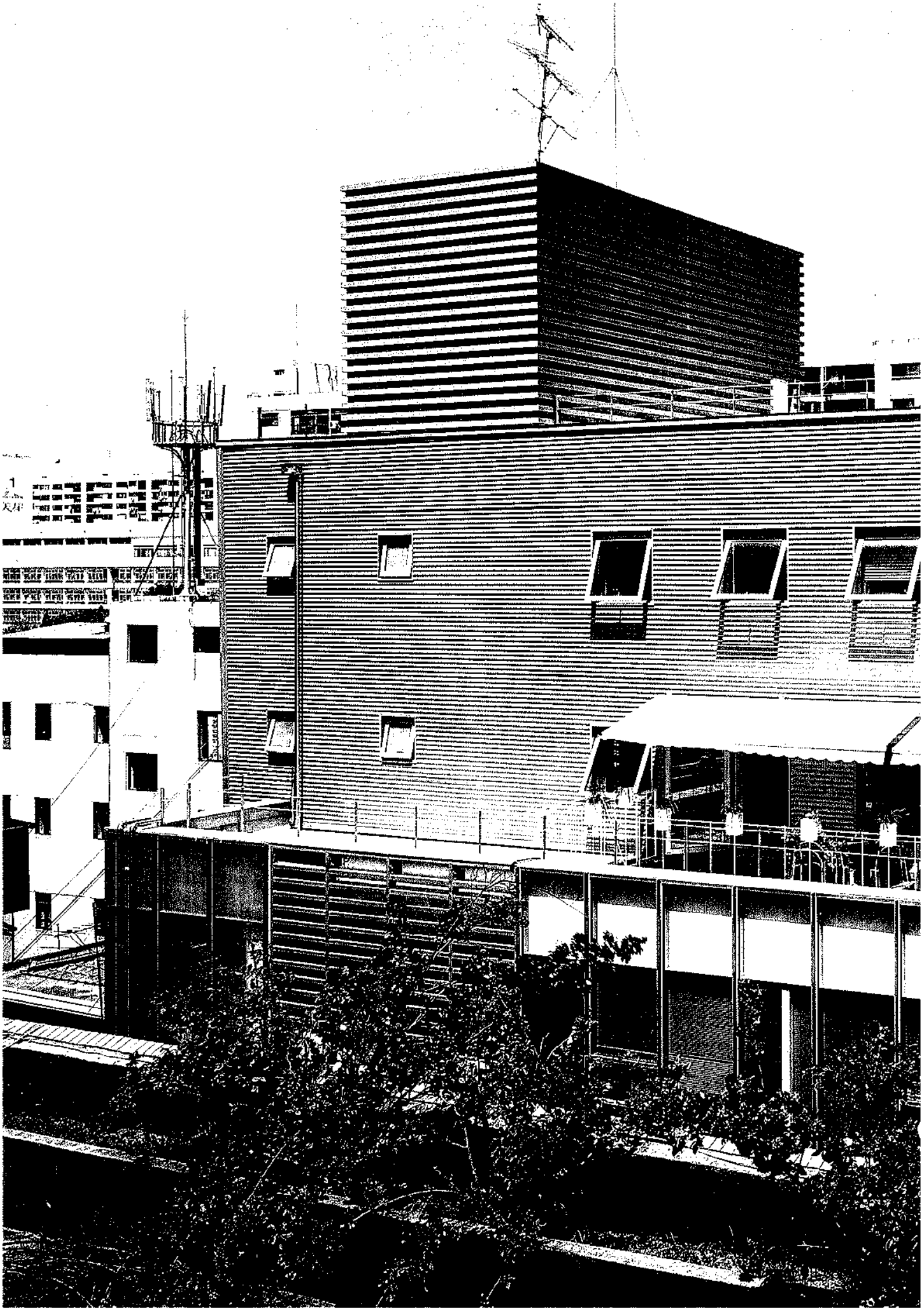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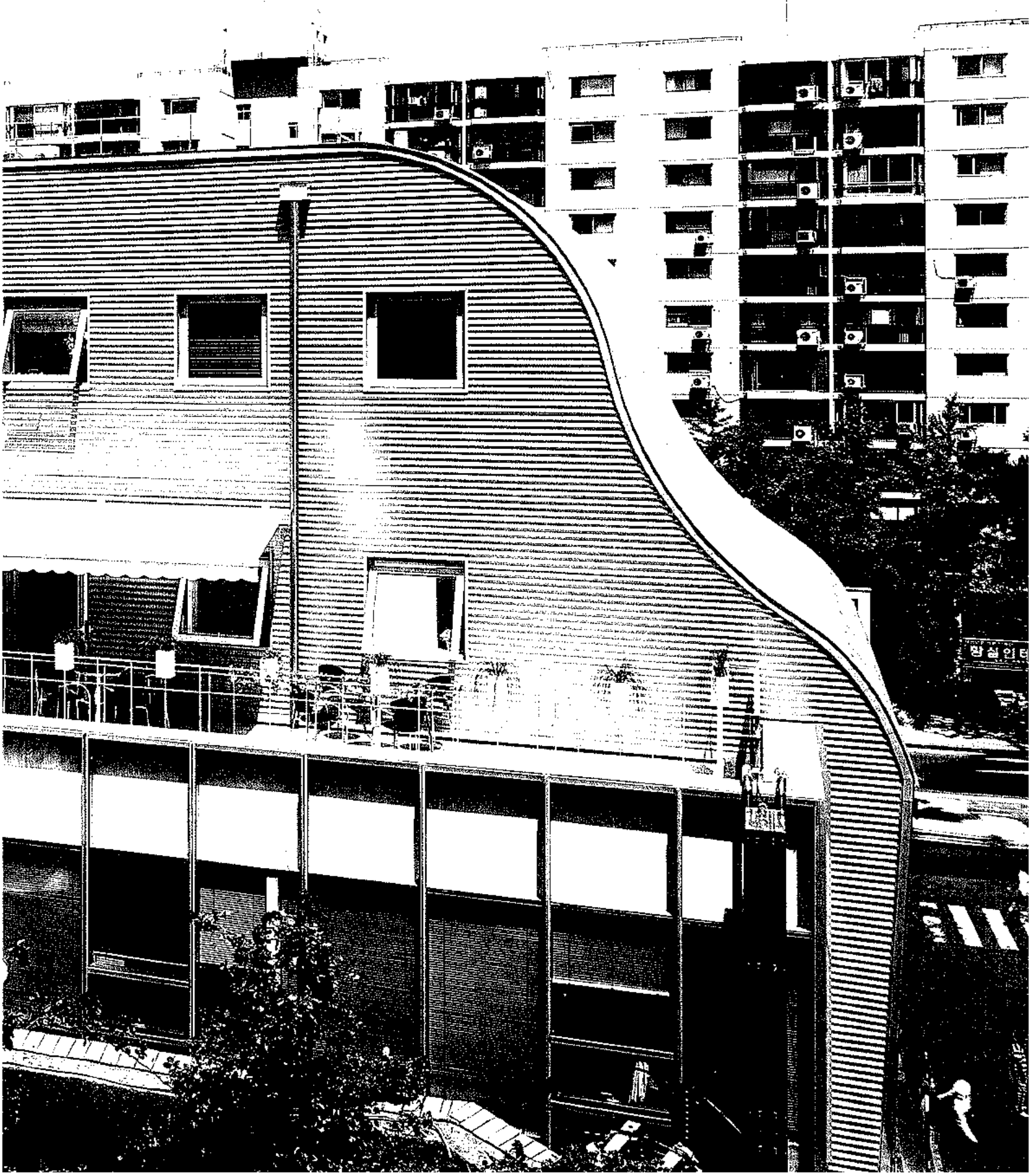
이 건물의 현장은 압구정동의 가장 오래 된 동네로, 주변건물들은 서울의 최첨단 로데오거리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퇴락하고 요새 말로 후졌다. 이 사이트는 이 동네의 거의 마지막 빈 땅으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고 대지 경계로는 포장마차들이 줄지어 있던 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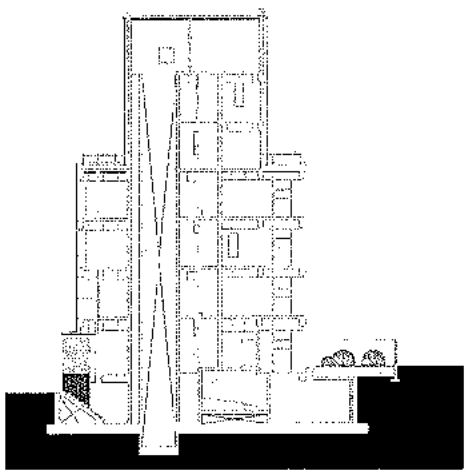
양방향 6미터의 도로가 있는 모퉁이 대지로 법규상 최대한의 용적보다는 도로사선제한이나 진북방향의 이격거리가 건물의 범위를 한정 지워버리게 된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도시지역을 계획할 때 흔히 맞닥뜨리는 문제로 대지가 함축하고 있는 역사성이나, 도시 구문론적 장소성에의 문제 해결보다는 항상 선행되어야 할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건물의 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서 대지의 고저차를 이용하여 지하1층은 완만한 램프를 두어 주차장 출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상업시설들을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변은 고도의 감각을 요구하는 패션, 먹거리, 음주 등 쇼핑과 그리고 만남이 이루어 지는 지역으로, 소비문화를 대변하는 간판들과 네온들이 거리를 채우게 되는데 계획 진행과정에서도 그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했음에도 준공이후에도 계속 문제점으로 남게 되었다.(글/박연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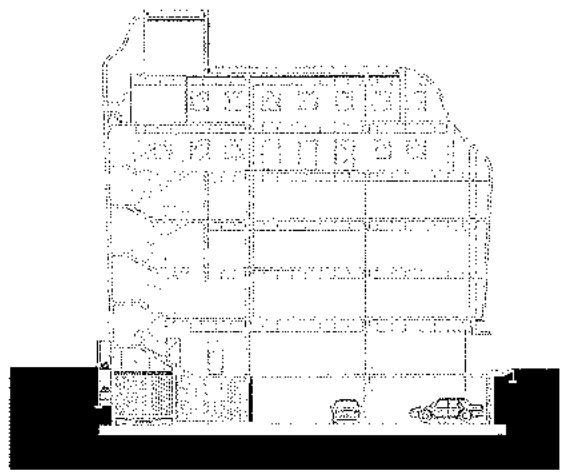
JACQUES
DESSANGE
JACQUES
DESS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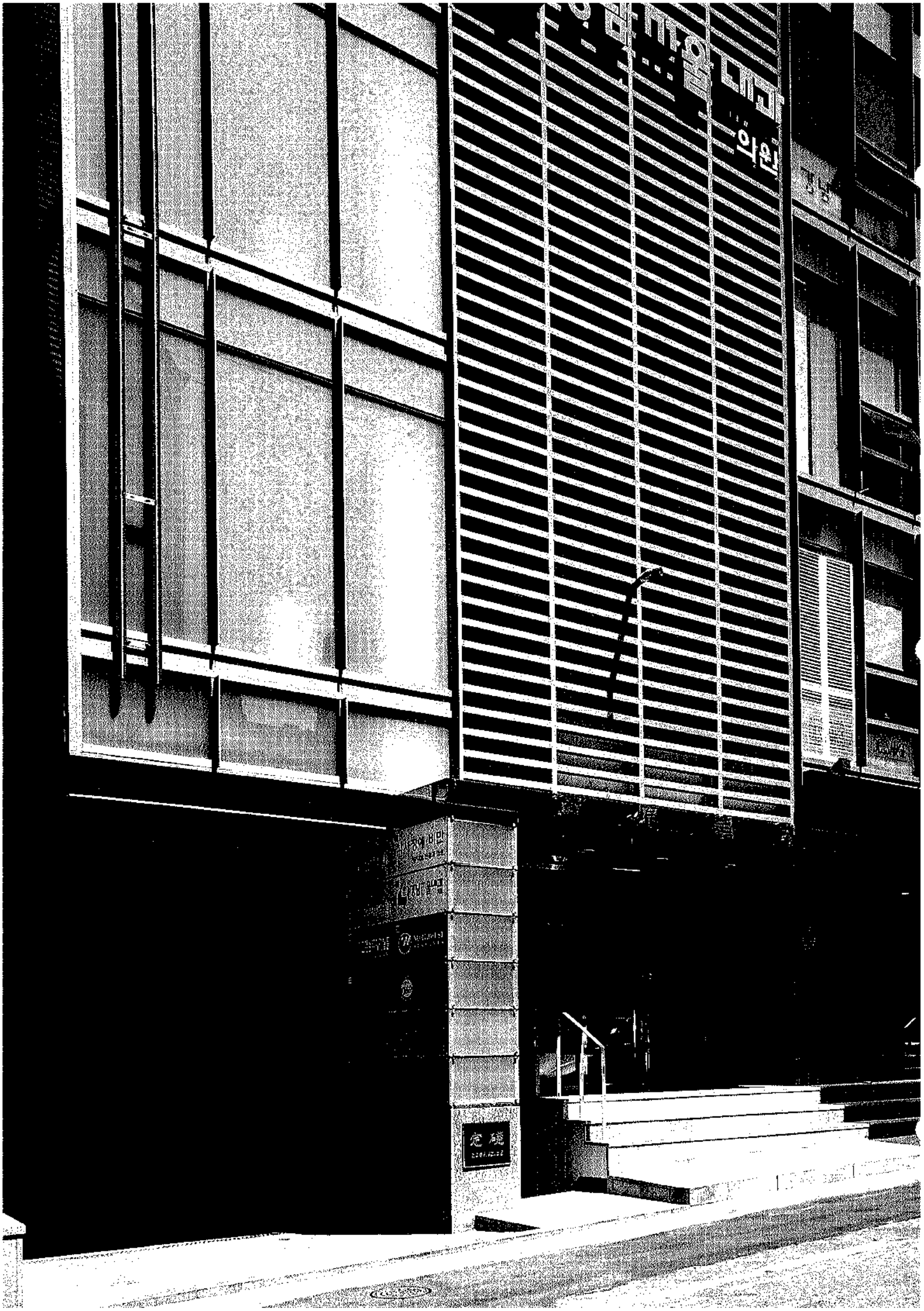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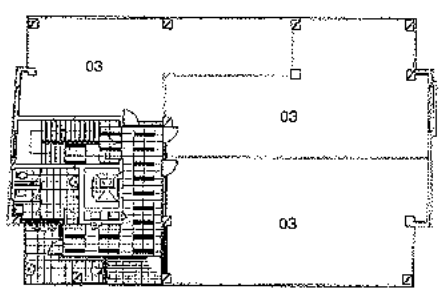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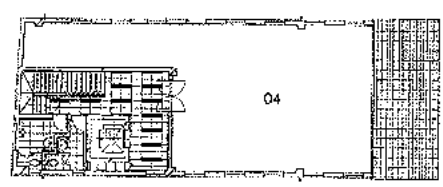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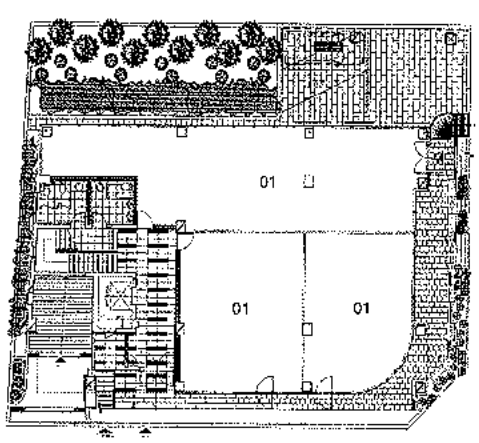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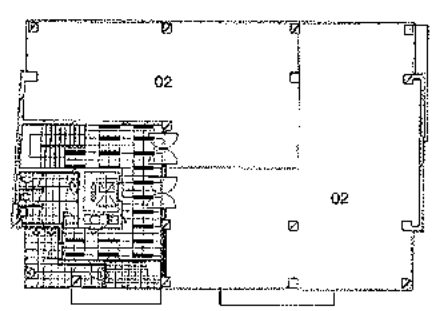
01_ 소매점
02_ 대중음식점
03_ 의원
04_ 사무실



6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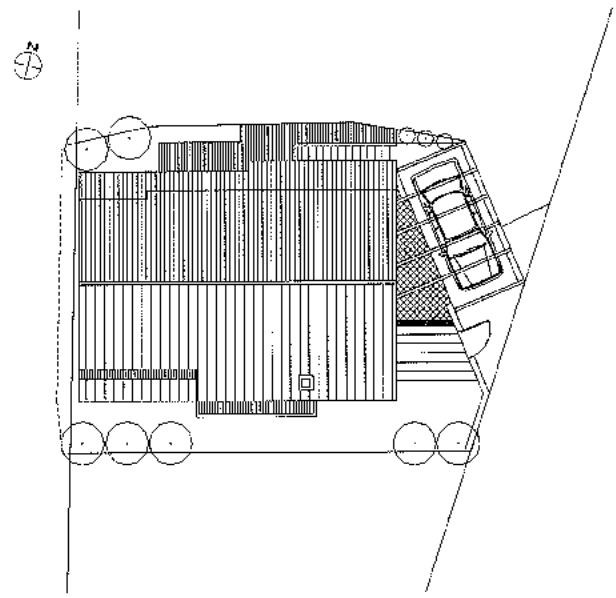
신풍동노인주택

Sinpung-dong Silver Residence

손기찬 / 건축사사무소 동이
Designed by Sohn Kee-Chan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주거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용 도	주거시설
대지면적	159.92㎡
건축면적	76.30㎡
연 면 적	208.34㎡
건 폐 율	47.71%
용 적 률	81.93%
규 모	지하1층, 지상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내부마감	바닥 - 우드후로링 벽 천장 - 석고보드위 백색 락카, 벽지마감
외부마감	붉은 벽돌치장쌓기, 기와잇기
설계담당	손기찬, 김수진, 정해성
공사감리	손기찬, 김창호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 윤창진)



배치도

다시 주택이란 무엇인가?

사회학에서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총인구의 7%를 넘어서면 고령화 사회이고, 14%를 넘으면 고령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노인 인구가 7.2%로서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20년후 15%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통계청이 발표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한국은 노령화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길게는 100년 짧게는 50년이나 걸렸던 노령화가 우리의 경우 불과 20년만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나이를 먹음으로써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어 노화현상이 나타난다. 이로 인하여 차츰 일상생활 면에 있어서 부자유한 면이 발생하지만 전에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받아들였다. 그러나 현대와 같이 기술문명이 발달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된 사회에서 이러한 부자유한 상황을 간과할 수 있을까? 여전히 주거의 양적, 질적수준은 노인주거환경을 외면한 채 천편일률적으로 외피(주로 마감만)만 고급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국내에서 최근 들어 문을 열거나 건축중인 실버타운은 기존의 양로원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고급아파트나 고급호텔 수준에 버금가는 실버타운이 속속 개원하고 있지만 극히 제한된 이용범위내이다.

주거 형태가 미래의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기에는 지금도 이미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 사회복지에서도 마땅히 노인복지에 그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노인복지의 핵심은 결국 안정된 노인 주거일 것이다.

우리들이 직접 다루어 왔던 물적 환경은 나이 들었을 때나, 더욱더 냉엄한 노년기를 맞이하는 다음 세대에 있어서도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보금자리로서 노인의 주거환경조성은 절박한 실정이다.

이번 노인주택 프로젝트에서는 결국 자립, 안전, 환경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준거로서 접근할 수 있었다. 자립은 주택의 시설과 고령화에 따른 일상생활 동작 능력 저하를 보조기구 등의 측면적 보조의 힘을 빌어 자립생활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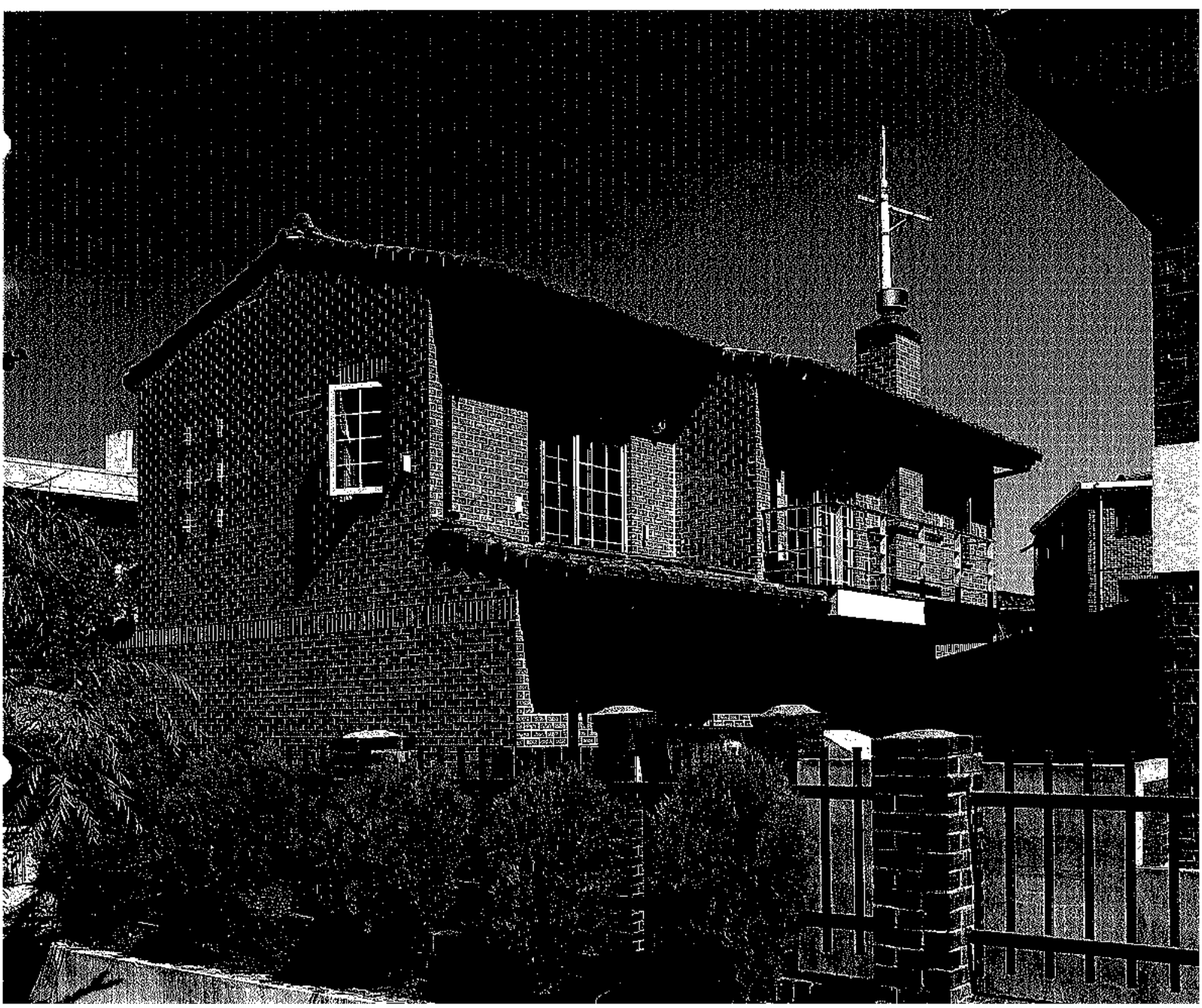
나아가 주거에 있어서의 내부에서의 사고는 물론 외부 침입에 대한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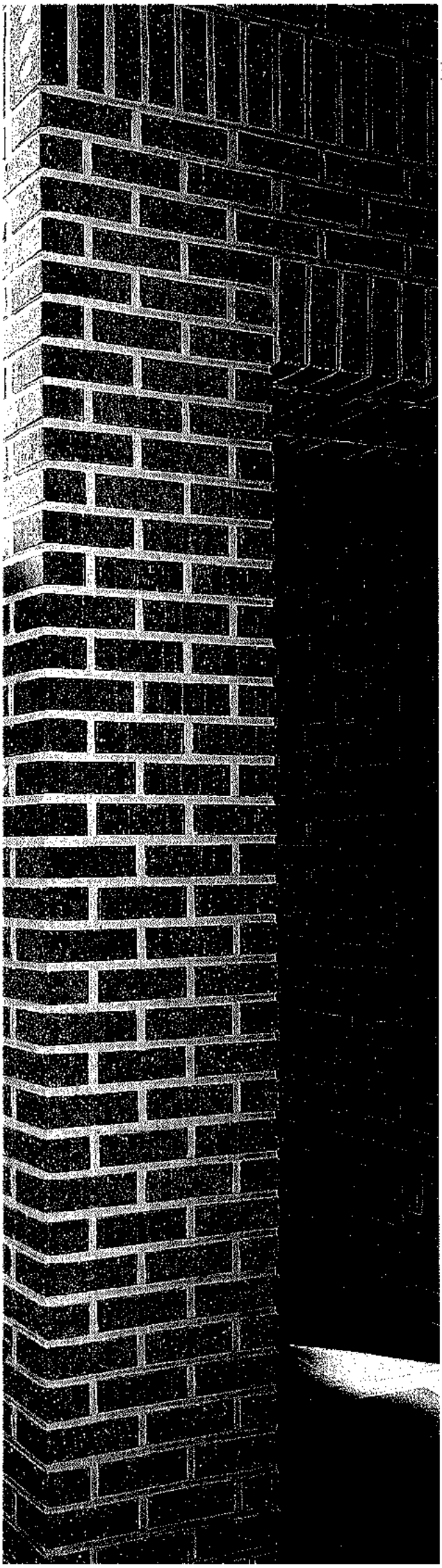
또한 풍우, 한서 등 외부 자연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정된 물리적 환경도 갖추어지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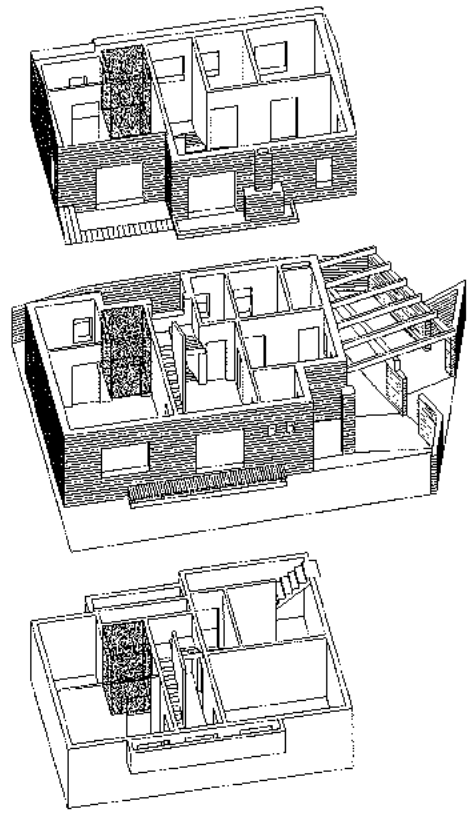
문화재보호지구 지정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된 도심의 골목길에 위치한 이 주택은 최우선적으로 골목에서부터 안방까지 자립적으로 궁극적으로 휠체어에 의한 이동이 가능하게끔 그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를 위해 대문, 현관, 차고, 방문, 화장실 등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턱을 없애고, 현관에서의 최소한의 단차는 완만한 경사로로 처리하였다. 이를 위한 층간이동은 장차 휠체어용 수직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 과정에서 외부에서 현관으로의 단차를 줄여 이동이 용이케 한 결과는 결국 지하층이 완전히 땅속에 묻히는 단면으로 인하여 지하실의 습기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는 앞뜰의 마루 밑과 뒤뜰의 데크편의 양쪽에 긴 드라이에리어를 설치하여 충분한 크기의 창을 둠으로서 맞바람이 통해 지하실의 자연통풍이 가능케 하였다.

현관, 방문폭, 화장실, 차고폭 등의 규격화된 문폭(화장실, 주방문 등은 행거도어로 처리)은 넓혀져, 통행로를 확보하므로서 휠체어의 이동이 원활하게 처리하였다. 또한 미끄러지는 등 안전사고를 대비해 외부바닥은 돌쪼아내기, 마루목 띄워서 깔기, 물이 사용되는 바닥은 골이 새겨진 미끄럼방지 바닥 타일 등을 깔았다. 더불어 외부 현관벽, 내부계단벽, 코너 등 특히 화장실의 욕조, 샤워기, 벽지 등에는 장애자용 핸드레일(수평, 연직, 변형난간등)을 설치하였다. 욕조는 바닥콘크리트 슬라브를 다운시켜 욕조턱높이를 반으로 낮추어 입욕이 용이하게끔 처리하였다. 이러한 재료의 선택, 치수(인체치수와 동작치수 등과 함께), 위치(스위치, 콘센트 등을 포함하여)의 결정은 고난도의 섬세함이 요구되었고, 이는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완공 후에도 끊임없는 시행착오와 함께 모두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는 건축자재와 등짐과 삽질이 없어진 기계







적인 장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거환경을 위한 삶의 질은 값비싼 대가에 비해 얼마나 만족시키고 있는지 되물어 봐야 할 것이다. 더욱이 가재도구(옷장, 싱크의 규격 등)등은 규격화되어 노인환경에 대한 배려는 처음부터 디자인하여 주문 제작하지 않는 한 엄두를 내기에는 어려움을 도처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좁은 부지에, 더욱이 어긋난 땅모양새는 비스듬히 세워진 차고로 인해 오히려 대문 앞에서는 골목길의 자동차 등의 통행과의 충돌 없이 비껴설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하는 셈이 되었다. 그러나 좁은 대지에 요구되는 일정건축면적으로 인해 빈틈없는 앞뜰은 모자란 듯 하지만 아늑한 정원이 되었고, 1층마루에서 내다보이는 뒤뜰은 어김없이 행해져야 하는 빨래대나 장독대를 설치할 수 있는 마당을 확보하므로써 외부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연결과 적응공간을 예측하였다.

물론 자연경관은 2층 안방에서 발코니를 설치하여 창문을 최대한 넓힘으로써 발코니에 앉아서도 변화하는 사시사철의 팔달산 풍경을 안방에 끌어들임을 놓치지 않았다.

또한 단조로운 내부공간에서의 폐쇄감은 양측 창을 통해 골목길에서의 개방감으로서 완화시키고, 앞뒤뜰을 활용하여 창의 위치와 크기를 조절하므로써 자연태광과 자연통풍을 고려하므로서 물리적 외부환경과 교감하므로서 주거로써의 가치는 장려될 것이다.

물론 주택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주택의 절실한 요구인 방수, 방습, 단열, 방풍, 통풍 등에 대한 기술적 해석은 예산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요구되었다. 그러므로 생활을 위한 시각적 질보다는 오히려 뭇 실내활동성을 위한 제기를 충분히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추어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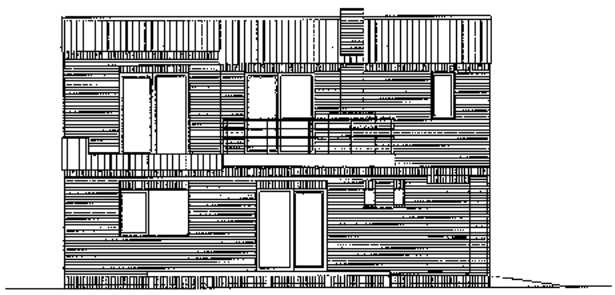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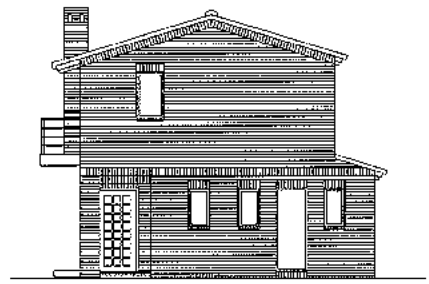
2층 경사천장의 노출된 서까래는 처마바깥까지 연장되어 드러내므로서 한옥 처마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토석벽들과 창문의 그릴설치 등 잔잔한 스케일의 처리로 완만하게 외관을 구성하여 주변의 문화재 보호구역와 조응하는데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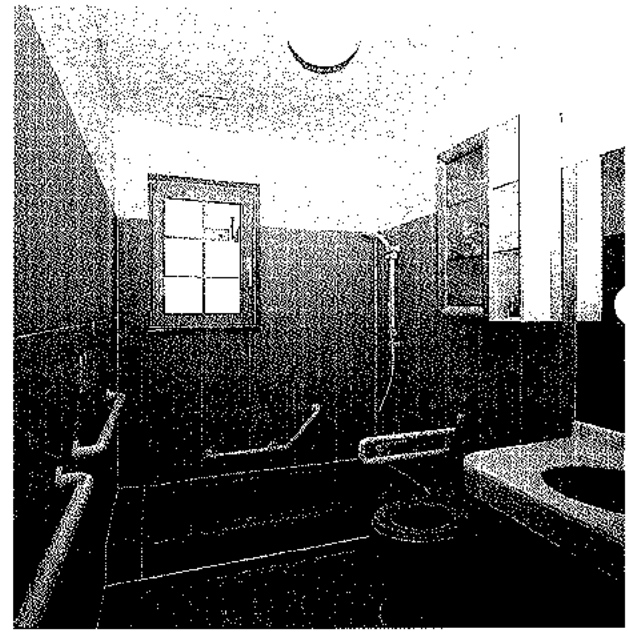
주택이란 우선 사람의 삶을 중심으로 엮어진 장소의 의미 연관성을 뜻한다. 현대적 생활의 범위에서 삶 그 자체의 과정이나 방식으로서의 - 인간경험이라는 입장의 - 삶 전체에 반응하는 설계 · 시공 · 사용작업이 요구되는 것이다. 결국 주택의 성공은 사용되기 이전 오브제적인 판단은 거주자에게도 똑같이 있을까 하는데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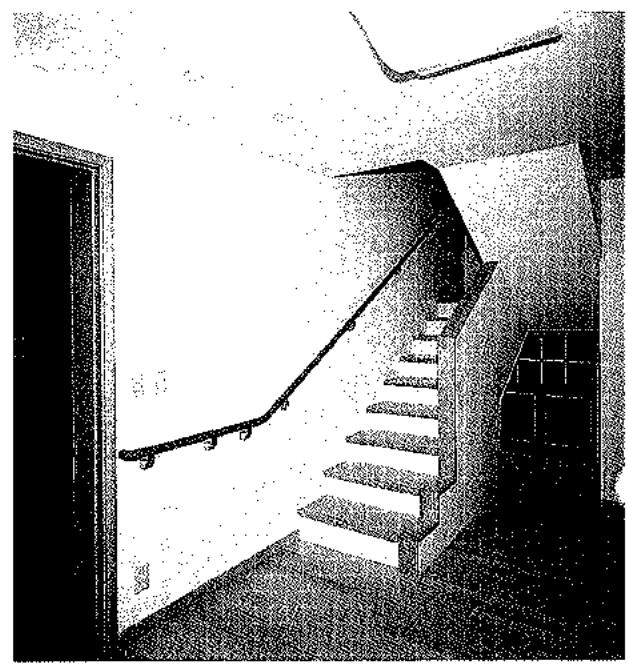
원없이 넓은 정원과 큰집에서 충족하게 살아오셨으면서도, 나이들어 이제는 불편함과 소용없음을 깨닫고 조용히 삶의 보금자리를 직접 정리하시고저 하였다.

그 집은 삶의 깊이와 성숙을 좇아서 스스로의 뜻자리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장소이었다. 벽지 선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맡겨 주셨던 연로하신 건축주께서는 완공 후에 끝까지, 살아온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주택에 대한 검박하고도 완숙하고 세심한 요구는 비단 노인주택에서만 아니라 소비적, 탐미적인 대상으로서의 욕망을 부추기는 오늘의 주택양산을 다시 주택이란 무엇인가를 성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글/손기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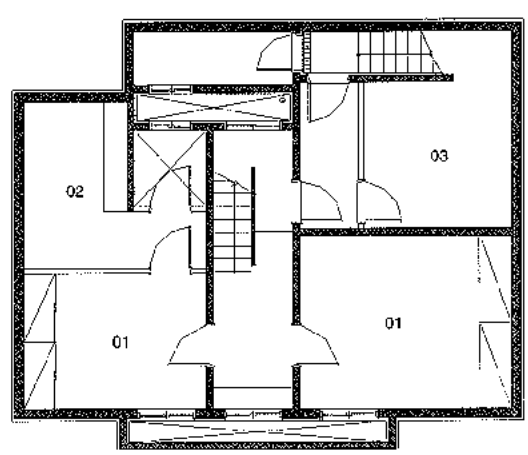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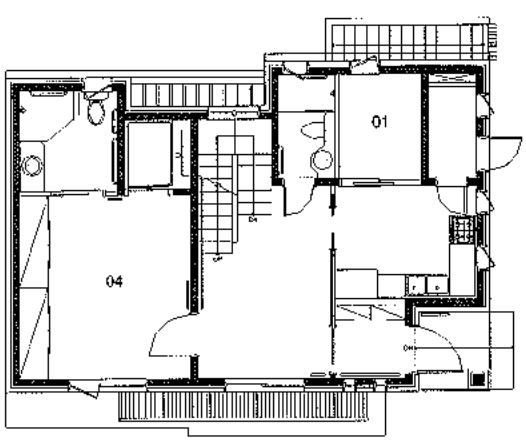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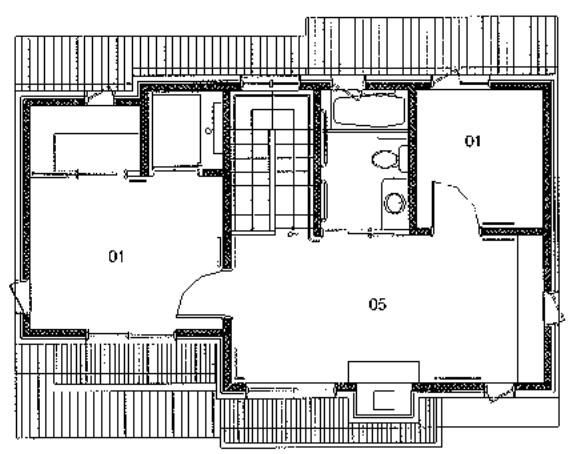
01_ 방
02_ 창고
03 보일러실
04_ 안방
05_ 거실



지하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서울대학교 간호대 기숙사 / 72
한국토지공사 충남지사 / 76
한국토지공사 전남지사 / 80
임실 청소년 수련관/ 82

서울대학교 간호대 기숙사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Dormi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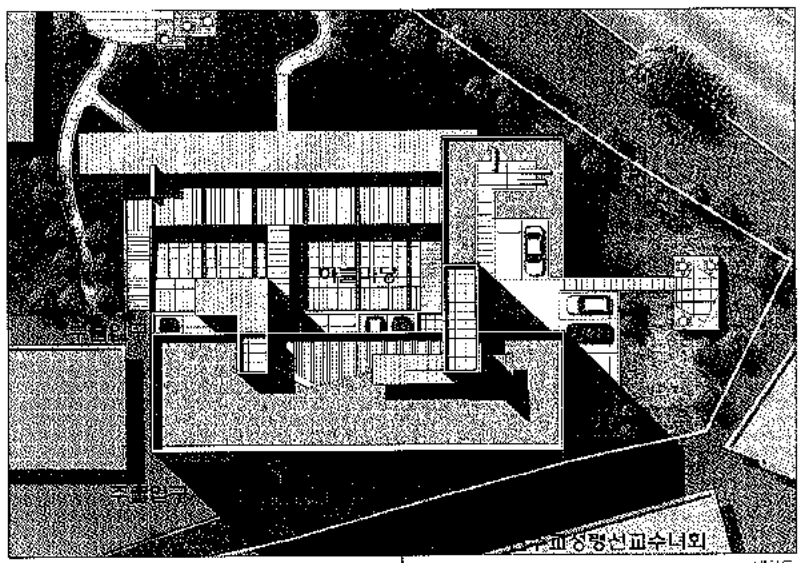
▶ 당선작 / (주)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노형래)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 구내
건축면적	716.09㎡
연면적	3,411.58㎡
규모	지하 2층, 지상 7층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세대수	25세대
주차대수	17대(장애자1대포함)
외부마감	외부용 수성페인트, T30 화강석 고운다듬
설계팀	고종준, 주영준, 허 한, 김동원, 최정훈, 이후공, 권영환, 김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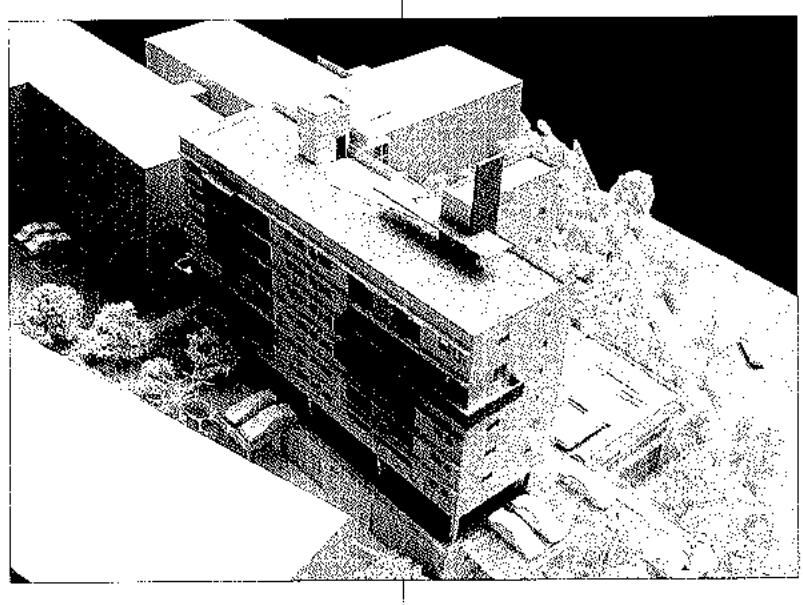
대지는 서울대 연건 캠퍼스 내 북서측 경계에 위치해 있으며, 문화재보호 앙각 규정으로 건축물 높이제한을 받는 창경궁 로를 끼고 있다. 더불어 대지로의 진입은 캠퍼스 내 기존 간호기숙사의 좁은 진입로를 이용하여야 하며, 협소한 대지면적과 높이제한, 주차확보, 지형의 고저차 등 제약을 프로그램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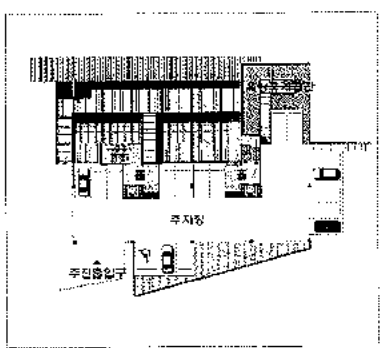
배치는 높이제한으로 창경궁 로 변에 저층 공용시설을 교사동과 인접해 두고, 고층의 기숙사동을 기존 기숙사동과 같은 축에 두어 단지의 맥락을 수용함과 서비스 시설과 기숙사동을 수평적으로 분리하였다. 또한 지형의 고저차를 활용해 진입레벨에서 주차장을 계획하였으며, 주차장 하부의 공용시설에 옥상 휴게공간 및 선큰마당을 두어 학생들의 다양한 이벤트 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하였다.
지하층은 도로에 인접한 옹벽에 사면을 두어 채광을 고려하였고, 대지 남측의 천주교 성령선교 수녀회의 옹벽을 철거함으로써 환경조건을 개선하였다.

기숙사동은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 할 수 있도록 탑상형 공동주거형식으로 진출입의 독립성 및 프라이버시를 확보하였으며, 필로티 주차장을 기준으로 하부의 관리 및 서비스 시설의 집적과 상부의 기숙사동 계획은 관리의 효율성과 이용의 편리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단위평면은 한 개 유닛에 6명이 거주하므로 수납공간을 최대한으로 계획하였으며, 다양한 생활패턴을 반영해 다양한 공간구성과 입면형태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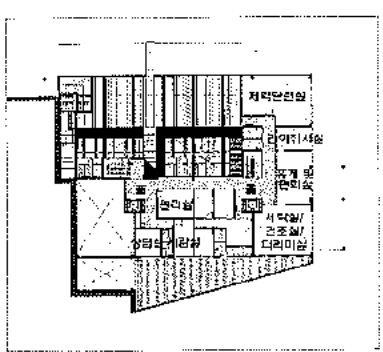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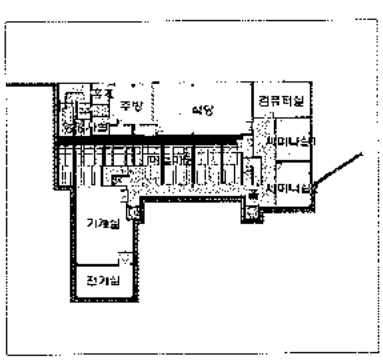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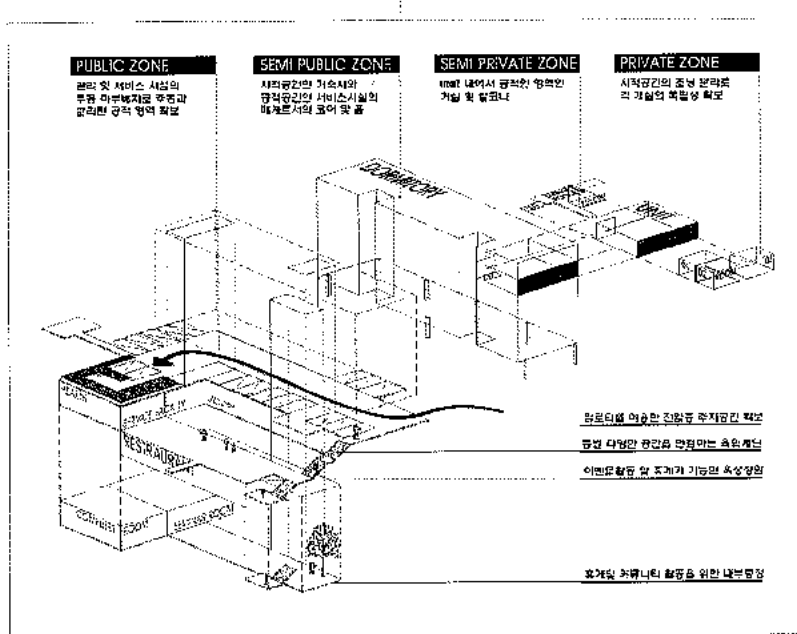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지하 2층 평면도



▶ 우수작 / (주)유신건축건축사사무소(김지덕 · 황헌명)

대지위치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연건 캠퍼스내
대지면적	98,719.40㎡
건축면적	822.73㎡
연면적	3,497.63㎡
규모	지하 1층,지상 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17대(지하13대,지상4대-장애인주차포함)
내부마감	바닥 - T.30 화강석물갈기, T.3 비닐계바닥재 벽 - 다채무늬도료, 비닐계페인트 천장 - 암면흡음텍스, PVC 천정재 등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외부용 수성페인트, T.24 컬러복층유리 등

계획의 기본방향

계획 대지는 연건캠퍼스내 북쪽 경계에 위치한 기존 간호학과 식당 대지로 서쪽으로는 창경궁을 마주하며, 주변에는 수녀원 및 4-5층 규모의 일반 주거 시설이 인접해 있다. 또한 대지 내로는 기존의 노후한 간호대 기숙사와 교사동이 접해 있어 차량 및 사람은 기존 기숙사동 측면을 통해 진출입이 이루어진다.

인접한 주변 건물쪽의 일조 및 조망을 고려하여 4층으로, 창경궁쪽은 5층으로 계획하여 건물에 리듬감을 부여하고 주변 건물과도 조화를 이루게 계획하였다.

i) 기능성

- 각 실의 조망과 프라이버시를 확보하여 기숙사생들에게 이용의 편의성 제공.
- 일조권 확보를 위해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남향이 되도록 계획.
- 공용공간(만남의 장소)을 최대한 확보.

ii) 조형성

- 기숙사 이미지 부여
- 전체 Master Plan과 조화되는 디자인
- 협소한 대지에서 지형에 순응하는 디자인

iii) 친환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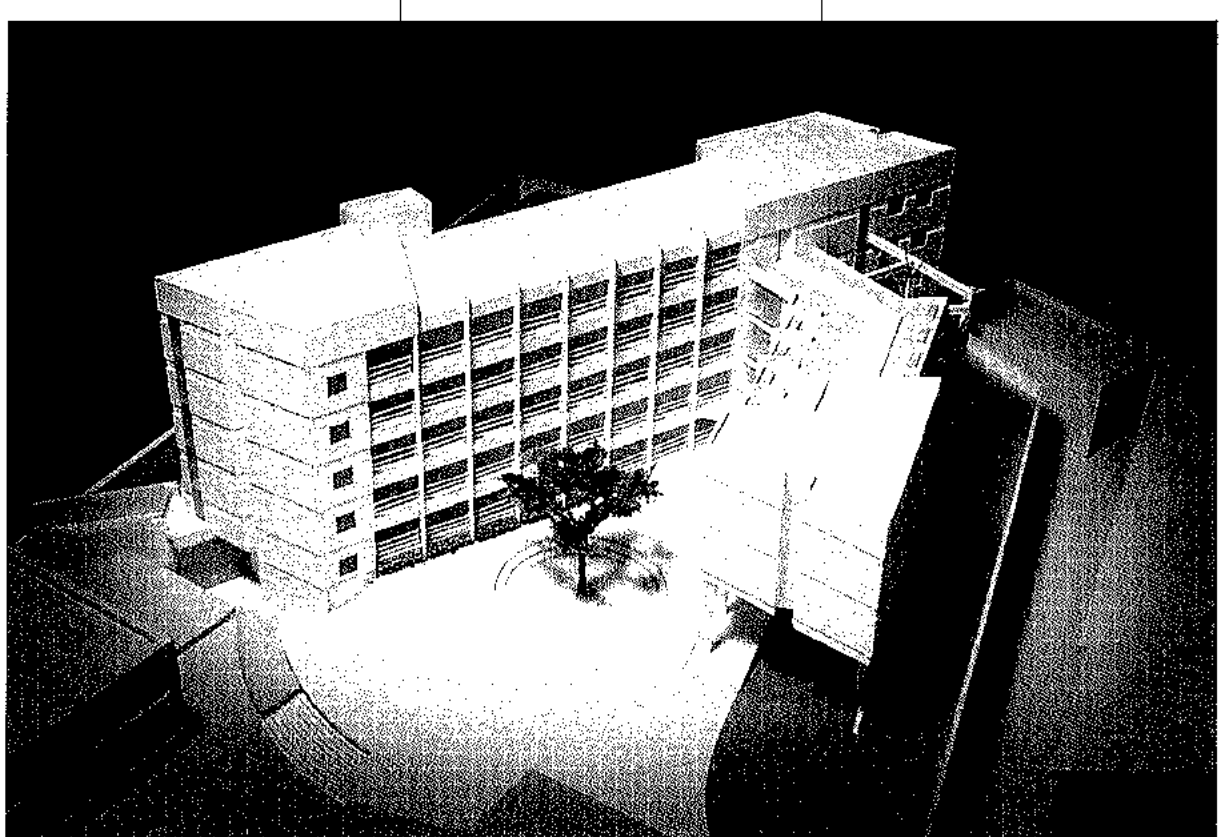
- 자연광 유입을 통한 지하공간의 개방
- 옥상정원을 설치하여 도심속의 자연을 형성
- 중앙광장을 이용하여 이벤트 장(場) 마련

배치개념

- 건물에 앞마당을 조성하여 자연스러운 진출입 동선유도
- 현존 경사지 지형을 최대한 유지하여 설계
- 기존 기숙사와 기존 간호학과 교사와의 연결부분에 가벽을 설치하여 중앙광장의 영역 구분 및 연결 (ENCLOSED OPEN SPACE 생성)
- 대부분의 주차시설을 지하로 배치하고 지상공간에는 최소한의 주차공간만을 확보하여 대지 이용을 극대화 함
- 중앙 광장 부분을 이용하여 각종 이벤트/휴식 등 외부활동의 장으로 활용

평면개념

- 기능별 ZONNING 계획에 의한 독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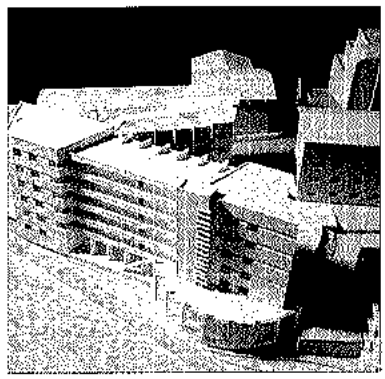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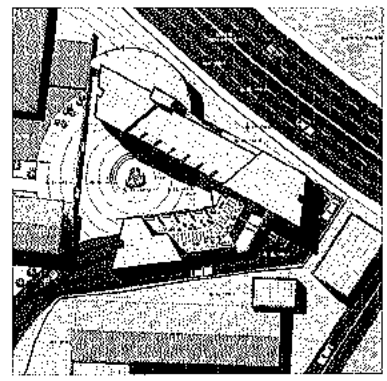
성을 확보하고 연계성을 고려하여 각 세대간 프라이버시를 확보

- 단위세대의 모든 실들을 외기에 면하도록 발코니를 계획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
- 전층을 편복도로 계획하여 채광과 환기를 내부로 유입
- 각 층별로 간이 취사실, 세탁실을 설치하여 이용자 동선을 최소화 하여 편익 도모
- 커뮤니티 시설을 중심부에 배치하여 개인공간과 공용공간의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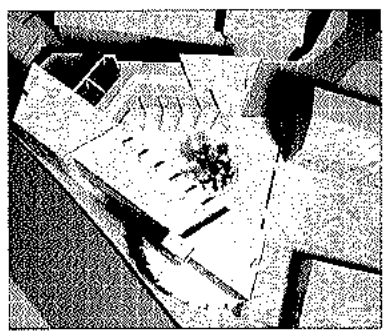
입면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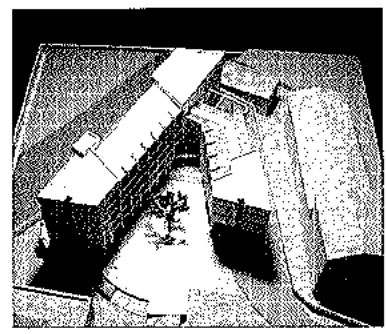
- 층별 OPEN SPACE에 의한 면의 비움 공간을 구성, 건물의 패턴에 리듬감 부여
- 비슷한 개실들이 만드는 단조로운 입면을 층별 공용부와 발코니 등을 이용해 다양한 표정으로 만들어 내·외 공간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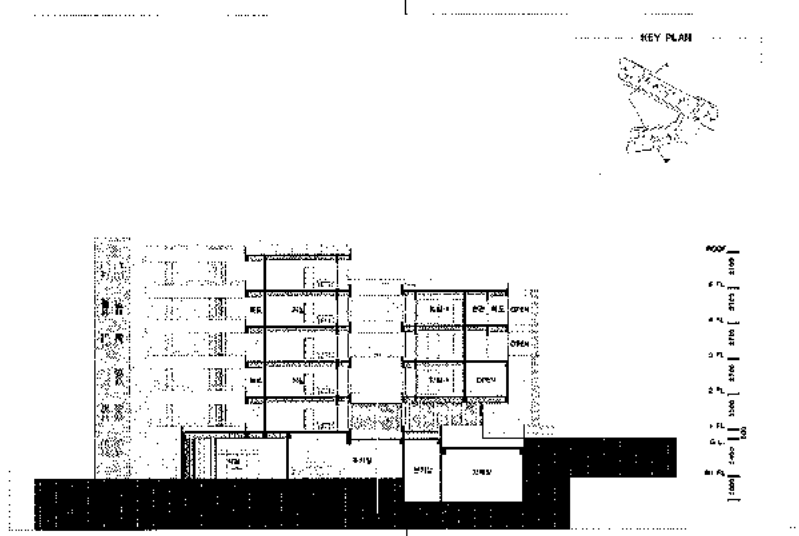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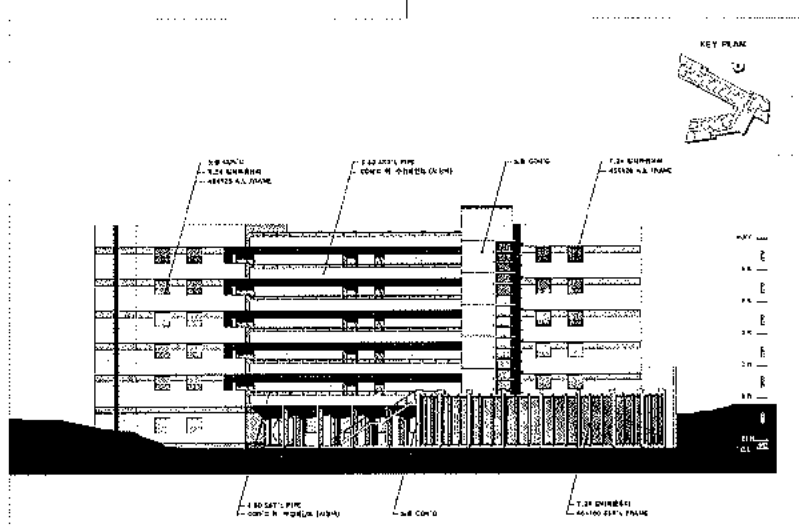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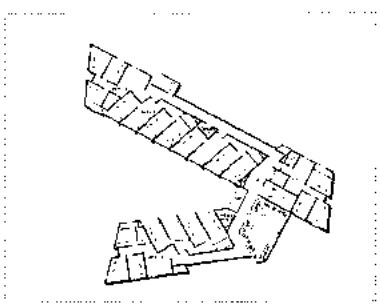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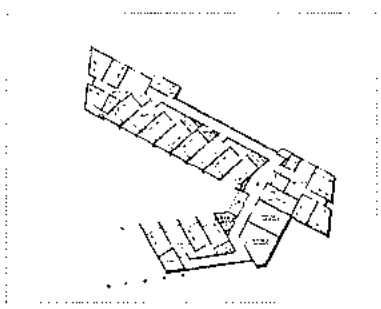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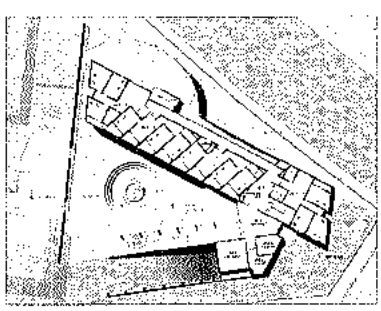
입단노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한국토지공사 충남지사

KOLAND Chungnam Branch

▶ 당선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김종국 · 이동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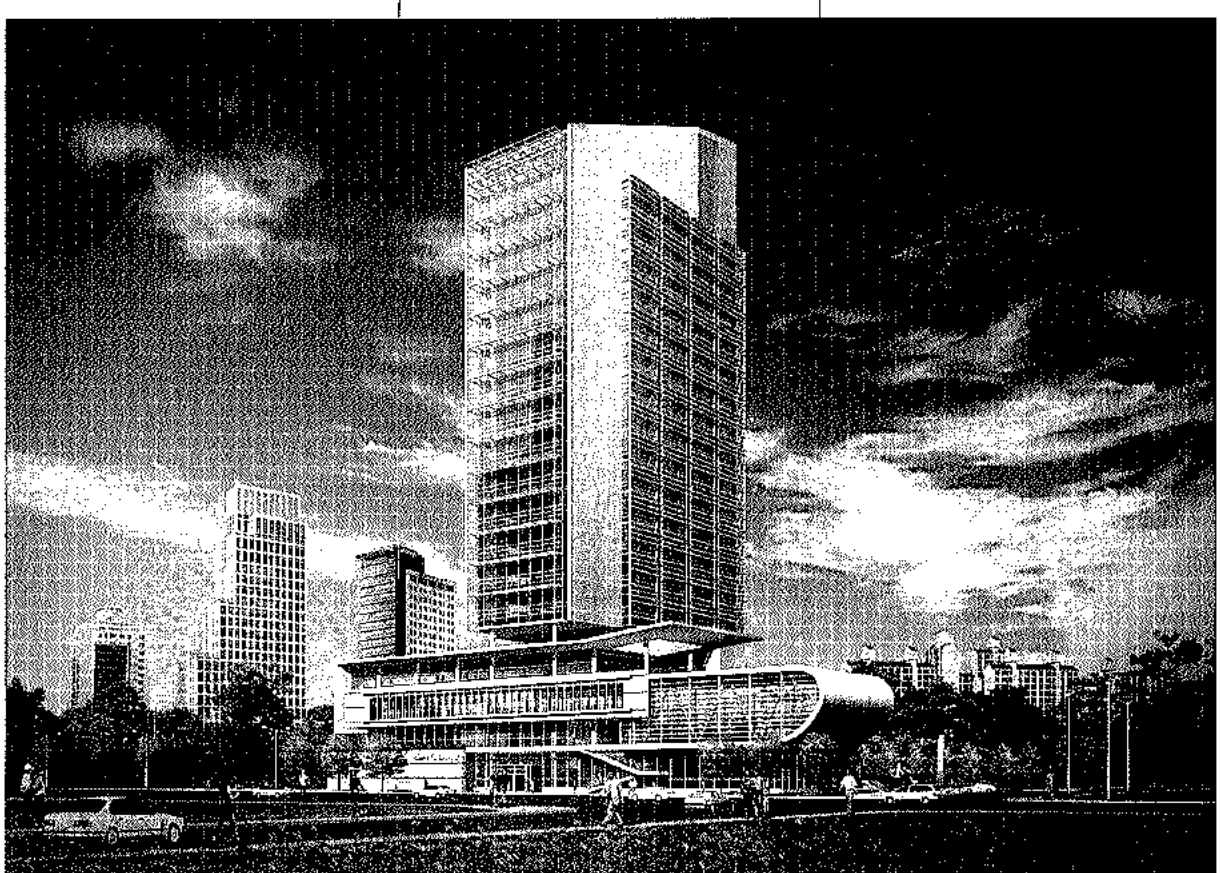
대지위치	대전 서구 둔산동 1380번지
지역지구	중심상업지역
용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5,017.90㎡
건축면적	2,365.20㎡
연면적	27,290.76㎡
건폐율	47.14%
용적률	402.81%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규모	지하 2층, 지상 19층
주차대수	151대
설계팀	김재옥, 김광민, 박창국, 장영호, 이재현, 박혜리

대전시 서구 둔산동은 격자구조의 불럭개발이라는 일반적인 신도시적 성격 이외에도 중앙축을 중심으로 행정시설과 도심녹지가 밀집되어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들 사이에는 명확한 도시적 질서가 존재한다.

정부대전청사(사면대칭의 강한 상징성)와 대전시청(정면대칭)은 상부위계를 가지며 강한 중심녹도축(남북방향)을 이루고 있고 그 주변에는 하부위계의 공공시설물들(서구청, 검찰청, 법원, 등)이 모두 일정한 양상으로 '동서장방형의 볼륨'과 '남측면의 오픈스페이스'를 형성함으로서 중심축으로 흘러들어가는 세부가로에 대한 정면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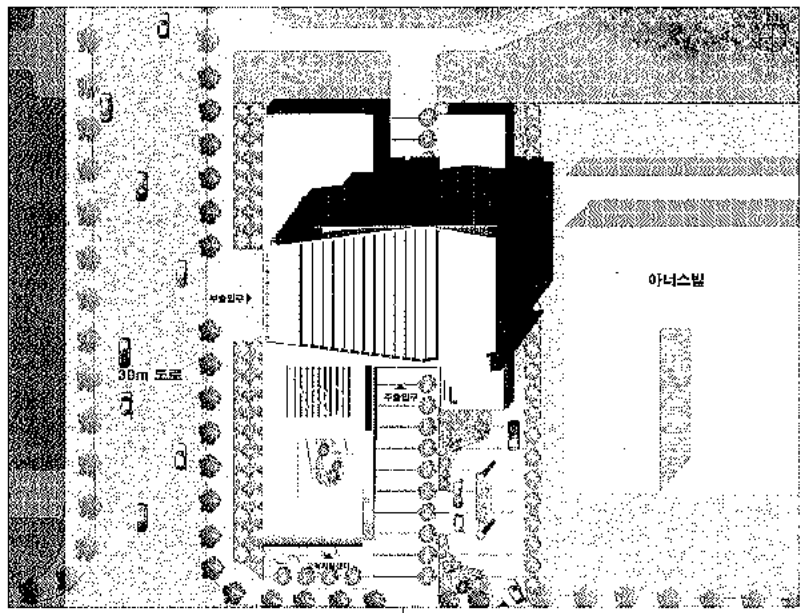
계획대지 또한 이와 같은 양상으로, 기존의 도시구조가 갖는 맥락에 부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남측전면의 공지를 통해 주 진입을 유도하고 동서장방형으로 상징성을 강조하는 메인매스를 계획하였다. 이는 동측으로 인접한 '아너스빌'과의 관계에서도 조화로운 매스대응이 가능하다. 아너스빌의 후면측벽쪽(동측)으로 코어부를 계획하여 3면개방형(남, 서, 북측)의 오픈플랜을 형성하면서, 아너스빌의 서측 녹도에 대한 조망을 가로막지 않았으며 서로간의 프라이버시 충돌을 피했다.

남측의 검찰청과 법원으로부터의 보행흐름은 계획대지의 저층부를 지나 북측의 근린공원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저층부는 이러한 보행흐름에 대응하여 두개의 매스로 나뉜다. 저층부는 실질적인 공사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고객지원종합센터, 은행, 다목적강당 및 회의실, 실내체육시설, 직원식당 등) 서측의 공공조경에 근접시켜 도심녹도의 흐름에 맞게 계획되었고, 서브저층부는 공원으로의 통과동선상에서 보행자에 대한 어메니티를 제공해준다.(휴게데크, 까페, 옥외체육시설 등) 또한, 토지공사의 사무공간은 수직적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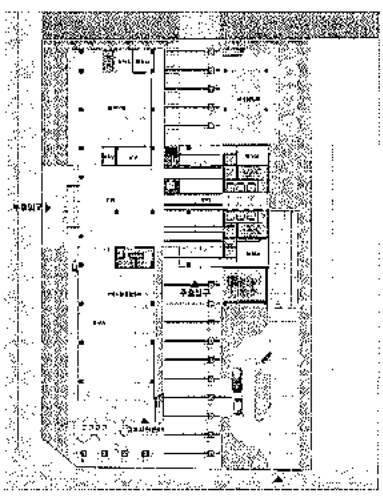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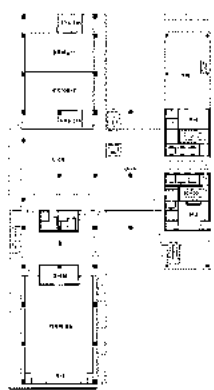
성을 고려하여 타워부의 최하단부에 계획하였다.

두개로 나뉘어진 저층부 사이로 후면공원의 풍경이 투과되어지는 시퀀스의 연출은 새로운 경관을 창조해내는 토지공사의 친환경적 기업이미지를 상징하였으며, 대민복지기능을 강조한 프로그램 규정(다목적강당, 실내체육시설, 까페, 휴게데크 등)으로 공사의 권위적 이미지를 탈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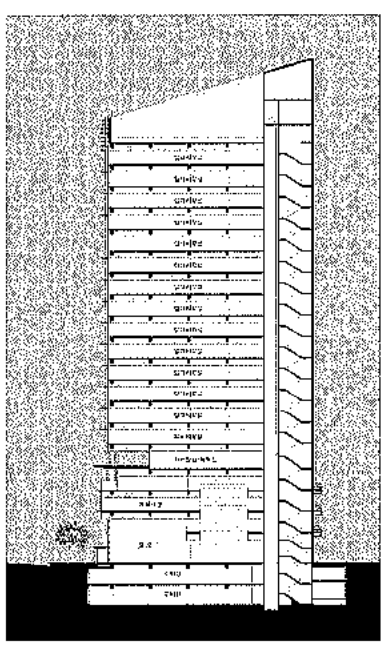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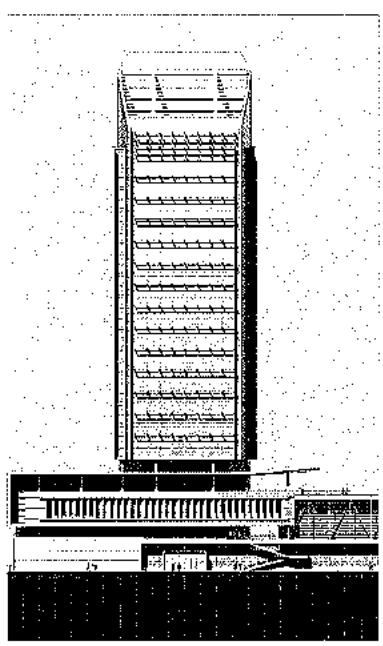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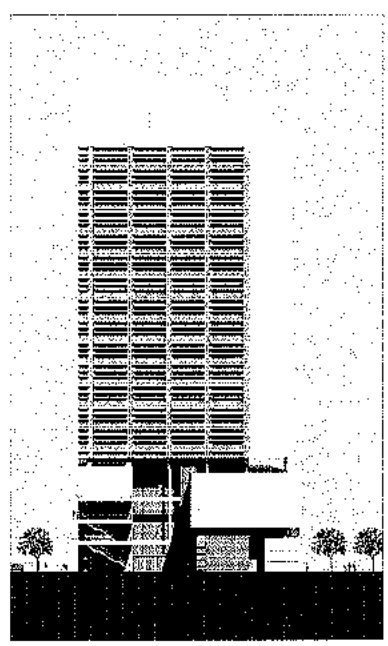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횡단면도


서측면도


북측면도

▶ 우수작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담(김동술 · 정봉원)

대지위치	대전 서구 둔산동 1380번지
지역지구	중심상업지역, 최저고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5,017.9㎡
건축면적	2,323.55㎡
연면적	28,433.33㎡
건폐율	46.31%
용적률	357.12%
구조	철골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규모	지하 3층, 지상 18층
주차대수	260대

계획대지는 대전의 신시가지 행정, 업무지역의 중심에 위치하며,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계획지구 내 양호한 입지 여건으로 확인되었다.

계획에 앞서 크게 두 가지 측면의 접근을 검토하였는데

첫째, 21세기 미래지향적 토지공사이미지-상징성- 와 임대사무소의 복합적 기능이 조화된 모델의 제안

둘째, "도시적 맥락에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기"

특히 인접된 동측 기존 건축물, 서, 북측의 흐릿한 공원 조망 등이 개념 설정의 주요한 인자로 작용하였다.

디자인 전개과정에서 토지공사의 특성에 대응한 층별 프로그램이 설정되고, 인접 조망에 대한 배려로서 저층부와 고층부 매스(mass)가 결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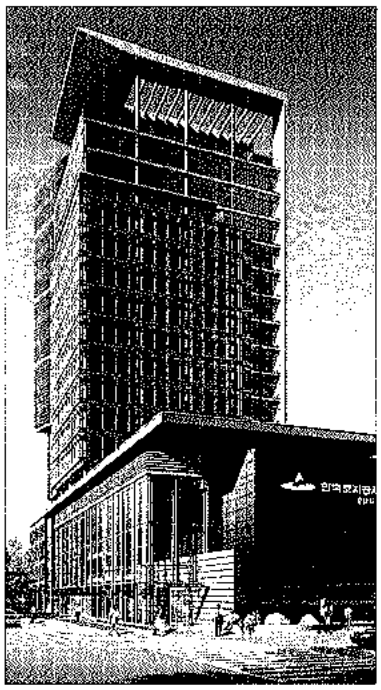
전시실, 다목적 강당, 고객 지원 센터 등, 대민서비스 기능이 강조되는 부분은 접근이 용이한 1,2층에, 업무기능이 강화된 지사사무실 기능은 3,4층에 배치하되, 이러한 공간이 아뜨리움을 통해 하나로 인식되도록 저층부를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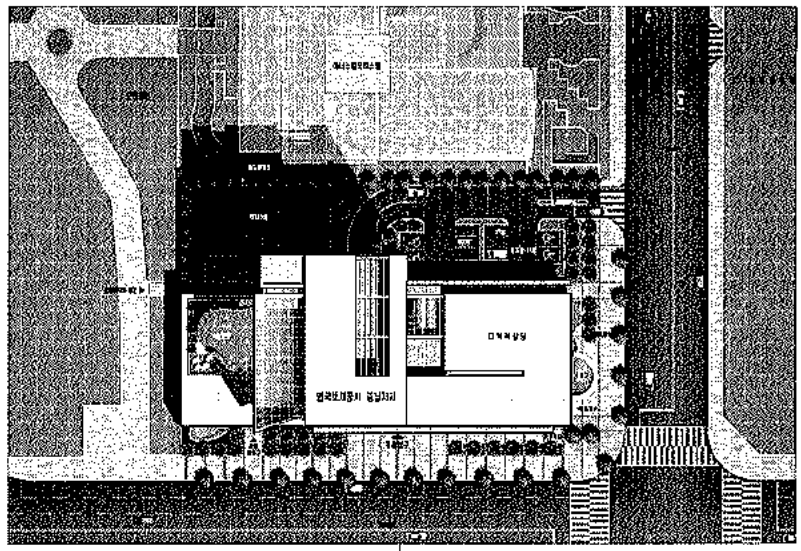
5~17층 고층부 임대오피스 매스는 인접 건물의 조망을 해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하되 서, 북측 조망과 다양한 임대방식의 대응 및 에너지환경을 고려하여 중심 코아를 채택하였다.

18층 스카이라운지는 입주사들의 커뮤니티 장소 및 일상의 업무에서 잠시나마 일탈하면서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되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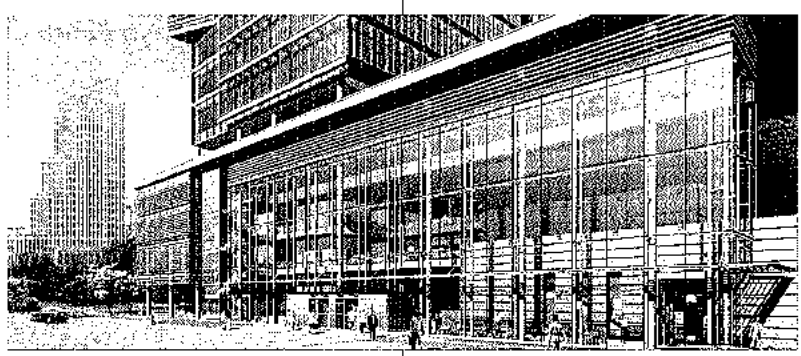
디자인 요소로서 저층부는 안정감과 개방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VOID를 통한 SOLID, 즉 외부 유리창 너머 내부 공간이 인지되는 연출과 함께 수평적 요소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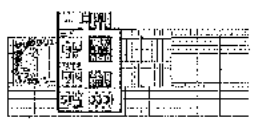
고층부는 외부로 열린조망을 위하여 커튼월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서,북측의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더블스킨 (Double-Skin) 외피와 실내온실을 3개층마다 설치하여 그린빌딩의 이미지와 함께 사무실 환경개선의 의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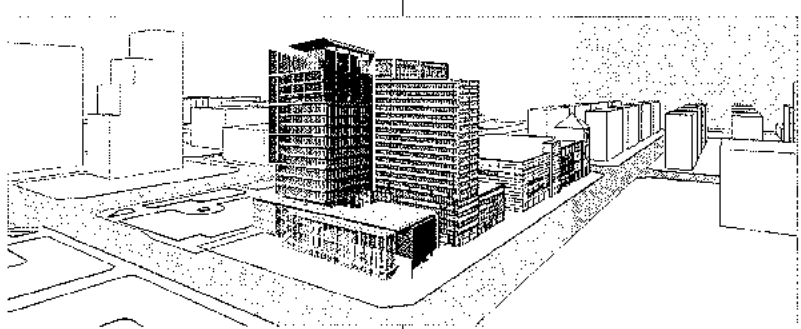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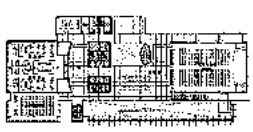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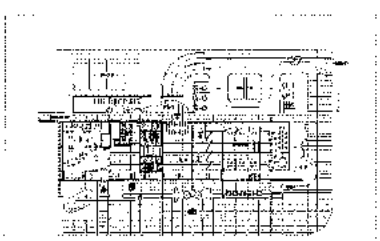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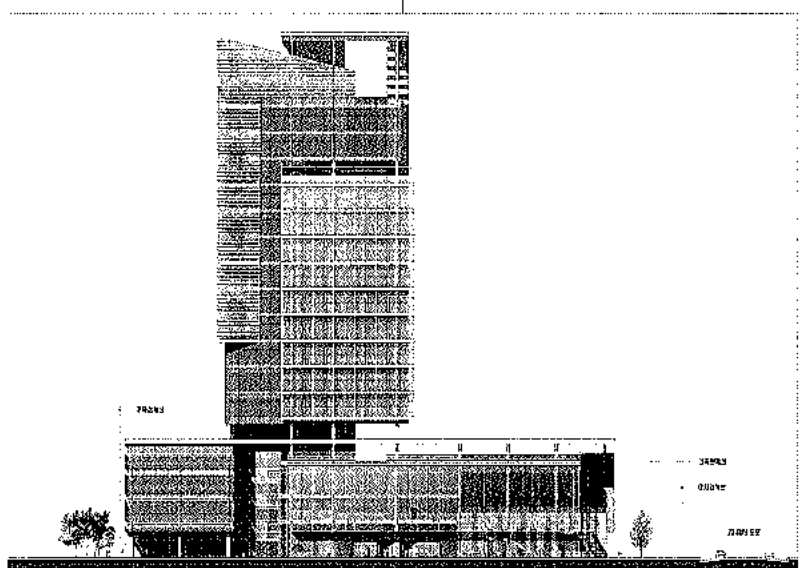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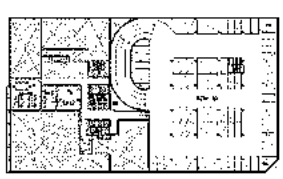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서측면도



지하 1층 평면도

한국토지공사 전남지사

KOLAND Jeonnam Branch

▶ 당선작 / (주)희림종합건축사 사무소(이영희 · 정영균)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08-2번지
지역지구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상세계획구역
대지면적	6,612.3㎡
건축면적	1,978㎡
연면적	22,946㎡
조경면적	1,083㎡(대지면적의 16.39%) - 법정 15%
건폐율	29.92%(법정70%이하)
용적률	264.9%(법정900%이하)
구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주차대수	총 145대(장애인주차 5대포함) - 법정 126대
설비개요	열원-방축열+증기보일러+지역난방, 공조 : AHU+FCU
설계팀	이목운(총괄), 박규용, 송광욱, 김민정, 최문영, 김태환

이번 한국토지공사 전남사옥 현상설계는 도시미관과 토지공사의 상징성을 고려하고 현대적이고 창의적인 공간계획을 목표로 빛고을 광주를 대표하는 첨단 사무공간으로서, 토지공사의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시설로 계획되었다.

주변현황

계획대지는 상무택지개발지구내 상세계획구역으로서 차량진출입구간과 공공공지, 공공조경공간이 지정되어있으며, 대지의 서측은 도시중심부를 동측은 5 · 18기념공원을 비롯한 자연공간을 접하고 있다.

배치계획

서측 도시공간과 동측 자연공간을 연결하는 축을 설정하여 그에 따라 건축물을 배치함으로써 자연과 경관을 건축요소로 도입하였고, 잔디이벤트광장과 송림원, 농구장을 통해 반도시 · 반자연의 공간을 형성해 줌으로서 '인간중심의 도시공간창조'와 '풍요로운 삶'이라는 토지공사의 기업이념을 함축하여 건축적 언어로서 재해석하였다.

평면계획

사무공간과 복리후생공간이 독자적인 동선체계를 갖는 동시에 아트리움을 통해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 되도록 하였으며, 사무공간의 쾌적성과 에너지절감을 위해 사무공간을 남향 배치하였고, 중심형 코아를 적용하여 가변성 및 융통성을 갖춘 오픈형 무주평면공간으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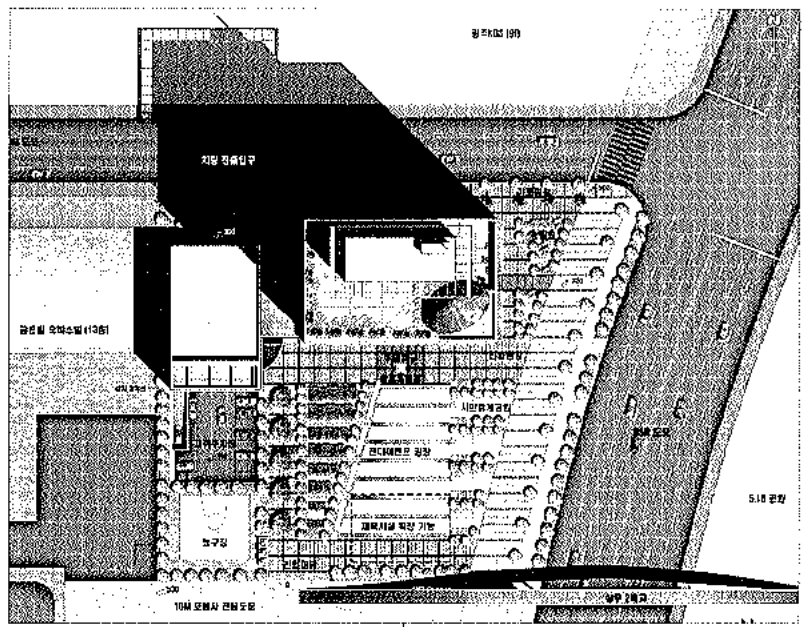
입면계획

토지공사의 '미래성'을 상징하도록 수직성을 강조하였으며, 투명한 유리소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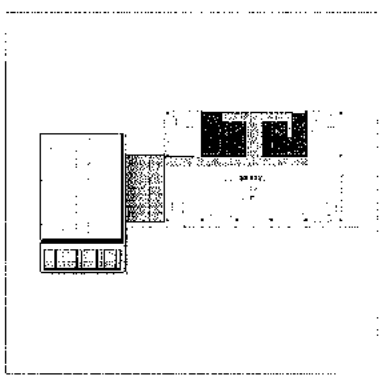
통해 매스감을 완화함과 동시에 '빛고을 광주' 이미지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목재 루버와 그릴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입면에 친환경 이미지를 부여하였으며, 식당으로 사용되는 최상층은 조형적인 매스를 도입하여 시각적인 응집력을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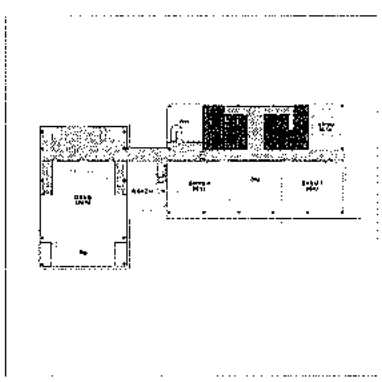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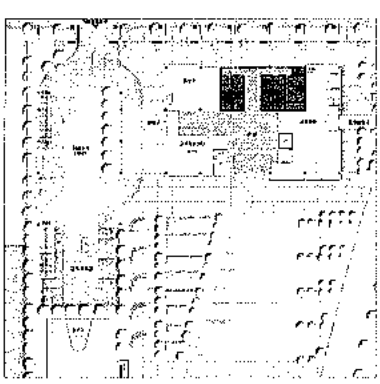
다목적홀, 복리후생시설 등의 특수 기능실은 별동으로 처리하여 각각의 고유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층고로 단면을 설정하였으며, 지사공간과 임대사무공간간의 수직적 분리와 유사 기능간의 수평적 연계가 명확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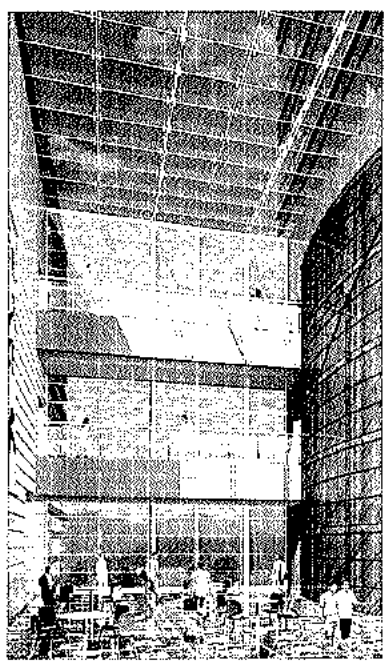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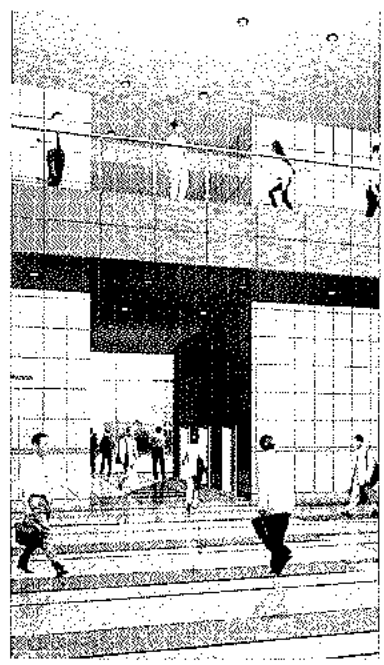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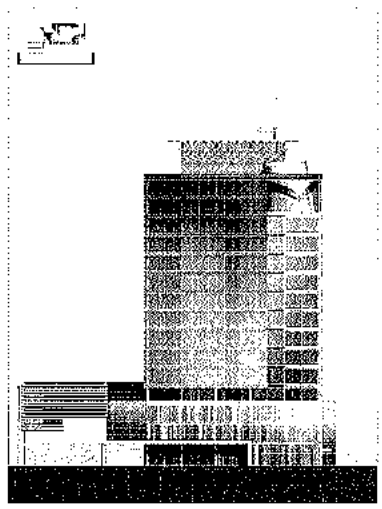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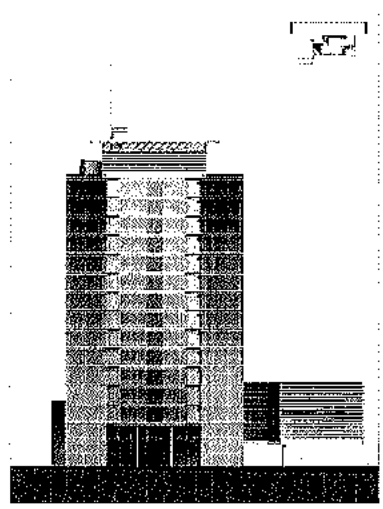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남측면도


북측면도

임실청소년수련관

Imsil Youth Training Center

▶ 당선작 / (주)라인건축사사무소 (김남중)

대지위치	전북 임실군 관촌면 덕천리 517 번지 일원(사선대 관광지내)
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대지면적	8,073㎡
건축면적	2,004.10㎡
연면적	3,347.12㎡
건폐율	24.82%
용적률	39.12%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철골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외장	시멘트압출 성형판, 화강석, 그라스커튼월

사선대의 유래는 네명의 신선과 네명의 선녀가 경치와 물에 취해 유람했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다. 이 곳은 임실군내에서 손꼽히는 명승지로서 사시사철 상춘객과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다.

관광단지내에 현재로는 유일하게 들어설 인공건조물로서 이 건축물은 사방이 낮은 송림산(松林山)으로 둘러싸여 있고 산 밑으로 오원천(烏院川)이 흐르고 그 앞에 분지형식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가급적이면 공원의 일부가 되어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최대한 주변의 환경과 융화되면서 절제된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지방의 청소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임실군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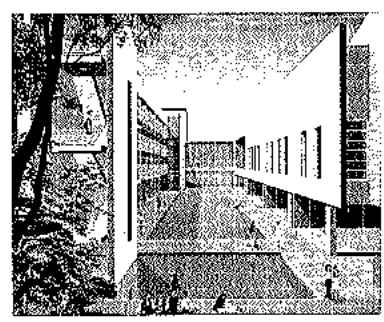
위치적으로도 전주, 완주, 임실을 연계할 수 있는 곳이고, 전주에서 남원가는 국도변에 위치하여 시설의 활용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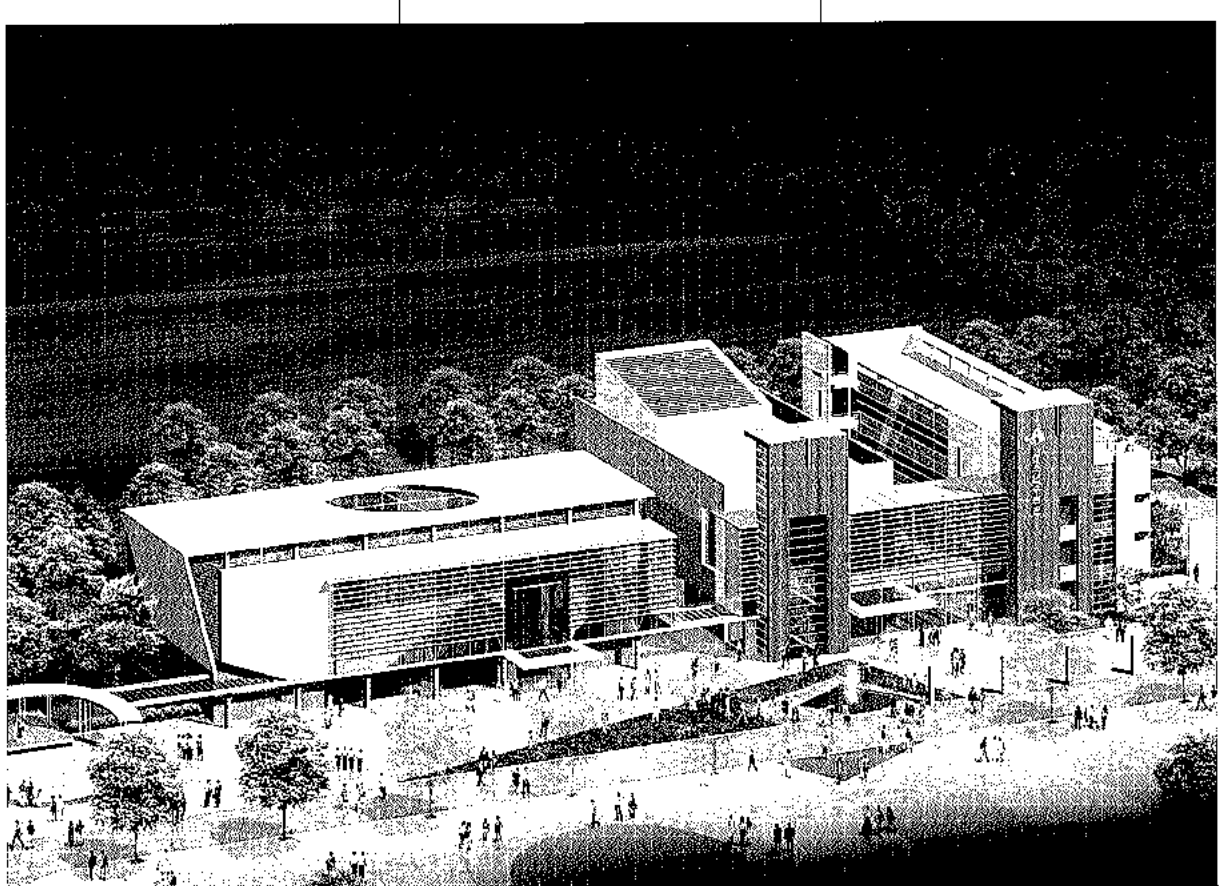
공원시설과 잘 어울리게 배려한 옥외공간은 마당과 소공연장, 옥외전시장을 통한 자연스러운 진입을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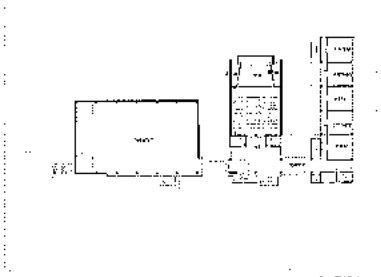
건물 덩어리는 세개로 나누어 기능적으로 분리하였고, 수평적 덩어리 계획을 하였다. 실내 공간은 서비스 공간과 다목적 강당을 중심으로 우측에 동아리실, 취미교실을 배치하고, 좌측으로 체육관을 배치하여 각 덩어리간의 연결통로를 통하여 동선을 유도하였다.

각 단위공간들은 수직 수평 동선으로 연속되어 청소년들로 하여금 밝음과 어두움, 막힘과 열림의 다양한 공간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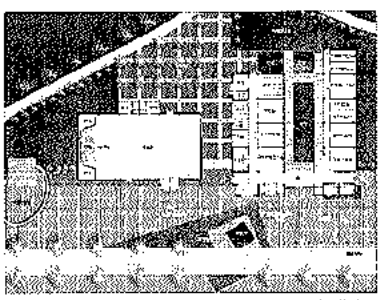
바램이 있다면 처음 계획대로 나중도 그러했으면 하는 것과 이곳에서 수련하는 청소년들이 전설의 신선과 선녀 같은 맘으로 수련하길 바래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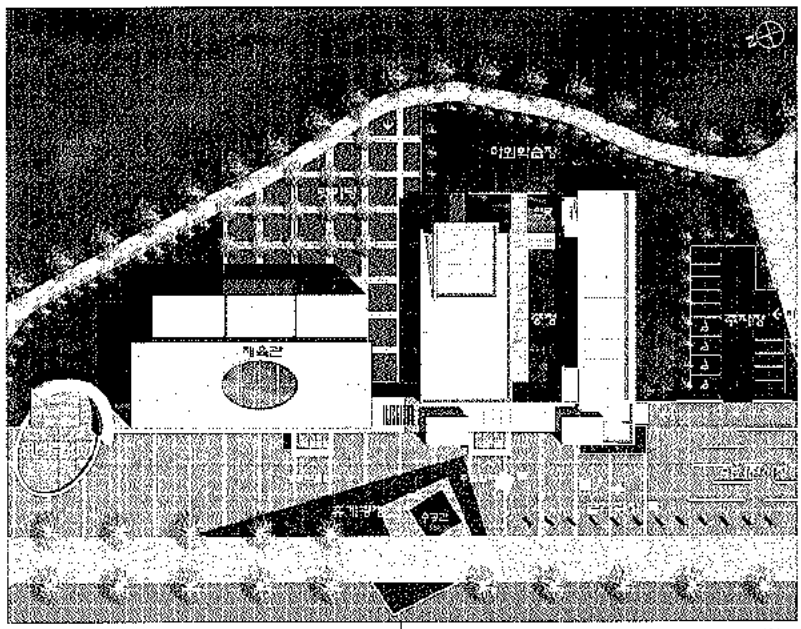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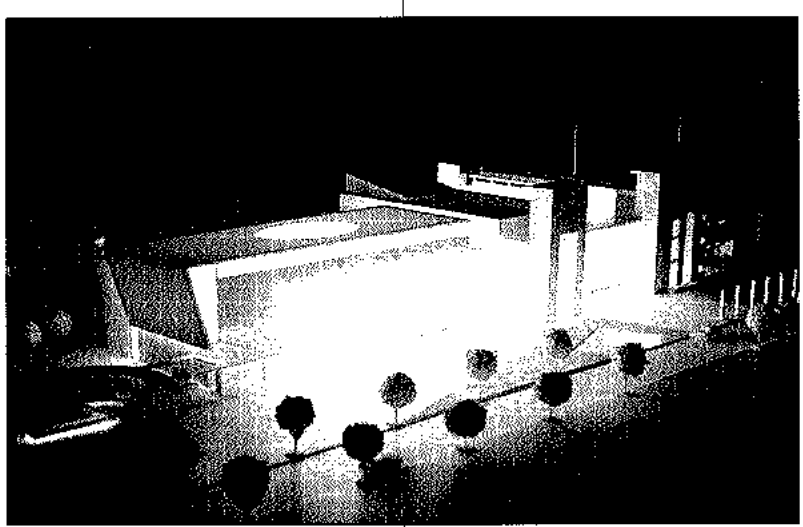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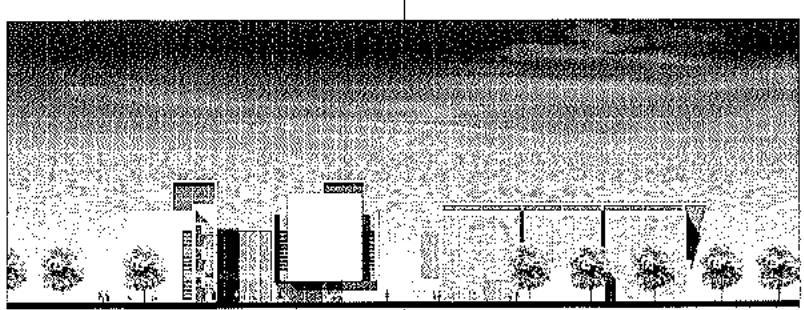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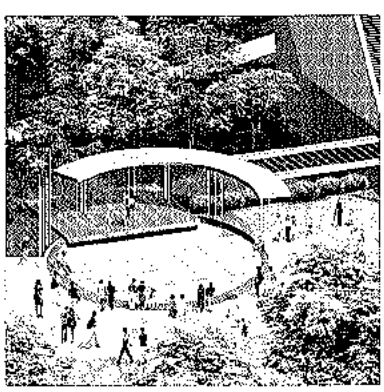


배치도





배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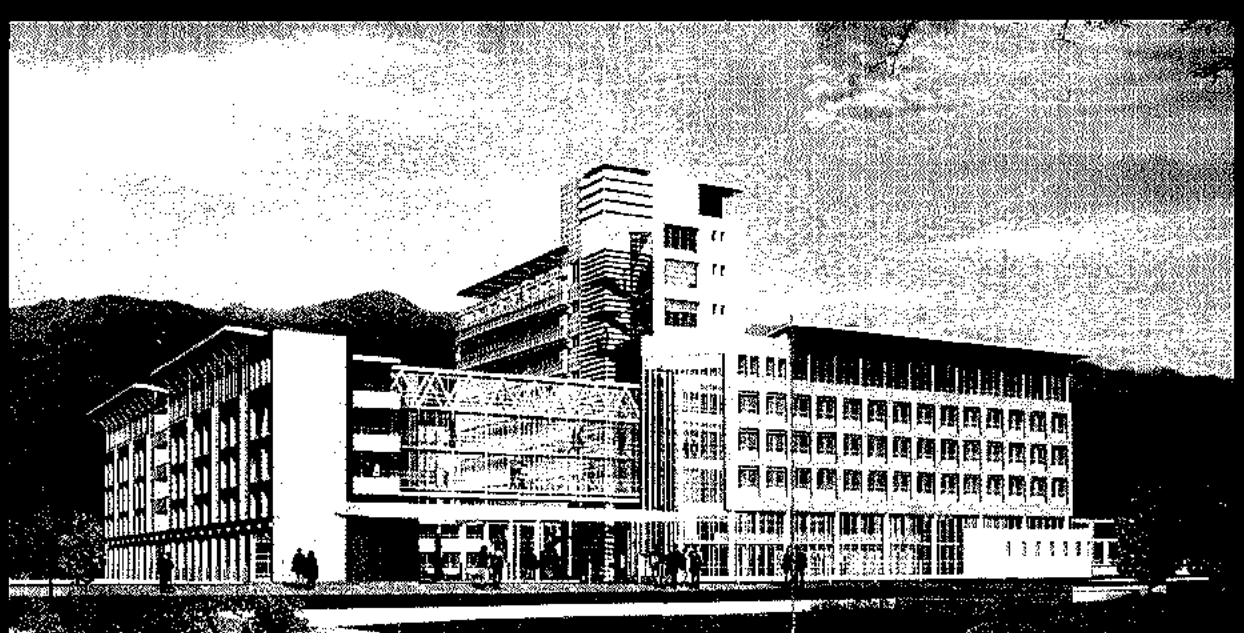
금오공과대학교 제3대학

Kumoh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The 3rd College Building

서기영 / 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Suh Ki-Young

금오공과대학은 구미 시내에 있는 현재의 캠퍼스를 교외로 이전하기 위하여 시내를 벗어난 야트막한 야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장소에 신캠퍼스를 건설 중에 있다. 제3대학건물은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제1대학, 제2대학, 도서관 및 학생회관에 이어 네 번째 턴키현상으로 진행된 연면적 약 8000평 규모의 프로젝트이다. 두 개의 학부와 대학본부의 기능을 일부 수용하도록 되어있다.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당시의 조금은 긴장되고 다소 당혹스럽기도 했던 묘한 기분을 지금도 기억한다. 금오공대 제3대학은 그룹원 설계사무소와 공동으로 작업한 두 번째 작품으로 그 얼마 전 그룹원 내에 새로이 조직된 설계팀을 이끌고 처음으로 일떨결에 참여했던 것이 "한라대학교 기숙사 현상설계"이며, 여기에서 당선된 것이 이 팀에 있어서는 그때까지의 유일한 실적이었던 것이다. 우리 나름으로는 우수한 멤버들로 설계팀을 짜고, 훌륭한 분들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여러 참여자들간의 의견조율방법과 설계진행의 독특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남다른 모습을 갖추고자 제법 애썼으나 그 시점에 턴키현상에 뛰어든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무리한 일인 것만 같았고, 참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끈질긴 노력과 우여곡절 끝에 다소의 운도 작용하여 이 신생팀이 국내 메이저급 설계사무소들과 어깨를 나란히 턴키현상에서 경합을 벌이게 된 것이다.



턴키의 특성상 유명세나 이렇다 할 실적이 없었던 우리들로서는 현상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기적적인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되었다. 일반 현상과는 달리 턴키에 있어서는 설계사무소의 역할이 전체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시공사로서는 파트너가 될 설계사무소를 정하는 것이 당락을 좌우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계팀이 느끼는 책임감과 부담은 일반 현상보다 훨씬 크다고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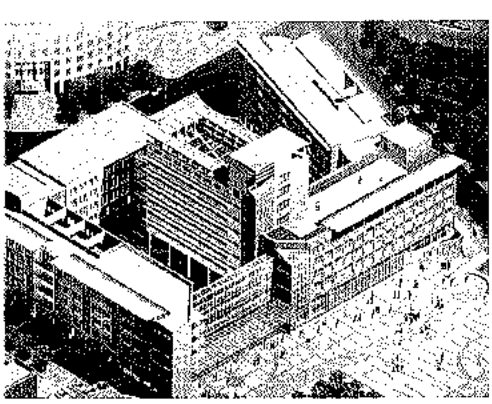
많은 것을 새로 배워야 했고, 경험부족에서 오는 이런 저런 실수도 많았지만 진행과정 도처에서 익숙지 못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궁리해야 했고, 매번 우리들로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만 했던 점은 참신함에 있어서 오히려 타성에 빠지기 쉬운 경험이 풍부한 팀들 보다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 같기도 하다. 근소한 차이이기는 했지만 시공사와 힘을 합쳐 경쟁 상대를 물리치고 당선되었을 때 우리는 다 같이 또 한번 정말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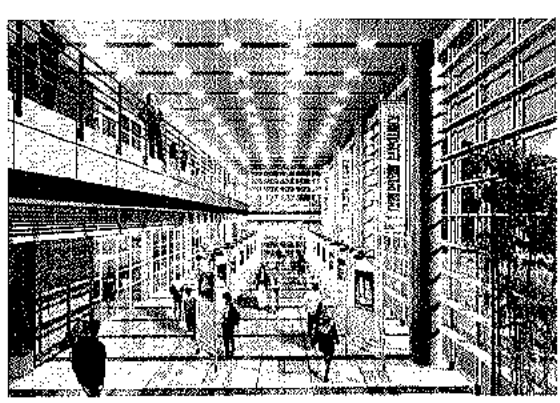
제3대학 설계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주어진 부지의 위치는 썩 흡족하다고 만은 할 수 없는 캠퍼스 마스터플랜에 의하여(대학 당국의 담당자들도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정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캠퍼스 외곽순환도로 내 제일 높은 곳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진입 방향뿐만 아니라 후방과 측면에서도 후문, 기숙사, 대운동장으로부터의 동선이 집결되는 동선 처리가 매우 까다로운 장소이다. 또한 3면이 주요 도로에 면하여 있고, 나머지 한 면은 주진입 방향을 향하고 있으므로 해서 4면 모두 비슷한 정도의 정면성을 요구하므로 어느 한 방향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독특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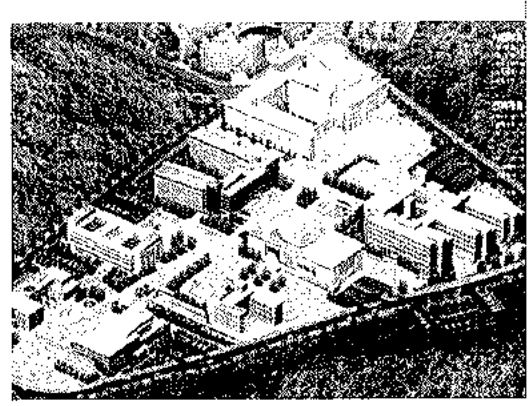
배치개념은 "토목환경 및 건축공학부"와 "신소재 시스템 공학부"(전공의 명칭조차 절대로 양보하는 일이 없는 대학들의 흥미로운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대목이다)를 각기 독립적으로 분리수용하고, 후방으로부터 캠퍼스 중심으로 이어지는 중정을 통한 대각선 동선을 마련하기 위하여 "ㄴ"과 "ㄱ"의 두 mass가 합쳐진, 벌어진 "ㅁ"자형 배치를 취하였고, 여기에 두 학부의 공동시설들을 중앙에 타워 형태로 끼워 두 윙을 연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ㄹ"자형 배치를 하게 되었다. 타워부분은 피로티로 띄워 지상레벨에 중정을 확보하였고, 이 부분에 야외무대, 연못, 선큰가든, 조경 등의 적극적인 처리를 가해 캠퍼스 전체적으로 부족한 외부공간의 만회를 시도하였다. - 지금까지 몇 몇 건물들이 구체적으로 설계되면서 차츰 개선되어 가고 있기는 하나 현재의 캠퍼스 마스터플랜상에는 전체적으로 외부공간에 대한 배려가 매우 결여되어 있으며, 특히 구심점이 되는 중심적 외부공간의 부재는 중대한 결함으로 지적될 만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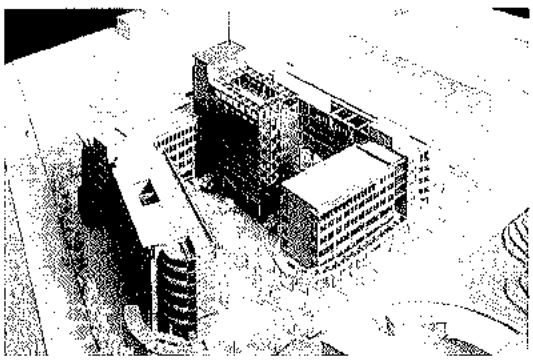
외관 디자인에 있어서 건물의 저층부는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주변 콘텍스트에 조화되는 분위기를 갖도록 하였으나 타워부분만큼은 모든 곳에서 올려다 보이는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특성을 살려 높이를 강조하고 눈에 뜨이는 모습으로 캠퍼스를 대표하는 상징적 역할을 맡게 하였다. 아울러 높은 부분에 옥상정원, 교강사휴게실 등 적절한 시설들을 배치하여 후방으로 낙동강이 넘겨다 보이는 장점을 활용토록 하였다. 이 부분의 높이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높이고 싶었으나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 어중간한 높이가 되고만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타워부분의 특징적인 이미지를 위하여 재료 및 형태를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자극적인 High-Tech성향의 디자인으로 하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경제적인 측면, 유지관리의 문제 등 학교건물이라는 실정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들의 압박에 의해 어느 정도 선에서 현재와 같이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미련이 남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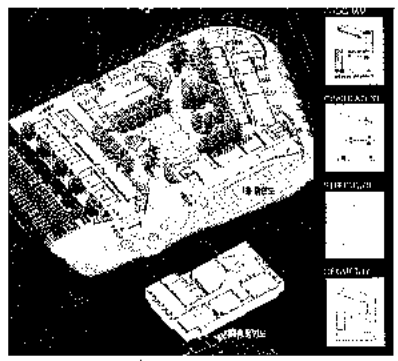
평면계획에 있어서는 각각의 기능과 여러 사용자 집단간의 적절한 연계 및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시도하였고, 전공별로 실험실, 교수실, 대학원연구실간의 상대적인 위치를 달리하는 등 실제 이용자들의 요구를 가능한 한 수용하기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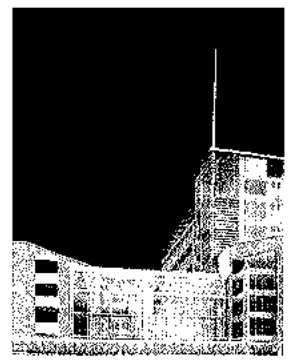












정보수집, 사례연구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그밖에 휴게공간, 여유공간 등을 넉넉히 확보하면서 미래의 내부기능 변화, 규모확장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하고자 애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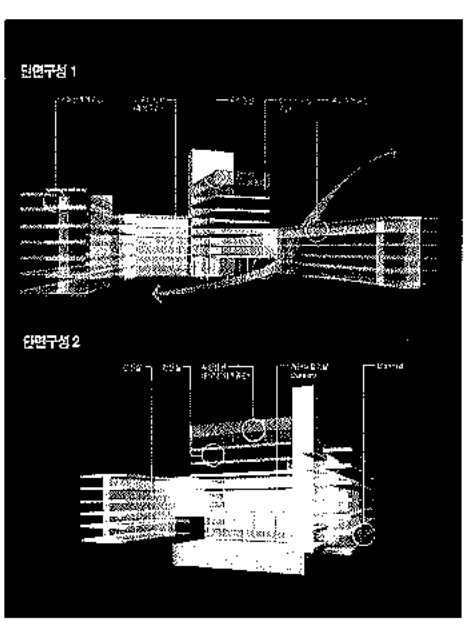
이 프로젝트가 턴키에 참여했던 첫 번째 작품이었던 만큼 기억에 남는 부분도 많고 그 후 우리들의 행보에 영향을 끼친 점도 많다. 만약에 실패하였더라면 지금의 설계팀이 아직까지 존재하지 못하였을는지도 모르지만 다행히 당선이 되어 모두들 용기를 가지고 다음 기회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것도 사실이다. 새 설계팀을 가동한지 2년여의 짧은 기간동안 다수의 현상설계와 턴키에 참여하여 꽤 좋은 성적을 올리며 높은 승률을 쌓아 이제는 턴키에 있어서도 지명도가 없지만은 않은 설계팀으로 위상이 끌어 올려진 것은 사실이지만 턴키 현상을 할 때면 언제나 현실성에 지나치게 얽매이고 건축외적인 일들에 필요 이상으로 시달리는 그 복잡하고 어수선한 진행과정을 겪으면서 다른 설계 작업 때와는 달리 마음 한구석에 왠지 건축가로서 정도를 벗어나 외도를 하고 있는 듯한 껄끄러운 느낌을 갖게되는 것은 나만의 동떨어진 생각일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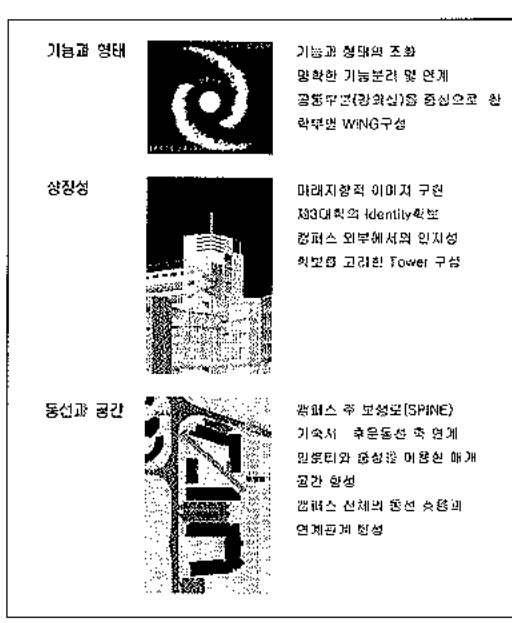
사 업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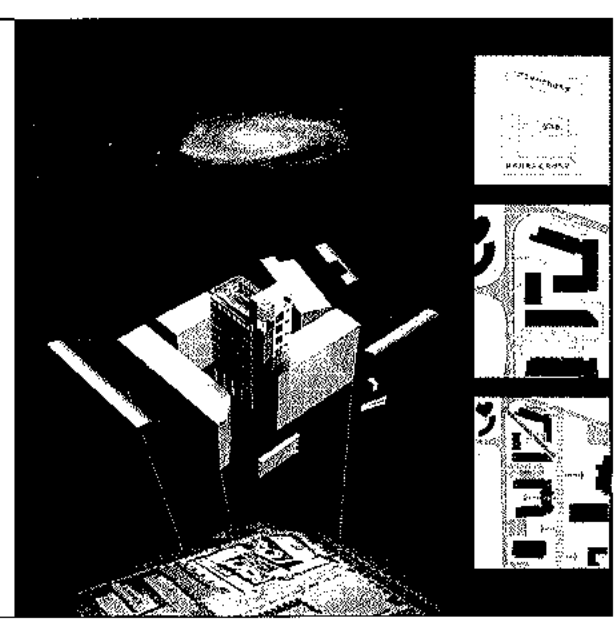
공 사 명	금오공과대학교 제3대학 신축공사
위 치	경상북도 구미시 거의동 산23번지 일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660,000.00(199.650 평)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40일

건 축 개 요

규 모	지하1층, 지상9층
건축면적	4,828.71(1,640.68 평)
연 면 적	지하 1,581.51(478.41 평) 지상 25,423.18(7,690.51 평) 계 27,004.69(8,168.92 평)
구 조	철근콘크리트 + 철골조
주요외장재	적벽돌 치장쌓기 + 알루미늄쉬트 + 투명복층유리
수용학과	2개학부 9개과 토목환경 및 건축공학부 : 4개과 신소재 시스템공학부 : 5개과
수용시설	대학본부, 강의실, 교수실, 대학원연구실, 실험실등
설계(턴키)	서기영 I·그룹원 + 현대산업개발







두가지 제안 -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Two Proposals

오섬훈 /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by Oh Seom-Hoon

9월 마지막 주에 대학동기 몇명과 청계산을 갔는데 여러 얘기 끝에 애들이 발단이 되어 평준화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학교에 대한 줄세우기를 버리고 '서로 다를 수 있음'에 주목하여 다양한 교육이 가능케 하는 평준화 정책, 특히 이해찬 1세대라는 말이 있듯이 1인 1기의 특기교육으로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이상적 목표설정, 등등…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평준화의 취지는 조금 뒤로 물러있고 사교육만 발달하고, 그러다보니 학교에서는 잘하는 애는 재미없어서, 못하는 애는 몰라서 잔다고 하듯이 학교 공교육은 다들 알 듯이 이미 죽었다! 각기 다른 능력에 맞는, 적성에 맞는 특기개발은 고사하고 수업하는 방법조차 평준화해서 아무런 성과를 못 올린다는 것이다. 한 반 내에서 여러 소그룹으로 다른 능력의 애들끼리 묶어서 가르치든지 반을 따로 편성해서 하든지,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고들 열올렸다.

일전에 공간사에서 주최하는 학생실내건축상의 주제가 'Scape'였다. 시상식 후 심사를 맡았던 교수와 나눈 얘기 중 어차피 실내건축이든 바깥건축(?)이든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인식이나 삶에 대한 사고가 바탕이 된다면 실내, 실외 구분이나 구체적 해결책보다는 문제를 인식하는 훈련이나 그 풀이과정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싶어 재미있는 주제설정이라고 느껴졌다.

비단 공모전 뿐아니라 학교내에서의 교육에서도 이와 비슷한 다양한 문제인식을 훈련시키고 다양한 시각과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교육이 많이들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 훈련은 학생들 뿐아니라 건축계에도 잠재력을 형성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잠재력은 그 여건에 따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다. Paul.J.Grillo의 말처럼 학교에서의 교육은 단지 어렴풋한 길만 제시할 뿐 나머지는 결국 졸업 후에 자기가 가는 길에 달린 것이다. 우리네의 실제 실무현장은 이러한 잠재력들을 잘 키워줄 수 있는 여건들이 얼마나 될까. 근래의 턴키나 설계경기를 보면 상위권의 계획안들은 어떤 것을 뽑아지어도 어느 정도의 질은 담보되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때는 2등, 3등은 안 지어지는데 다른 것이 나올 수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다른 안이 나올 수 있는 제도적 틀과 또 심사도 소신있게 될 수 있는 풍토도 필요한 것 같다. 어찌보면 우리네 설계경기는 좋은 안을 뽑는다지만, 여러측면에서 공정성이라는 함정에 빠지는 것 같고…, 싸아리넨처럼은 아니더라도 책임지고 소신있게 뽑을 수 있는 풍토가 이제는 조금씩 마련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만약 2, 3등을 몇 번 하는 사람에겐 일정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의계약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설계경기를 활기있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즉 꼭 당선을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정말로 근사한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는 기분으로 설계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좀더 확대해서 공상한다면 좀 다양한 건축적 색깔을 드러내고 말할 수 있는 풍토로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설계경기 못지 않게 비슷한 맥락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설계자와 감리자의 분리 문제라고 생각된다.

언제부턴가 (아마도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이후부터가 아닌가 싶다) 우리는 감리자의 위상이 높아져서 설계자와 시공자를 좋은 말로 기술지도하고 나쁜 말로는 감시하는 제도를 택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취지에 잘 맞게 감리가 진행되고 있는가? (물론 기술을 갖추고 원 취지에 맞는 감리를 하는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그런 차이 없이 말하고 있는 뉘앙스가 있는 것처럼 설계자에 대한 인식 역시 그런 차이 없이 평균적으로 취급당해서 설계 감리자가 분리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그렇다는 답이 30%도 안될 것이다. 현실은 정말 여러 가지 일 것이다. 허가를 얻어낸 그 이후는 잘 모르겠다는 상황부터 시작해서 또 후배 말처럼 감리를 따지 못해도 자선사업 하는 기분으로 공사현장에 자기 돈 들여서 뭔가 만들어 보겠다고 고군분투하는 단계까지. 이러한 여러 상황을 한가지 잣대만으로 재단한다는 것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은 우를 범할 가능성이 크다.

형식상으로 설계자가 감리 수주하는데 우위에 설 수 있는 장치중의 하나가 전차용역에서 가점을 받는 것인데, 이것도 용역비가 5억 미만인 경우는 변별력이 거의 없다. 용역비를 적어 넣은 15개 봉투에서 뽑혀 나오는 운수에 비하면 그 영향력은 거의 없다. 감리용역비의 프로젝트 성격을 보면 대형 턴키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7, 80%가 이 범위에 드는 것들인데, 이들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시공단계에서는 생색도 안 나는 자선사업에 가까운 작업을 해야한다! 그러나 뭔가를 만들어보려는 프로젝트는 거의 다 이 범주에 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나?

소위 건축가들은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전문가 그룹에 속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흔히들 의사나 변호사와 같이 견주어 보고 이리저리 재보기도 한다. 과연 전문가적 프라이드를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주어지는 일을 전문가답게 스마트하게 마무리하고 그에 걸맞는 대가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냐고 따져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짐작되는 부분이 이리저리 마구 손가락에 꼽힌다. 설계자가 시공단계에서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감리자 디자인 수행 및 발전을 위한 감리로 분리해서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방법들을 많이 이야기해 왔다. 가능성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사람들이 여러 차례 말했겠지만 다시 한번 제안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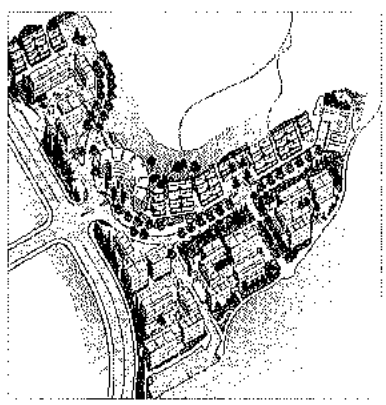
서두에서 고교평준화 얘기를 길게 한 것은 평준화 정책을 펴고 나서 학생 개개인들의 서로 다름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없어 실패하고 하향평준화 된 것처럼, 우리네 설계경기 방식이나 설계감리 분리방식이 공정성에 발목이 잡혀 더 이상의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너무 비슷해 보인다. 이제는 서로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바탕에 두고 다양한 형태의 시행방법들이 적용되어야 할 때라 생각된다.

건축계소식 / 91
해외잡지동향 / 96
세무안내 / 102

건축계소식 archi-net

제6회 대학생 주택설계공모전

최우수상에 「마을마당(조석만, 송석호)」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제6회 대학생 주택설계공모전에서 「마을마당(조석만 송석호/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하는 등 전국 83개 대학교에서 3백27점이 출품된 가운데 최종 33작품을 선정하고 지난 9월 6일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는 공동주택단지에서 거주자 상호간의 교류와 대화를 유도하여 공동체 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용인보라지구 8블럭을 대상 대지로 정하여 시행했다. 우수상은 2작품으로「Handshaking (김성환외 1인/울산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와 「논에 사는 두꺼비가 들려준 커뮤니티(오세열/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이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3백만원, 우수상은 2백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제2회 성동구건축상 공모

11월 10일까지 응모신청 접수

서울시 성동구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도시 미관을 증진하고, 우수 건축물을 선정?시상코자 제2회 성동구 건축상 응모작품을 공모한다. 2000년 9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기간중 성동구 관내에 사용 승인된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이 건축상은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 시상하며, 설계자 및 시공자에게는 표창장과 기념패를, 건축주에게는 감사장과 건물부착용 기념동판을 수여하며, 특히 수상 건축사에게는 행정처분 경감의 특전을 부여한다. 접수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성동구청 건축과에서 받는다.
(02-2290-7390~3)

산림청, 목조주택 선발대회

10월 말까지 응모접수

산림청은 주거문화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목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아름다운 목조주택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10월 5일 산림청에 따르면 목조주택 건축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2000년 이후 신축한 주거용 목조주택을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신청서를 받아 아름다운 목조주택을 선정하기로 했다. 응모는 목조주택 소유자가 신청서에 설계자의 동의를 받아 설계도서와 사진을 첨부해 산림청 목재이용과에 제출하면 된다.(042-481-4134)

(주)코스펙정보, 「건축사 사무소 경영지원시스템」 개발

(주)코스펙정보는 건축사사무소의 작업적 특성과 조직을 고려한 건축사사무소의 경영지원 기능과 설계정보 공유 및 인력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CADWAER'를 개발, 보급하고 있다. CADWARE는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과 (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 전사적지원관리시스템(ERP)"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직원들의 작업관리와 경영정보(프로젝트 진행 현황 및 인력 정보), 지식정보(법규,도서,제안), 자료정보(CD, 도면관리), 전자결제, 메일, 게시판, 고객 및 외주 업체 관리, 외주 업체와의 협업기능(파일 전달, 커뮤니케이션 가능)등의 건축사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통합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CADWARE는 웹 기반의 그룹웨어시스템으로 개발되어 있으나 "회계정보와 프로젝트 관리" 기능을 추가하면 건원건축이나 희림건축처럼 "전사적지원관리시스템(ERP)"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게 개발사측 설명이다.(02-582-5200)

건축학교육 인증관련 세미나

10월 26일 군산대에서

대한건축학회는 10월 26일(토) 군산대학교에서 추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학회는 이날 행사의 하나로 "건축학교육 인증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이 학교 종합교육관에서 갖는다. 이날 행사에서는 미국 · 영국 · 중국 등 국외 건축교육인증제도(최재필/서울대 교수, 이상헌/건국대 교수, 한동수/한양대 교수)에 대해 알아보고, 건축교육의 수요예측 조사(류전희/경기대 교수), 건축교육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조사(이선영/서울시립대교수), 건축교육인증원 설립을 위한 제안(이정근/우리건축) 등의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02-525-1841)

제9회 MBC건축 박람회

2003년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MBC문화방송이 주최하고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제9회 MBC건축박람회가 오는 2003년 2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서울무역전시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바르고 유익한 건축 및 인테리어 정보를 제공하고 업계에게는 마케팅장소 제공 및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자재전, 인테리어전, 가구전, 건축리노베이션, 전원주택전, 조명산업전, 건축공구전, DIY산업전, 부동산 분양 및 정보전으로 펼쳐진다.
문의: 02-780-0366

GSAK심포지엄2002 개최

10월 23일 경기대 서울캠퍼스에서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은 '아키텍처 앤 디지털리즘'을 주제로 GSAK심포지엄2002를 개최한다. 10월 23일(수) 오후 4시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세미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이종건(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으로, 조택연(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이철재(호서대학교 건축과 씨가 토론자로, 최진원(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공 철(케이앤씨 건축연구소), 이강헌(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씨가 발표자로 나서 토론을 펼친다.(www.cukorea.com, 02-390-5245~6)

홍익대학교 건축작품전

10월 29일부터 대학로캠퍼스에서

홍익대학교 건축학과는 홍익대학교 대학로 캠퍼스(구 디자인포장센터)에서 오는 29일(화)부터 11월1일(금)까지 제46회 홍익건축전을 개최한다. 전시내용은 4학년 졸업작품을 비롯하여 성곽도시인 서울 한양(4대문)과 수원화성의 새로운 영조를 통한 문화도시로의 전환을 기획한 3학년 공동작품 그리고 1, 2학년 작품 등이다.(02-320-1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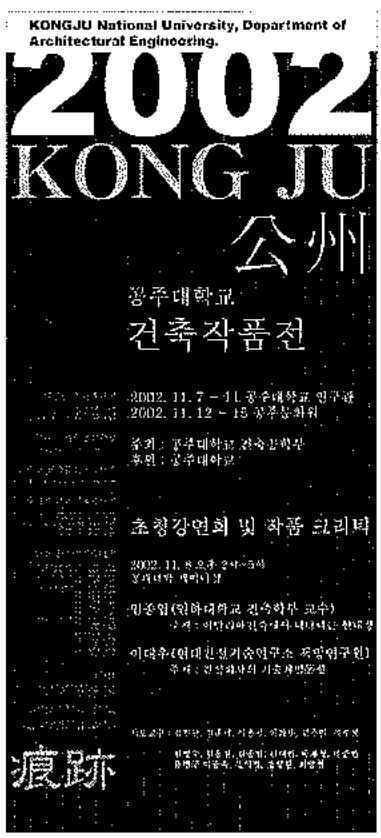
공주대학교 건축작품전

11월 7일부터

공주대학교 건축공학부가 교내 연구관과 공주시 문화원에서 작품전시회를 갖는다. 전시내용은 4학년 졸업작품을 비롯하여 국내외 공모전에서 올해 입상한

작품 그리고 3학년의 테마전과 2학년의 과제전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기간 및 장소: 2002년 11월 7일~11월 11일(교내 연구관)
  2002년 11월 11일~15일(공주시 문화원)
- 초청강연회 및 작품 크리틱
  - 임종엽(인하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탈리아건축에서 나타나는 현대성 / 2002년 11월8일 오후 2시
  - 이대우(현대건설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건설회사의 기술개발 동향 / 2002년 11월 8일 오후 4시



경원대학교 건축작품전

11월 12일부터

◇ 전시회

- 졸업작품전, 1,2,3학년 과제전, 동문 찬조작품/대학원 전
- 기간 : 2002.11.12-17(6일간)
- 장소 : 성남시 코리아 디자인센터 지하 1층 전시실 1관
- 개막식 : 2002. 11 .13 (14:00)
- 품평회: 2002. 11. 16 (10:00-)

◇ 강연회 (오기수 -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 제목 : "건축가의 길"
- 장소 : 코리아 디자인 센터 6층 컨벤션 홀 (동일 건물)
- 일시 : 2002 .11. 13 (15:00-)

규개위, 다중이용시설 피난시설 강화

지하층에 직통 계단 2개소 이상 설치토록

오는 11월부터 다중이용업소 지하층에는 직통 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영업이 가능해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심의 · 의결했다고 지난 10월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15평) 이상인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비상탈출구 설치와 관계없이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규개위는 그러나 기존 건축물(추가설치 대상 6만4천여개소)에 대한 소급적용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개선 권고했다. 아울러 복합건축물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의 출입구를 30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하고 바닥과 벽, 건축물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며 거실의 벽 등의 마감을 불연 · 준불연 재료 등으로 하도록 원안 동의했다. 규개위는 또 헬기 이착륙장인 헬리포트의 최소 기준을 길이와 너비 각각 15m 이상으로 확대토록 했다. 그러나 규개위는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거실 내부마감재료도 불연 · 준불연 재료를 사용하는 안과 소규모공장에 대한 불연재료 사용을 제외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각각 관련 법령의 선개정이 필요하고 관련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삭제토록 권고했다. 한편 이 같은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안전진단대상건물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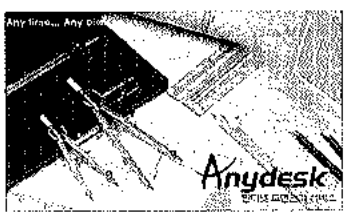
중 · 소규모 건축물에도 확대 적용

대형 건축물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안전진단을 단독주택 등 노후 중 · 소규모 주택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 · 소규모 주택의 유지 · 관리향상방안을 마련,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연말까지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뒤 개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10월 8일 밝혔다. 시는 올해 지은 지 20년이 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를 토대로 안전진단 의무화 대상 기준과 안전진단 주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가 안전진단대상을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중 · 소규모 건물의 경우 아무리 낡았더라도 소유주가 신청하지 않으면 안전진단 의무화대상에서 제외돼 지난해 8월 은평구 대조동 대조시장내 2층 상가건물 붕괴참사처럼 커다란 위험을 안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시가 대조시장 상가건물 붕괴참사이후 최근까지 시내 연면적 1천㎡ 이하 중 · 소형 건축물 16만여개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긴급 ·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D급이 132개동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시설물을 즉각 사용금지하고 개축이 필요한 상태인 E등급도 39개동으로 각각 파악되고 있다.

인터넷 도면관리 서비스 출시

www.anydesk.co.kr



인터넷만 접속되면 언제 어디서든 메인 서버에 접속하여 큰 용량의 설계도면이나 사진, 동영상 등의 자료를 저장하고, 필요시 접속하여 열람 및 수정작업 등이 가능한 인터넷 도면관리 서비스가 출시되었다. 정부가 지정한 건설 ASP 보급사 업 자 인 (주)노 아 테 크 놀 로 지(www.noat.co.kr)가 이번에 설계 및 도면제작 관리업체들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이 서비스는 첨단 데이터센터 내에 자체 개발한 도면관리 시스템을 장착하고, 최신 보안 및 백업 시스템을 통해 숙련된 운영요원들이 24시간 운영을 하는 서비스이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주요 도면 및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원하는 자료를 즉시 검색 및 재활용이 가능하고, 용량이 커서 들고 다니거나 email로 전달하기 어려운 문제 등을 해결하게 된다. 또한 사무실 내 PC의 바이러스, 장애, 화재, 도난 등의 재해로부터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PC의 자료 유실시 서버로부터 다운받아 즉시 복구가 가능하게 된다. 노아테크놀로지의 장재석 사장은 그동안 건설 PMIS를 통해 얻은 고객의 신뢰를 이 서비스를 통해 정보화 여력이 적은 국내 8천여개의 건축사무소는 물론 디자인 관련 업체의 정보화에까지 확대하기 인터넷 위해 매우 저렴한 가격에 ASP(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방식으로 출시하였고, 향후 사용자가 필요로하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업무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11월 15일까지 원서접수

◇모집학과 및 인원
- 석사과정
  - 건축설계학과 (정규과정, 기초과정) : ○○ 명
  - 실내건축설계학과 (정규과정, 기초과정) : ○○명
- 박사과정
  - 건축설계학과 : ○ 명
  - 실내건축설계학과 : ○ 명

◇지원자격
- 석사과정

  국내 · 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자(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 2년과정 : 건축 또는 실내건축설계 과목을 6과목 이상 이수한 자.
  - 3년과정 : 2년과정에 대한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 박사과정

  국내 · 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자(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구술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과 장소
- 기간 : 2002년 10월 14일(월)~11월 15일(금)

  09 : 30 ~17 : 00 (토 · 일요일 제외)
- 장소 : 건축전문대학원 교학과

◇구술 시험 일시 및 장소

2002년 11월 23일(토) 09 : 30~ , 건축전문대학원

◇합격자 발표 및 문의

2002년 11월 30일(토) 14 : 00, 건축전문대학원 교학과

(전화 02-450-3286~7

http://www.konkuk.ac.kr/~gsakku)

신 간 안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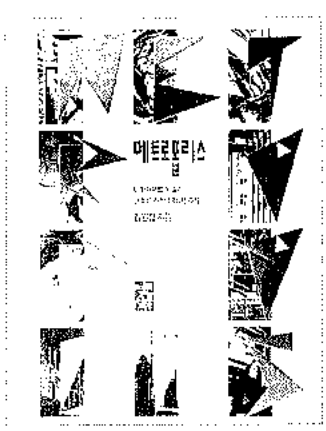
◇ 삶과 어우러진 건축과 문화 - 유럽편 2 세계 문화 기행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20여년간 사진작가로 활동한 저자의 노하우가 본문 속의 사진에 담겨 있어 잘 알려진 건축물이라도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점이다. 그리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0여 점이 넘는 사진마다 렌즈, 타임, 조리개, 필름 등 촬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해 놓았다. 또한 본문의 내용상 주요 건축물인 경우에는 설계도까지 첨부되어 있어 건축을 전공하거나 입문하는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년전 코리언북스에서 프랑스, 모나코,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바티칸, 스페인을 다룬 『세계문화기행 - 유럽편』상권을 펴낸 후 이번에 도서출판 창해에서 「삶과 어우러진 건축과 문화」라는 부제를 달고 그 하권에 해당하는 유럽편 제2권을 내놓게 되었다. 2권에는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중 · 북부 유럽을 다루었다.

임정의 지음/4×6배판변형/280쪽/1만5천원/도서출판 창해 펴냄(02-333-5678)

◇ 메트로폴리스 - 아방가르드 예술과 건축에 관한 13가지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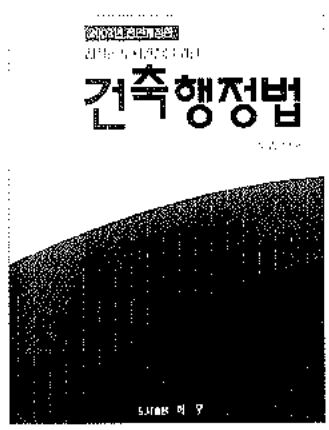
근대 예술의 폭발의 장으로서의 대도시, 메트로폴리스를 건축의 관점에서 고찰한 『메트로폴리스: 아방가르드 예술과 건축에 관한 13가지 주제』가 열린책들에서 출간됐다. 저자 김원갑교수는 서구 전위 문학 · 예술 운동에 대한 전문가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메트로폴리스의 거대한 미로 구조가 어떻게 건축가들의 무한한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낙원의 비전으로 나타났는지, 그리고 메트로폴리스가 낳은 군중의 밀집과 익명성이 어떻게 아방가르드 예술의 조건인 동시에 주제가 될 수 있었는지를 치밀하게 고찰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메트로폴리스의 개념적 배경에서 시작하여 그것을 탄생시킨 동인인 모더니티와 모더니즘, 아방가르드 등의 개념을 비교 분석하며, 메트로폴리스 내에서의 아방가르드 예술과 건축의 진행과정, 그것의 정점으로서의 마천루의 탄생과 발전과정, 건축이 진행된 두 가지의 상반되는 개념으로서의 도시주의적 과정과 반도시주의적 과정의 전개들을 보여 준다.



김원갑 지음/632쪽/2만4천원/도서출판 열린책들 펴냄(02-738-7340)

◇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한 건축행정법

이 책은 국내 최초로 건축법에 대한 법학자의 체계적 해설서로서 건축물의 건축과 긴밀히 관련되는 도시계획법도 함께 해설하고 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는 이행강제금, 건축법상의 일조권 등을 포함하여 건축법 전반을 대법원판례 해설과 함께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주석서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책은 건축법(도시계획법)이외에도 도시의 물리적 공간을 형성하는 공법규정 전반에 대한 해설서로서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재개발법 등 최근 현안이 되고있는 각종의 공법적 문제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해 준다. 사회의 집중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도시재개발사업, 아파트재건축사업은 건축법, 민사법, 행정법 등 법학의 제 분야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는 한 정확히 이해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책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또한 도시건설분야의 가장 중요한 법률인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의 2003년 통합시행에 대비하여 새로운 법률을 기준으로 도시계획법분야를 해설하고 있다.



김종보 지음/624쪽/3만원/도서출판 화우 펴냄(02-876-2246)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8-7475 · 강북구건축사회/908-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6959 · 관악구건축사회/877-49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9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87-6052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656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34-6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8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98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31-5745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9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3-2695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878-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건축사회/(031)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3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시역건축사회/(043)643-35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4-3387 · 천안시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88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6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3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55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6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3090 · 김해시건축사회/(055)32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시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301

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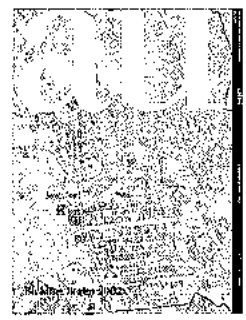
신건축

Architectural Record

World Architecture

a+u

2002년 9월



이번 호의 특집은 'Building Berlin 2002'이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 후 십 수년간 건설붐을 맞은 베를린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쉥켈과 미스 등 근대건축가의 작품에서 최근 완공된 작품들에 이르기까지 베를린의 주목할 만한 건축물들 155개를 선정하고, 이들 중 200여개를 선별하여 소개하였다. 한편 변화하는 베를린과 새로운 건축물들의 의미를 마리 펩친스키의 에세이로 함축하여 담아내었다.

■ 특집: Building Berl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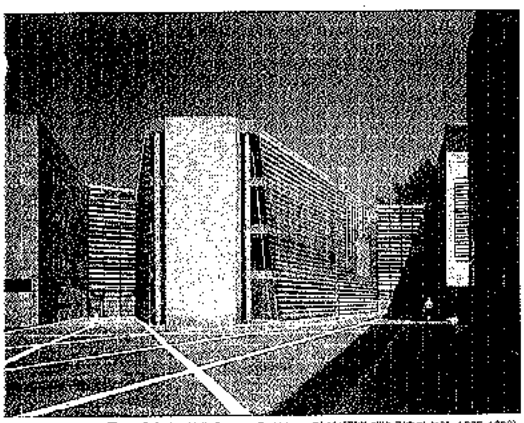
베를린에는 빛과 어둠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십 수년 전, 1989년 베를린의 장벽이 무너진 이래 건설을 계속해 온 이 도시에는 800년을 넘는 역사를 가지면서도 지금에 와서야 세계의 최선단을 걷고 있다. 과거에는 프로이센왕국의 王都였던 베를린은 다시금 수도로 바뀌었다. 그것도 국제도시로서의 신생베를린으로서 말이다. 이번 호에서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이 메트로폴리스의 단면을 2002년도 시점에서 보여주고 있다. 소개된 프로젝트들은 칼 프리드리히 쉥켈이나 미스 반 데를 로에가 그려낸 都市像에서 시작하여 장벽의 붕괴와 더불어 시작되어 완공된 프로젝트와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베를린이 '근대화'를 거치면서 밟은 단계들을 보여준다. 이 밖에도 부르노 타우트 저택의 보수와 같은 수복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표제의 'Building Berlin'의 'Building'은 명사(건물)이면서 동시에 동사(건설하다)인 것이다. 여기에는 '베를린이 어떠한 원동력과 물리적인 특성을 갖고 21세기에 새로이 태어나는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 마리 펩친스키(Mary Pepchinski)의 에세이: 「도시구조로부터 조금 떨어져 서서-베를린의 새로운 건축들」,

1989년이래 베를린의 건설붐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정치가들은 만들어 놓은 「Critical Reconstruction(비판적 재건:근대적 건축과 도시계획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어 있다)」이라 명한 디자인 규칙을 작성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도심부에 신규 착공되는 건물은 8층 규모로 한정되고 모든 도시의 여백을 메꾸는 형태로 외장은 천연석 쌓기여야 하며, 단일한 그리드에 맞추어 배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외관의 통일이라는 문제를 제쳐두면 세계대전 후 한꺼번에 지어진 건물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프리패브 건축이건, 포스트모던 건축이건, 인필(infill)형의 상업건축이던 간에 모두가 이 '비판적 재건'의 교의에 의해 만들어졌다. 베를린의 건축은 수 십년간 도시공간의 윤곽 만들기에 주력해 온 것과 다를 바 없다. 나아가 도시형 건축은 공과 사의 영역을 나누고, 가로나 광장의 영역과 실내의 영역을 분리하는 것이었다. 단지 한스 샤로운이나 미스 반데를 로에의 풍부한 표정을 갖는 기념비적 건축들만이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 이러한 훌륭한 작품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규범대로 지어진 도시형 건축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건물들이 최근 십 수년간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최근의 이러한 건축들은 분명히 각각의 고유한 컨텍스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특징적인 점은 모두가 도전적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이제까지 베를린에서 만들어진 도시형 건축의 방식, 공과 사를 분리하고 건물내부에서 펼쳐지는 스토리를 외부로부터 감추는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 북유럽제국 대사관 (마스터플랜과 공유시설 설계: Berger+Parkkinen, 각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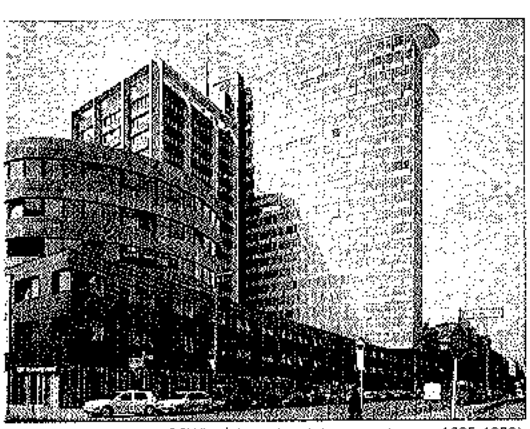
김제국 대사관 (마스터플랜과 등유시설 설계: Berger+Parkkinen, 각 대사관별 개별 건축가 설계, 1995-1999)

사관별 개별 건축가 설계, 1995-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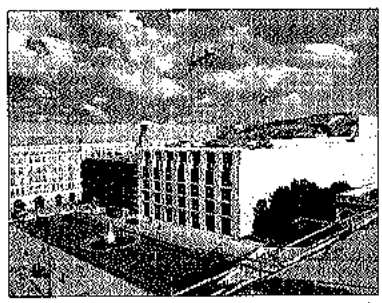
기존의 외교 단지의 경계부에 북유럽諸國대사관이 모여있다. 이 일군의 건물은 건물군 밖의 오피스街와 베를린 중앙공원의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 긴 장방형의 동판을 옆으로 늘어 놓아 형성한 높이 15m의 울타리는 아름다운 외피를 만들면서 이 복합시설을 둘러싸고 있다. 동판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이 개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울타리는 장벽보다는 투명한 막에 가깝다. 이에 의해 시설 내부와 외부와의 시각적 교감이 가능하다.

■ GSW본사 (sauerbruch hutton architects, 1995-1999)

도시를 나누고 있던 베를린 장벽으로부터 1블럭 떨어진 크로츠베르그(Kreuzberg) 지구에는 20층 높이의 GSW본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건물의 서측 파사드에는 유리 커튼월 너머로 붉은 색조의 차양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 차양판은 실내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그 움직임은 시



GSW본사 (sauerbruch hutton architects, 1995-1999)



DZ은행 (Frank O. Gehry, 1995-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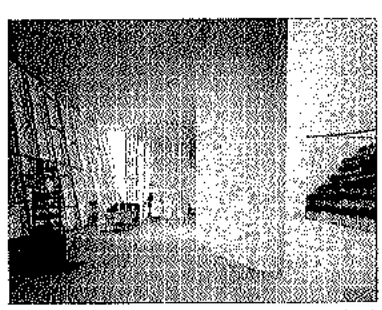
적이고 회화적인 인상을 준다. GSW본사는 전광게시판처럼 개개 업무공간의 상황을 도시전체에 비추고 있다.

■ DZ은행 (Frank O. Gehry, 1995-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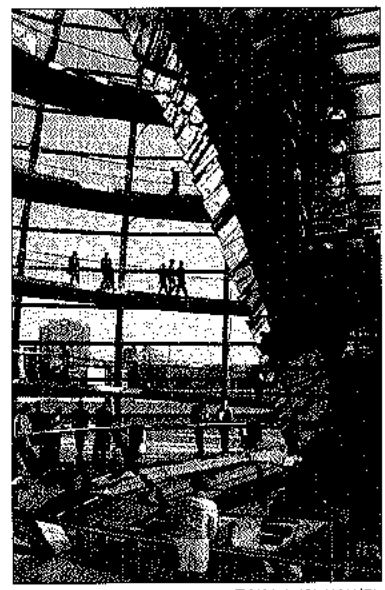
GSW본사에서 몇 블록 북상하면 밋테(Mitte)지구의 파리광장에 면한 공지에 세워진 DZ은행을 만나볼 수 있다. 바로크 양식의 파리 광장은 근년에 비판적 재건 가이드라인에 의해 재건되었다. 은행의 외벽은 그리드가 들어간 라임스톤 마감이다. 그러나 극단적으로 크게 뚫린 개구부덕에 광장을 오가는 사람들에게도 오피스 내부의 광경이 눈에 들어 온다.

■ 멕시코 대사관, 독일연방의회 신의사당, 베를린 중앙역

보다 단순한 방법으로 통행인을 끌어들이는 건물도 있다. 북유럽제국대사관에 인접하는 멕시코대사관(Teodoro Gonzalez de Leon & J. Francisco Serrano)의 파사드는 세장한 지주들이 늘어선 1장의 스크린으로 되어있어 극장의 커튼보다는 균형잡힌 개방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투명한 공간을 감싸기 위해 다수의 유리면을 사용한 예도 있다. 독일연방의회 신의사당(Foster and Partners)에서는 유리 돔 속에서 2줄의



멕시코 대사관



독일연방의회 신의사당

경사로가 감싸돌고 있다. 이 경사로를 거니는 사람들의 모습은 도시의 이곳 저곳에서 보여진다. 혹은 막 완성된 베를린 중앙역인 Lehrter Bahnhof(von Gerkan, Marg and Partner)에서는 발착하는 열차나 승강객이 유리로된 볼트에 역동감을 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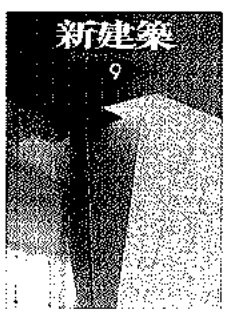
1990년대 초두에 가이드라인 「Critical Reconstruction」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언급한 거물들은 베를린 당국의 고삐를 변화시키면서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시대의 흐름으로서 실현되었다. 대사관등의 건축주는 법적으로는 치외법권이 적용되므로 현지의 건축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었다. 또한 1989년경에 베를린 이외 지역에 근거를 둔 건축가들이 베를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들 아웃사이더들은 베를린의 불확실성과 불완전성을 본 것은 고찰과 실험의 여지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엄격한 디자인 규제를 거부한 것이다.

보다 폭넓은 관점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이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인간이 만들어낸 불변의 위계의 붕괴, 즉 기존의 사회를 만들어왔던 그리고 베를린을 형성해 온 위계의 붕괴와 함께 공과 사, 외부와 내부의 경계는 이러한 건축들에 의해 검증되었다. 전세계의 절대적인 계층제도도

냉전시대가 가져온 정치 경제의 분열도 지금은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동서통일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 베를린에는 어딘가 불안정하고 모순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건물을 디자인 하는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에 의한 단순하고 정당한 전략으로는 이러한 베를린의 일상을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신건축

2002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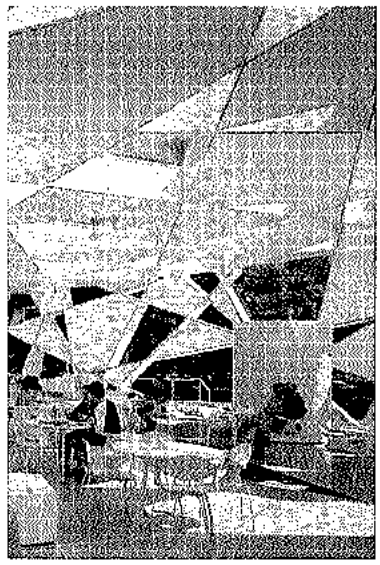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따로 꾸며진 특집 없이 크고 작은 최신 작품들의 소개 위주로 꾸며졌다. 소개된 작품은 코야마 히사오(香山壽夫)건축연구소의 카니(可兒)市 문화창조센터, 이토오 토요와 ARUP의 써펜타인(Serpentine) 갤러리 파빌리언, 안도 타다오의 효고현립(兵庫県立)미술관 등이다.

■작품 소개

▶ 써펜타인 갤러리 파빌리언 2002 (이토오 토요(伊東豊雄+ARUP)

런던의 켄싱턴 가든내에 있는 써펜타인(serpentine) 갤러리의 前庭에 하절기의 3개월간만 설치되는 파빌리언이다. 카페나 이벤트용으로 사용될 300평방미터의 공간을 만들되, 그리드시스템에 의하지 않은 무주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테마가 되었다.

구조는 스틸 플렛 바(steel flat bar)에 의한 격자구조이다. 550mm의 양성이라는 구조요건에서 최소의 두께로 고안된 플렛 바를 공장용접하여 운송가능한 크기로 패널화하고 이들을 현장에서 볼트로 조립하였다. 랜덤해 보이는 架構는 하나의 정방형을 회전 · 확대시킴으로서 생성되는 알고리즘으로 정의할 수 있다. 각각의 부재는 보의 기능 뿐만 아니라 진동의 제어역할까지 수행하여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의존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내고 있다.



써펜타인 갤러리 파빌리언 2002 (이토오 토요(伊東豊雄+ARUP)

표면은 알루미늄 패널과 유리를 사용하여 마감되었다. 구조체의 라인에 의해 분절되는 다각형의 면이 곳에 따라 결합하여 연쇄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은 구조를 표현한 것도, 감춘 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 또한 창이나 벽이라는 건축적 요소에 환원되는 일없이 단지 장식적으로 보이는 모양만이 떠오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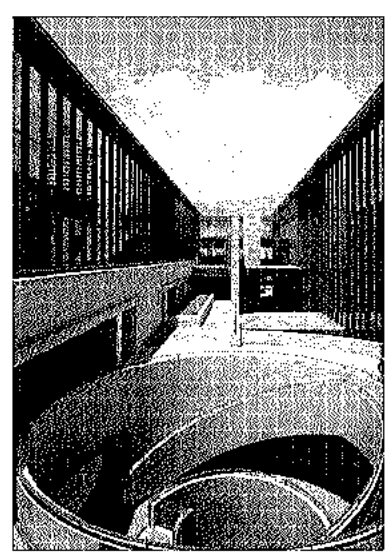
'사람을 보호하는 場을 덮는다' 라는 건축에 있어서 가장 원초적인 이 요건에 대하여 균질화를 향해가는 합리성에 의해 보이지 않게 되었던 시스템을 드러내는(顯在化)일. 이것은 무한히 확장해가는 추상적인 이미지와 복잡하면서도 단연코 순수한 시스템을 갖는 백색 상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이다.

▶ 효고현립(兵庫県立)미술관 (안도타다오, 효고현 현토정비부)

일본 고베(神戸)의 震災復興의 심볼이 되는 동부 신도심지구에 서는 미술관이다. 1997년 국제공모전에서 안도 타다오의 안이 선정되었으며, 부지는 안도가 이전부터 설계를 진행시켜오던 「고베시 水際광장」부지와도 가까운 곳이다. 안도는 발주자와 공사시기도 다른 두 개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일체화시킬 것인가를 주제로 하여 계획을 진행하였다.

전체는 석벽의 기단부분과 평행으로 늘어선 3동의 유리상자로 구성되어 매우 단순한 형태를 지니며, 유리상자 각각은 이중 피막구조로 되어있어 그 내부에는 전시실을 포함한 콘크리트 상자가 들어가 있다. 콘크리트와 유리의 사이공간에서 생기는 여백의 스페이스는 회랑이 되어 내부에 외부를 끌어들이고 외부로 내부의 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단순명쾌한 구성이면서도 내외공간의 경계를 엮어냄으로서 역으로 복잡 다양한 공간체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회랑과 콘크리트 벽에 의하여 감싸진 전시공간은 자연광을 유입시킬 수 있는 4층의 오픈된 前室을 통해 접근된다. 그 이전의 전시실은 恣意的인 요소를 일절 배재하고 인공조명을 중심으로 한 중성적인 공간으로 하였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간 상호간의 볼륨과 빛의 확보에 있어서의 관계이다. 계획 스터디의 대부분은 공간 각각의 폭, 깊이, 천장의 높이라는 비례와 각 공간의 연결에 의해 전개되는 빛의 추이에 대한 검토에 할애되었다. (번역 / 강상훈)



효고현립(兵庫県立)미술관 (안도타다오, 효고현 현토정비부)

Architectural Record

2002년 7월

묘지, 기념 공원 등 추모와 기억을 위한 건축의 의미와 사례들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는 본 호는 아울러 작은 규모의 특화된 병원들에 대한 예들도 소개하고 있다.

■ 추모를 위한 건축

이 특집기사는 꾸준히 논의되는 쟁점에 관한 역사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공공기념물들에 관한 에세이로 시작한다. 묘지, 영안실, 장례식장, 기념 공원 등 몇 가지 완성된 프로젝트들을 소개하면서, 미국 오클라호마 시와 월드트레이드 센터에서 일어난 끔찍한 재난에 대한 두 개의 기사로 마감한다. 우리는 종종 죽음에 대한 슬픔을 잊어버리고자 하지만, 여기에 소개된 작품에서 건축가들은 죽음에 대하여 아름다움을 승화시켜 보여주고자 한다.

▶ Michael Singer, Luz and Partners의 독일 슈투트가르트 Memorial Garden

슈투트가르트 국제 원예박람회의 일부로 조성된 이 공원은 조각가인 Michael Singer가 이 땅을 보고 영감을 받아 작업한 "기억의 지도"를 모티브로 계획되었다. 사이트를 선택하고 나서 Singer는 바로 옆의 언덕이 50년 전 2차 세계 대전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더미로 이뤄진 것을 알게 되었으며 기억이라는 공원의 주제는 더욱 자연스러워졌다. 공원은 흐르는 물소리로 가득하지만 방문객이 볼 수 있는 것은 화강석, 콘크리트, 청동으로 만들어진 연못에 고요히 담겨있는 물이며, 흐르는 물은 돌, 금속, 나무로 만들어진 조형물 안에 숨겨져 있다. Singer는 이러한 방법으로 시각과 청각적 경험을 강조하면서 소리와 풍경간의 미묘한 긴장감을 이루어낸다.

▶Baas Architects의 스페인 Leon 시립 장제장

스페인 남서쪽의 주거지역에 위치한 이 시설은 주민들의 시각적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하에 매장되었으며 지붕에는 물을 채워 연못을 형성하였다. 이 건물은 시립 시신 안치소와 영안실의 기능으로 구성된다. 건축가는 이 건물을 두 개의 대비되는 개념, 즉 "매장과 배출, 땅과 하늘, 무거움과 가벼움, 개방감과 친밀함" 등으로 풀어갔다. 예를 들면 땅에 묻힌 거대한 무덤으로 이 시설을 인식했지만 지붕은 하늘을 반사하는 못을 담고 있다.

기타 예로 ▶Ales Vodopivec의 슬로베니아 Srebrnice 묘지, ▶Mecanoo Architects의 Roterdam Chapel of St. Mary of the Angels, ▶Cesar Portela Architect의 스페인 La Courna Fisterra 묘지 등이 소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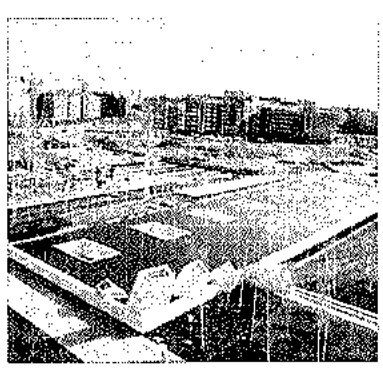
■ 아동 및 여성 전용 의료 시설 사례 연구

미국병원협회 보고서에 의하면 20년 전에 비해 병원수는 1,000개소나 감소하였다. 대형병원에 의해 중소규모 병원들이 합병되거나 폐업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 건설비용은 증가하였으며, 보다 전문화된 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Georgia Medical College의 아동전문병원도 기존 캠퍼스 내 종합 병원 내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아동전문병원으로서의 아이덴티티 확보를 위해 별도로 신축되었다. 이 병원이 화려한 색채와 촉각적인 형태로 어린 환자들의 시선을 끈 반면, Mott Children's Center는 보다 절제된 형태로 젊은 환자들에게 어필하며 의료 서비스면에서는 보다 전문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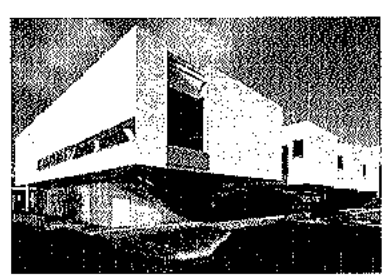
사례로 ▶Stanley Beaman & Sears의 Georgia Augusta 어린이 병원, ▶Atelier Hitoshi Abe의 일본 미야기현 Sekii 여성 전문병원, ▶MMBB Arquitectos의 브라질 Orlandia 치과 병원, ▶Zimmer Gunsul Frasca Partnership의 워싱턴 Mott 어린이 병원 등이 소개되어 있다.

■ 기타

▶Richard Meier의 미국 Atlanta High Museum에 대한 Renzo Piano의 증축 계획안 소식, ▶Sejima와 Nishizawa의 첫 미국 프로젝트, ▶Moshe Safdie의 미국 Metropolitan Kansas City Performing Arts Center 계획 등을 다루고 있다.



Baas Architects의 스페인 Leon 시립 장제장



Atelier Hitoshi Abe의 일본 미야기현 Sekii 여성 전문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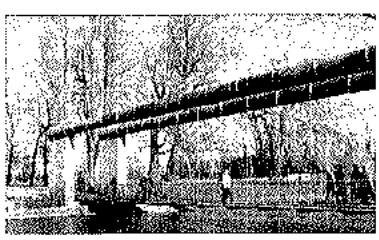
World Architecture

2002년 7/8월

7명의 건축가에 의한 선발된 2002 World Architecture Awards의 후보 리스트를 대대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 호의 건축물 연구 섹션에서는 Toyo Ito, Norman Foster의 근작들이 다루어져 있다.

■ 근작소개

▶Toyo Ito와 Jurg Conzett의 Bruges의 보행자용 다리



Toyo Ito와 Jurg Conzett의 Bruges의 보행자용 다리

유럽의 문화적 중심지로서 선정된 Bruges시는 그 기념으로 일본의 스타건축가 Toyo Ito와 Jurg Conzett에게 각각 건축적 조형물의 설치를 의뢰했다. 유네스코 지정 유산인 광장의 한 가운데 세워진 Ito의 다리는 다소 유머러스한 반면, 이 지역 경제의 중요한 운하를 가로지르는 Conzett의 것은 남성적이다. 도심의 광장에 세워진 벌집모양의 알루미늄 망으로 만들어진 구조체는 다리 안으로 빛이 들어오게 하는 동시에 하중을 별도의 기둥 없이 벌집모양의 망으로 흡수한다. Sendai Mediatheque에서 보여줬듯이 Ito는 빛을 내부로 충분히 끌어들이기 위한 구조적 해결을 모색하는 한편, 구조와 외피의 경계를 흐리는 방법을 사용한다. Conzett의 다리는 2개의 원형 빔에서 연결된 18개의 케이블이 다리를 매달고 있는 구조로서, 원형 빔은 기름 드럼통이나 파이프라인을 연상시킨다.

▶Foster and Partners의 런던 시청

런던 시청은 영국에서 지어진 건물 중 가장 미래적인 건물이다. 이 건물이 위치한 템즈 남쪽 강변은 19세기에는 번화한 강둑이었으나 20세기초는 개발이 유보된 채 방치되어 있었지만, 최근 Tate Modern, the London Eye, 그리고 Millenium Bridge 등 유명건축가의 작품들이 지어지면서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달걀 모양의 형태는 민주주의의 친환경적 표현으로서 건물의 형태와 향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모두 결정되었다.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되어 일반 오피스 건물의 1/4수준으로 건물 운영이 가능하다. 유리의 사용은 접근 용이하고 민주적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한다. 외부에서 지나가는 사람은 그들이 선출한 시장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접근 용이성은 내부 인테리어 구성에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실내에서 가장 특징적인 요소인 나선형 램프는 1층의 의회에서부터 8층의 전망대까지 연결한다.

650개의 서로 다른 크기의 유리로 덮인 타원형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컴퓨터의 도움이 컸다. 컴퓨터에 의한 디자인이 시공기술을 앞서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컴퓨터를 통해 예산절감을 위해 가장 적절한 커브를 찾아내고 곡선을 직선으로 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었다. 런던 시청은 미래를 내다보는 건물이다. 환경적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 런던시가 지향하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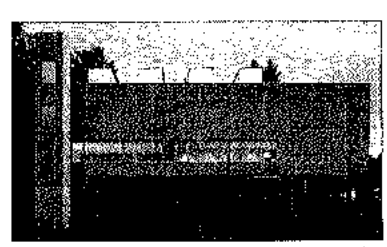
▶Cukrowicz Nachbaur의 오스트리아 소방서 겸 문화센터

오스트리아 서부에 위치한 Vorarlberg는 건축문화를 활발하게 후원하는 지역으로 각각의 마을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유명한 현대 건축물을 볼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의 건축은 Kenneth Frampton이 언급했던 비판적 지역주의(critical regionalism)의 완벽한 표본으로, 문화적, 정치적으로 발전된 곳으로서 높은 수준의 건축기술, 특히 목조기술과 산림자원을 갖고 있다. Frampton에 의하면 이러한 건축은 토속적이지 않으면서도 한정된 지역에 내재한 가치 및 기술을 반영한다.

한정된 예산에 의해서 소방서와 문화센터 등 두 프로그램은 한 건물에 수용되었다. 경사진 대지을 이용하여 Cukrowicz는 이질적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단면적으로 분리하였다. 두 기능의 분리는 재료의 사용에 있어서도 적용되는데, 소방서는 쪽널 거푸집을 이용하여 거친 텍스쳐의 콘크리트마감을 하고 문화회관은 목재마감을 하여 대비를 이룬다. 소방서가 위치한 1층의 전체적 구성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풍부한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곳에 주차하는 4대의 소방차 자체가 시각적 중심이 된다. 문화센터의 한 면은 모두 열려있어 이 면으로부터 들어오는 햇빛에 의해 변화하는 실내 목재마감의 빛깔은 해시계와 같은 기능을 한다. 시간에 따라 그 시각, 청각, 심지어 후각까지 다른 느낌을 주는 것이다.

■ 기타

▶83세 된 Jørn Utzon의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보수 계획, ▶프로레슬러 출신의 미국 미네소타 주지사 Jesse Ventura의 예술 부문 지원 삭감으로 인한 Jean Nouvel, Cesar Pelli, Michael Graves 등의 건축물 신축 지연 소식, ▶Smithsons 부부의 저서에 대한 리뷰 등이 실려있다. (번역 / 최원준)



Cukrowicz Nachbaur의 오스트리아 소방서 겸 문화센터

인터넷 종합 국제서비스 확대 실시

Home Tax Service(HTS)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Home Tax Service 의 민원 및 세무신고 분야 등을 확대하여, 11월부터는 납세자에게 한층 더 편안한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분야

▩ 전자민원증명의 확대

• 민원인이 HTS 홈페이지에서 민원증명을 신청 후, 발급된 증명내용을 확인하여 제출처에 발급번호를 알려주면, 제출처에서 HTS 홈페이지를 통하여 증명내용을 조회하는 서비스

〈현행〉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의 2종 실시 중

〈11월〉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4종을 추가

(예) A기관이 甲에게 사업자등록증명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甲이 HTS를 이용하여 국세청에 신청?발급 받은 증명번호를 A기관에 알려주면, A기관이 HTS에 접속하여 증명내용을 조회처리

▩ 신고 · 신청민원의 HTS 접수

〈현행〉 기한연장승인신청, 징수유예신청, 심사청구서 등의 신고 · 신청민원은 직접 세무서에 접수하여야 함

〈11월〉 기한연장승인신청, 징수유예신청, 심사청구서 등 105종의 신고 · 신청민원을 세무서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

▩ 민원처리상황의 HTS 공개

〈현행〉 민원접수 후 처리상황을 세무서의 회신 공문에 의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함

〈11월〉 처리기간이 4일 이상 소요되는 심사청구, 과세적부심사청구,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 등 30종의 민원 처리상황을 HTS를 이용하여 확인 가능

세무신고 분야

▩ 전자세무신고의 확대

• 세금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전자신고가 가능한 세목을 확대

〈현행〉 세무대리인만 부가가치세, 원천세의 전자신고 가능

〈11월〉 일반 납세자도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세 및 관련 부가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전자신고 가능

※ 향후 전자신고 실시계획

- 일반 납세자도 2003.1월부터 부가가치세, 원천세 전자신고 가능
- 첨부서류가 복잡하여 개발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 · 증여세 등 직접세는 2003년 이후 개발 추진

세무 안내

▩ 모바일 서비스 확대

• 휴대전화의 문자 메세지를 통해 국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 대상을 확대

〈현행〉 고지사실 안내 및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만 실시

〈11월〉 환급 및 복권당첨 등의 안내 서비스를 추가

※ 향후 모바일 서비스 계획

- 2003. 5월부터 휴대전화로 고지 및 납부확인, 민원신청 가능

HTS 가입절차 개선

• 국내 공인인증기관(6개)의 공인인증서 보유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HTS 이용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

〈현행〉 모든 HTS 이용신청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HTS 이용신청을 하고 사용자번호(ID)와 암호를 발급받은 후

- 인터넷으로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ID와 암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 사용

〈11월〉 공인인증서가 있는 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인터넷으로HTS 이용신청을 하여 ID와 암호를 발급 받아 HTS 이용가능

자료제공 및 문의
국세청 납세홍보과(02-397-1397)
E-mail : ho25400@nts.go.kr